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09)

- 제5차(2008)년도 자료 분석 -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

이용자 안내

- 본 보고서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대표성을 갖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8년도에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5차년도 조사결과의 기초통계 결과와 빈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의 전문과 한국교육고용패널 5차(2008)년도 조사에서 실제 사용된 설문지와 코드북, 사용자 지침서 등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rivet.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분석에 사용된 빈도표 통계는 raw data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자료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에 관련한 문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EEP 연구진(keep@krivet.re.kr 02-3485-5266/512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시사점 및 해석상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1부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1
제1절 조사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조사 대상 및 내용	4
제3절 조사 결과	8
제4절 유의사항	14
제2장 표본설계 및 가중치	17
제1절 표본설계	17
제2절 가중치	24

제2부 패널 조사 결과

제1장 (대학)학교 생활	45
제1절 소속 대학	45
제2절 대학 만족도	48
제3절 전공 및 공부	50
제4절 성적	55
제5절 등록 및 휴학	55
제6절 교내 아르바이트	57
제2장 진학계획 및 진로계획	61
제1절 미래 직업	61
제2절 진학 계획	68
제3절 졸업 후 진로계획	79

제3장 직업경험과 직업생활	87
제1절 구직활동	87
제2절 직업경험	98
제3절 현재의 직업생활	107
제4절 취업의사 및 준비	124
제4장 교육훈련	131
제1절 영어 교육	131
제2절 제2외국어 교육	136
제3절 공무원시험 준비	140
제4절 취업/창업/직무능력개발	145
제5절 교양/취미 교육	148
제5장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	151
제1절 가구형태와 구성원	151
제2절 가구 소득 및 지출(경제적 자본)	153
제3절 여가생활(및 문화생활)	157

<표 I-1-1> 조사 대상별 설문지 변화	5
<표 I-1-2> 한국교육고용패널 설문지(2008) 조사내용	6
<표 I-1-3> 1차(2004)년도 조사 결과	9
<표 I-1-4> 2차(2005)년도 조사 결과	9
<표 I-1-5> 3차(2006)년도 조사 결과	10
<표 I-1-6> 4차(2007)년도 조사 성공률	11
<표 I-1-7> 4차(2007)년도 기존패널 조사 성공률	11
<표 I-1-8> 4차(2007)년도 신규패널 조사 성공률	12
<표 I-1-9> 4차(2007)년도 가구조사 성공률	12
<표 I-1-10> 4차(2007)년도 담임, 학교 조사 성공률	13
<표 I-1-11> 5차(2008)년도 조사 성공률	13
<표 I-2-1> 조사 모집단의 결정과정	18
<표 I-2-2> 지역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18
<표 I-2-3> 지역별 표본학교 수(중학교)	19
<표 I-2-4> 지역별 표본학교 수(일반계 고등학교)	20
<표 I-2-5> 학교유형별 표본학교 수(전문계 고등학교)	20
<표 I-2-6> KEEP 기존표본 설계	21
<표 I-2-7> 4차년도 신규표본 설계	22
<표 I-2-8> 조사 모집단의 결정과정(신규 표본)	23
<표 I-2-9> 학교유형별 표본학교 수(전문계 고등학교)	23
<표 I-2-10> 학교설립 유형별 표본학교 수(외국어 고등학교)	24
<표 II-1-1> 학교 계열	46
<표 II-1-2> 주야간여부	47
<표 II-1-3> 재학 중 학교소재지	47

<표 II-1-4> 시설 자원 만족도	48
<표 II-1-5> 지도교수 면담횟수	49
<표 II-1-6> 입학 모집단위	50
<표 II-1-7> 학과 확정 및 원하던 학과 여부, 만족도	51
<표 II-1-8> 교직과정 이수 여부	51
<표 II-1-9> 복수전공 이수 여부와 이유	52
<표 II-1-10> 전공공부 여부	53
<표 II-1-11> 수업태도	54
<표 II-1-12> 2008년 1학기 평점급간화	55
<표 II-1-13> 등록여부 및 등록금	56
<표 II-1-14> 휴학여부 및 이유	57
<표 II-1-15> 교내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및 횟수	58
<표 II-1-16> 교내 아르바이트 1개월 이상 지속 여부 및 횟수	58
<표 II-1-17> 가장 최근 아르바이트에서 한 일(전체)	59
<표 II-2-1> 미래직업 결정 여부	62
<표 II-2-2> 미래 직업	63
<표 II-2-3>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파악 정도	64
<표 II-2-4> 미래직업과 현재 일 및 전공과의 일치도	66
<표 II-2-5> 미래직업을 가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67
<표 II-2-6> 미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계획 실천 여부	68
<표 II-2-7> 2009학년도 대학 입시 계획 여부	68
<표 II-2-8> 대학 입시 준비 내용	69
<표 II-2-9>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	70
<표 II-2-10>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공부시간	71
<표 II-2-11> 희망 대학 유형 및 결정 여부	73

<표 II-2-11> 희망 전공 결정 여부 및 희망 전공 계열 74

<표 II-2-12> 편입(전과) 계획 및 전공일치도와 편입 이유 75

<표 II-2-13> 대학원 진학 의사 및 유형 76

<표 II-2-15> 대학원 진학 이유 및 진학 준비 내용 77

<표 II-2-16> 해외 유학 계획 여부 및 시기 78

<표 II-2-17> 해외 유학 지역 및 학위 수준 79

<표 II-2-18> 대학졸업 후 진로계획 80

<표 II-2-19> 취업 계획 81

<표 II-2-20> 취업 희망 직장 결정 여부 및 선택한 주된 이유 81

<표 II-2-21> 취업시 가장 중요한 요소 82

<표 II-2-22> 직업을 갖는 이유 83

<표 II-2-23> 직업 선택 중요 요소 84

<표 II-2-24> 직업 생활을 성공하기 위한 중요 요인 85

<표 II-3-1> 구직활동 경험 여부 88

<표 II-3-2> 구직활동 미경험 이유 88

<표 II-3-3> 지난 1년간 실제 구직활동 기간(주) 89

<표 II-3-4> 지난 1년간 구직 실패 경험 여부와 횟수 90

<표 II-3-5> 구직과정 실패 이유 91

<표 II-3-6> 취업 준비 경험 여부 92

<표 II-3-7> 취업 준비 경험의 도움 정도 93

<표 II-3-8> 취업 정보 취득 경로 1, 2 순위 94

<표 II-3-9> 워크넷 취업정보 검색 여부와 도움정도 95

<표 II-3-10>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활용과 도움정도 96

<표 II-3-11> 사설 취업 사이트 및 취업정보 검색 여부와 도움정도 97

<표 II-3-12> 사설 취업 사이트 및 취업알선 기관의 활용과 도움정도 97

<표 II-3-13> 구직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	98
<표 II-3-14> '07.7~'08.6월 일자리 경험(현 일자리 제외) 여부	99
<표 II-3-15> 첫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산업: 중분류별 빈도수	100
<표 II-3-16> 첫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직업: 중분류별 빈도수	101
<표 II-3-17> 첫 번째 일자리 - 종사상 지위	102
<표 II-3-18> 첫 번째 일자리 - 일자리 형태	103
<표 II-3-19> 첫 번째 일자리 - 근무 형태	103
<표 II-3-20> 첫 번째 일자리 - 근로시간 형태(시간제/전일제)	104
<표 II-3-21> 첫 번째 일자리 - 월평균 소득	105
<표 II-3-22> 첫 번째 일자리 -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105
<표 II-3-23> 첫 번째 일자리 - 일주일 총 근로시간	106
<표 II-3-24> 첫 번째 일자리 -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107
<표 II-3-25> 취업 현황	108
<표 II-3-26> 현재 일자리 개수	108
<표 II-3-27> 일자리 유형	109
<표 II-3-28> 임금근로자 - 입사 형식	109
<표 II-3-29> 임금근로자 - 일 해당 산업: 중분류별 빈도수	110
<표 II-3-30> 임금근로자 - 일자리 형태	111
<표 II-3-31> 임금근로자 - 근무 형태	112
<표 II-3-32> 임금근로자 - 비상용직 근무 이유	112
<표 II-3-33> 임금근로자 - 근로시간 형태	113
<표 II-3-34> 임금근로자 - 직장 소속유형	114
<표 II-3-35> 임금근로자 - 종업원 규모	114
<표 II-3-36> 임금근로자 - 사회보험 가입여부	115
<표 II-3-37> 임금근로자 - 일주일 평균 근무 일 수	116
<표 II-3-38> 임금근로자 - 일주일 총 근무시간	116

<표 II-3-39> 임금근로자 - 일주일 총 정규근무시간 117

<표 II-3-40> 임금근로자 - 월평균 임금 118

<표 II-3-41> 임금근로자 -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118

<표 II-3-42> 임금근로자 - 월평균 특별급여 119

<표 II-3-43> 임금근로자 - 일이 나의 전공과 잘 맞는가? 120

<표 II-3-44> 임금근로자 - 일·업무 만족 평가 121

<표 II-3-45> 임금근로자 - 근무여건 만족도 121

<표 II-3-46> 임금근로자 - 다른 일자리 찾는 유무 123

<표 II-3-47> 임금근로자 - 다른 일자리 찾는 이유 123

<표 II-3-48> 지난 1주일간 일자리 유무 * 구직활동 여부 124

<표 II-3-49>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 안한 이유 125

<표 II-3-50> 일할 의사 여부 125

<표 II-3-51>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126

<표 II-3-52> 한계소득(최소 희망 월소득) 126

<표 II-3-53> 취업준비 학원, 직업훈련 하루 평균시간 (평일, 휴일) 127

<표 II-3-54> 취업(창업)준비 혼자 공부하는 하루 평균시간 (평일, 휴일) 128

<표 II-3-55> 구직활동 하루 평균 시간 (평일, 휴일) 129

<표 II-4-1> 영어공부와 교육경험 여부 131

<표 II-4-2> 영어교육 132

<표 II-4-3> 영어교육훈련 비용부담 여부와 평균 본인부담액 134

<표 II-4-4> 영어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134

<표 II-4-5> 최근에 본 영어시험 135

<표 II-4-6> 최근에 본 영어시험의 성적평균 136

<표 II-4-7> 제2외국어 공부와 교육경험 여부 136

<표 II-4-8> 제2외국어 교육 137

<표 II-4-9> 제2외국어 교육훈련 비용부담 여부와 평균 본인부담액	139
<표 II-4-10> 제2외국어 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139
<표 II-4-11> 공부한 제2외국어 종류	140
<표 II-4-12> 공무원시험 준비와 교육경험 여부	141
<표 II-4-13> 공무원시험	142
<표 II-4-14> 공무원시험 교육훈련 비용부담 여부와 평균 본인부담액	143
<표 II-4-15> 공무원시험 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144
<표 II-4-16> 준비한 공무원시험 종류	144
<표 II-4-17> 취업, 창업, 직무능력개발 교육훈련 경험여부와 개수	145
<표 II-4-18> 교육훈련 분야	146
<표 II-4-19> 평균금액	147
<표 II-4-20> 교육훈련 기관	147
<표 II-4-21> 교육훈련 도움 정도	148
<표 II-4-22> 교양·취미 교육경험 여부	148
<표 II-4-23> 교양·취미 교육경험 1순위 분야	149
<표 II-5-1> 가구 형태	152
<표 II-5-2> 자취, 하숙, 기숙사 생활비용 및 자립정도	153
<표 II-5-3> 가구소득과 저축액	154
<표 II-5-4> 월평균 생활비와 사교육비	155
<표 II-5-5> 자산액수와 채무유무 및 액수	156
<표 II-5-6> 주거 환경 (점유형태, 거주지역)	157
<표 II-5-7> 여가시간과 활동 - 평일	158
<표 II-5-8> 여가시간과 활동 - 휴일	159
<표 II-5-9> 컴퓨터 사용시간 - 평일	160
<표 II-5-10> 컴퓨터 사용시간 - 휴일	161

<표 II-5-11> 독서량 161

<표 II-5-12> 동아리 활동여부와 갯수 및 시간 162

<표 II-5-13> 동아리 종류 163

<표 II-5-14> 자원봉사 164

<표 II-5-15> 용돈 액수 165

<표 II-5-16> 용돈 1순위 사용처 165

<표 II-5-17> 용돈 마련 166

<표 II-5-18> 해외여행 경험 166



제1부

조사 개요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표본설계 및 가중치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층 인적자원개발은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청년층 인적자원개발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교육시스템 및 대학교육 등의 비효율성 때문에 이러한 양적인 성취가 질적인 성취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청년층 인적자원개발이 노정하고 있는 난맥상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어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가 이처럼 난제로 남아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촉발시키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전반적으로 교육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것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최근 각종 정보자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시계열자료의 성격과 횡단면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패널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계열자료나 횡단면자료에 비해 패널데이터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패널데이터의 장점으로는 추정의 효율성(efficiency) 향상, 설명변수간의 공선성(collinearity) 발생 가

능성 축소, 추정량의 편의(bias) 감소, 정책의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 가능, 상태간의 변이과정(transition between states) 이해 가능, 특정기간효과(period specific effect)나 특정연령효과(age specific effect) 및 동시태생효과(cohort effect)에 대한 분석 가능 등을 들 수 있다. 패널데이터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패널데이터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초기의 표본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조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이라 지칭) 조사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대표성을 갖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1차 조사에서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표성을 갖도록 표본 추출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EEP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신뢰성 있는 패널 데이터의 구축이 가능할 경우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과 노동시장에 대한 엄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과거에 비해 한 차원 높은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현상의 타개를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의 모색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조사 대상 및 내용

1. 조사 대상

5차(2008)년도 조사 대상은 2004년도 중3·고3 코호트 기존패널 6,000명과 2007년에 신규로 추출된 1,500명이다. 5차년도 설문지 조사대상의 응답 유형은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재수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생도 아니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취업 준비생이거나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부 응답자 중에는 교육과 경제활동 모두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유휴 청년층도 있다. 이들의 경우는 공통 문항인 진학계획이나 구직활동 경험, 취업 의사 및 준비, 직장경력, 교육·훈련 경험 응답을 모두 조합하면 추출할 수 있다.

1차(2004)년도부터 5차(2008)년도 조사대상별 설문지의 변화는 <표 I-1-1>와 같다.

<표 I-1-1> 조사 대상별 설문지 변화

구분	1차년도 (2004)	2차년도 (2005)	3차년도 (2006)	4차년도 (2007)	5차년도 (2008)
코 호 트 1	중3	중3	일반고1 전문고1	일반고2 전문고2	일반고3 전문고3
		일반고1 전문고1	일반고2 전문고2	일반고3 전문고3 과학고 조기졸업자	통합설문지
		취업자·비진학자	취업자·비진학자	통합설문지	
	가구	가구	가구	가구	-
	학교·담임	-	-	학교·담임	-
코 호 트 2	일반고3	고3	대학생	통합설문지	통합설문지
	실업고3	대학생 취업자·비진학자	취업자·비진학자		
	가구	가구	가구	-	-
	학교·담임	-	-	-	-

2. 조사 내용

5차년도 설문지 조사대상의 유형은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재수생 등이며, 중학교 3학년 코호트 응답자 중 중·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유학이나 병력 등으로 인해 유급 경험이 있는 일부 고등학생의 경우 고등학생 설문지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설문지(2008)는 크게, 학교생활, 진학계획, 구직활동, 현재 취업상태,

현 일자리의 특성, 취업의사 및 준비, 직장경력, 가정생활, 여가생활, 교육·훈련, 진로계획, 대인관계,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된다.

5차년도 설문지는 4차년도 설문지의 구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였으며, 4차년도 설문지와 비교하여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영역에서 응답자의 진학상황 변화에 따른 대학원생 관련 문항 추가와 ‘진학계획’에서 대학원 진학 의사 문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가정생활’ 범주에서 거주형태인 하숙, 자취, 기숙사 생활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고,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부분이 좀 더 구조화 되었다. 5차년도의 기획 테마는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5차년도 설문지의 각 범주와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I-1-2>와 같다.

<표 I-1-2> 한국교육고용패널 설문지(2008) 조사내용

범주	조사내용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문항) 학교명·학부명·전공명, 학교유형, 주야간 여부, 학교소재지, 입학년도 ◦ (대입준비 사교육 경험 문항) 사교육 경험 여부, 사교육 시간, 사교육 종류, 지출 비용, 대학 입시 도움 정도, EBS 수능특강 시청 여부, 평균 시청시간, EBS 수능특강에 대한 의견 ◦ (신입생·편입생 문항) 입학 전형방법, 입학유형, 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과 요인, 대학만족도, 학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과 요인, 선택한 학과 만족도 ◦ (공통 문항) 모집단위, 학과 확정 및 만족도, 교직이수여부, 복수전공(이중전공, 부전공)이수여부, 전공공부 시간·비용, 강의태도, 대학시설과 자원, 학교생활, 지도교수면담 회수, 대학성적, 등록금 마련 방법, 휴학경험, 편입·전과 계획,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 ◦ (졸업예정자 문항) 졸업 후 계획, 취업계획, 대학 수업 및 능력형성 평가, 직업관 ◦ (대학원생 문항) 대학원 유형, 과정, 학교명, 전공명, 소재지, 진학 동기, 학부전공과의 일치, 수업시간, 학습시간, 수업태도, 학교생활 전반 평가, 성적, 등록금 마련 방법, 휴학 경험, 조교 및 프로젝트 참가 경험, 논문게재 경험
진학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력, 학교 중퇴 이유, 향후 학업 계획, 중퇴한 대학교명·계열·학부명·학과·전공명, 대학 중퇴 시기·이유, 대학 진학 계획 여부, 대학 진학하지 않는 이유, 대학 진학 예상 시기, 대학 진학 준비 관련 여부 ◦ (대학입시 문항) 2009년 대학입시 응시 여부, 대학준비 사교육비, 공부 시간, 학원·과외·EBS 시청 시간, 진학 희망 대학 유형, 진학 희망 대학명, 희망 전공 ◦ (대학원 진학 문항) 대학원 진학 의사, 진학하려는 대학원 종류, 이유, 대학원 준비 사항 ◦ (해외 유학 문항) 해외 유학 계획, 시기, 유학 지역, 학위 수준

(표 계속)

범주	조사내용
구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 경험 여부·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구직 실패 경험 여부·회수·이유, 직업훈련 참여/자격증 취득/취업 정보 검색/취업 부탁/방문 취업 부탁/면접훈련/직업적성, 흥미검사/취업박람회 참여/구직정보 인터넷 올림 경험 여부·도움 정도, 취업 정보 경로, 워크넷·사설 취업기관 정보 검색 및 도움 정도, 허위 구인광고 경험 여부, 구직활동 과정 중 필요한 요소
현재 취업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취업 여부
현 일자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자리 수, 일자리 유형 ◦ (임금근로자) 취업 경로, 일을 시작한 시기, 직장 명·지역·설명, 직장에서의 하는 일·직책·직위, 일자리 형태, 비상용직인 이유, 근로시간 형태, 직장의 분류 형태·규모, 연금·보험 가입 여부, 근무 일 수, 근무 시간, 임금·수당·특별급여, 임금을 받는 곳, 임금 체불 경험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일에 대한 평가·만족도, 구직활동 여부 ◦ (자영업자) 시작한 동기·경로, 일을 시작한 시기, 사업체 지역, 사업체 설명, 종업원 수, 월급 체불 경험 여부, 연금·보험 가입 여부, 근무 일 수, 근무 시간, 월평균 매출액·소득·기대소득, 사업체 분류 형태·준비 기간·총 투자액·대출한 투자액 규모·정부지원 여부, 일에 대한 평가·만족도, 구직활동 여부 ◦ (무급가족종사자) 일을 시작한 시기, 일하는 지역, 일자리 설명, 일자리에서 하는 일, 근무 시간, 월평균 매출액, 이 일을 하는 이유, 일에 대한 평가·만족도, 구직활동 여부
취업 의사 및 취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주일간 일자리 경험 여부·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취업 의사,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하고 싶은 일, 최소 희망 월 소득, 취업을 위해 보내는 시간
직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경험 여부·회수,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 경험 여부·회수, 일을 시작한 시기·그만둔 시기, 일자리 설명, 일자리에서 한 일, 종사상 지위, 일자리 형태, 정규직·시간제 여부, 월평균 소득, 근무 일 수, 근무 시간, 일을 그만둔 이유
가정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살고 있는지 여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 거주형태, 하숙·차취·기숙사 생활(비용 및 마련방법, 보호자로부터의 지원 정도) 혼인상태, 결혼년도, 배우자(선택시 고려한 점, 나이, 외국인 여부,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학력, 경제활동), 자녀(수, 보육 담당자), 가정생활 만족도 ◦ (가구 소득 및 지출) 월 평균 가구 소득, 저축액, 생활비, 사교육비, 주택 점유형태, 현 거주지 규모, 자산 총액, 채무
여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시간, 주요 여가 활동, 용돈(액수 및 주요 사용처, 마련 방법), TV시청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 목적별 컴퓨터 사용 정도, 인터넷 사용 실태, 독서(양, 분야), 동아리 활동(여부, 수, 시간·분야·형태) 자원봉사(여부, 시간, 비용), 해외여행, 선거 참여 여부

(표 계속)

범주	조사내용
교육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제2외국어·공무원 시험 (공부 여부·기간·시간·비용·도움 정도),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여부, 교육·훈련 분야·기간·시간·비용·기관·도움 정도), 교양이나 취미 교육·훈련 (경험 여부·분야), 자격증 취득(여부·명·급수·시행기관·취득시기), 해외 연수 경험(국가, 기간, 목적, 비용부담자)
진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직업 결정 여부, 미래 직업명, 미래 직업에 대한 업무 내용·전망 및 보수 인지 정도, 미래 직업과 전공이나 일과의 관련성 여부, 미래 직업을 위한 실천 계획 (군복무 경험 및 계획) 입대 계획, 군생활을 위한 자격증이나 교육훈련, 군입대 시기, 군전역 시기, 병역종류, 전역시 계급, 병과 및 특기,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 군복무 경험의 도움 정도, 군복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기초능력 향상 도움 정도 평가, 자기개발 프로그램
대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와의 대화, 정기적 연락, 고민 털어놓을 동료 있음, 팀 과제 수행 선호, 동료들과 주요 자료 공유, 동료에게 도움 요청, 팀원 조정역할, 팀원 설득, 동료 의견듣기, 팀과제 수행 평가 및 판단, 팀과제 적극 해결, 팀내 주도적인 역할, 팀목표 명확히 알림, 팀목표에 따른 과제 수행 결정, 팀과제 완수를 위해 여러 자료 활용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상태, 운동 시간, 수면 시간, 아침식사 여부,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현재 고민거리, 흡연 여부, 흡연량, 음주 빈도, 신장, 체중

제3절 조사 결과

1. 1차(2004)년도 조사 결과

1차년도의 조사 대상은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6,000명과 조사대상 패널의 가구 및 학교행정가, 담임교사이다.

조사대상 중 패널 6,000명과 학교행정가 300명은 모두 조사를 성공하여 100%의 조사 성공률을 보였다. 169개의 가구와 9명의 담임교사는 조사를 거부하여, 가구의 조사 성공률은 97.2%였으며, 담임교사의 조사 성공률은 99.2%였다.

〈표 I-1-3〉 1차(2004)년도 조사 결과

(단위: 명, %)

조사대상	표본 수(명)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 성공률(%)
중학교 3학년생	2,000	2,000	100.0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	2,000	100.0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	2,000	100.0
가구(보호자)	6,000	5,831	97.2
학교행정가(교감 또는 교무담당 교사)	300	300	100.0
담임교사	1,121 ¹⁾	1,112	99.2

주: 1) 각 학교당 4개 학급의 담임(총 1,200명)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급수가 4개미만인 학교는 1~3개 학급의 담임만을 조사함.

2. 2차(2005)년도 조사 결과

2차년도의 유효 표본은 6,000명의 패널 중 조사불능자(군대, 유학, 가출, 원양어선, 보호소, 이민, 사망 등) 183명을 제외한 5,817명이다.

유효표본 중 5,252명의 패널을 조사 성공하여 패널의 조사 성공률은 90.3%였으며, 가구의 경우는 6,000개의 가구 중 5,399개의 가구를 조사 성공하여 가구의 조사 성공률은 90%였다.

〈표 I-1-4〉 2차(2005)년도 조사 결과

(단위: 명, %)

조사대상	유효 표본 수(명)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 성공률(%)
		계	조사대상별	
중학교 3학년생	5,817 ¹⁾	5,252	3	90.3
일반계 고등학생			1,283	
전문계 고등학생			477	
대학생			2,456	
취업자, 비진학자	6,000 ²⁾	5,399	1,033	90.0
가구(보호자)				

주: 1) 조사 불능자 183명 제외 - 군대 88명, 유학 40명, 가출 49명, 원양어선 3명, 보호소 1명, 이민 1명, 사망 1명

2) 조사불능자의 가구도 조사 대상임.

3. 3차(2006)년도 조사 결과

3차년도의 유효 표본은 6,000명의 패널 중 조사불능자(군대, 유학, 가출, 해외연수, 원양어선, 보호소, 이민, 사망 등) 1,248명을 제외한 4,752명이다.

유효표본 중 4,087명의 패널을 조사 성공하여 패널의 조사 성공률은 86.0%였으며, 가구의 경우는 6,000개의 가구 중 4,676개의 가구를 조사 성공하여 가구의 조사 성공률은 77.9%였다.

〈표 I-1-5〉 3차(2006)년도 조사 결과

(단위: 명, %)

조사대상	유효 표본 수(명)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 성공률(%)
		계	조사대상별	
일반계 고등학생	4,752 ¹⁾	4,087	1,273	86.0
전문계 고등학생			466	
대학생			1,791	
취업자, 비진학자			557	
가구(보호자)	6,000 ²⁾	4,676		77.9

주: 1) 조사 불능자 1248명 제외 - 군대 1106명, 유학 69명, 가출 50명, 해외연수 6명, 원양어선 5명, 보호소 3명, 이민 3명, 사망 4명, 해외취업 1명, 행방불명 1명

2) 조사불능자의 가구도 조사 대상임.

4. 4차(2007)년도 조사 결과

1) 패널(학생) 조사

기존 및 신규 패널(학생) 전체에 대한 조사 성공률은 기존 패널(학생) 유효표본 3,942명과 신규패널(학생) 표본 1,580명 총계 기준으로 86.8%이다.

〈표 I-1-6〉 4차(2007)년도 조사 성공률

(단위: 명, %)

조사대상	유효표본 수(명)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 성공률(%)
일반계 고등학생	5,522	1,583 ¹⁾	86.8
전문계 고등학생		1,393 ²⁾	
조기졸업자		209	
대학생		981	
취업자·비진학자		627	

주: 1) 기존 패널(학생) 442명과 4차(2007)년도 신규 패널 951명을 합한 수임.

2) 기존 패널(학생) 1,240명과 4차(2007)년도 신규 패널 549명을 합한 수임.

기존 패널(학생)의 유효표본에 대한 조사 성공률은 유효표본수 3,942명 중 3,293명을 조사 완료하여, 조사 성공률은 83.5%이다. 3차(2006)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반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93.4%를 추적 조사하는데 성공하였다.

〈표 I-1-7〉 4차(2007)년도 기존패널 조사 성공률

(단위: 명, %)

'04	조사대상	유효표본 수(명)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 성공률(%)
중3코호트	일반계 고등학생	3,942 ¹⁾	1,240	83.5
	전문계 고등학생		442	
	조기졸업자 ²⁾		3	
	취업자·비진학자		11	
고3코호트	대학생		981	
	취업자·비진학자	616		

주: 1) 조사 불능자 2,058명(탈락자 168명, 군입대 1,742명, 유학 87명, 가출 38명 등)을 제외한 유효표본수

2) 04년 중3패널 중 07년에 조기졸업으로 대학생인 경우임

4차(2007)년도 신규 패널(학생)의 조사 성공률은 신규 추출된 1,580명 중 1,500명을 조사 완료하여, 조사 성공률은 94.9%이다.

〈표 I-1-8〉 4차(2007)년도 신규패널 조사 성공률

(단위: 명, %)

조사대상	표본 수(명)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 성공률(%)
전문계 고등학생	980	951	94.9
과학고 고등학생	300	2771)	
외국어고 고등학생	300	272	

주: 1) 과학고 성공 표본 277명 중 206명은 조기졸업자임

2) 가구 조사

4차(2007)년도 가구조사 성공률은 다음과 같다. 기존패널 중3 코호트의 가구조사는 1,928개 중 1,460개(75.7%)를 성공하였으며, 불능자를 제외하고 조사에 성공한 패널(1,696명)과 가구의 매칭율은 86.1%이고, 신규패널의 가구조사는 1,580개 중 1,251개(79.2%)를 성공하였으며, 조사에 성공한 패널(1,500명)과 가구의 매칭율은 83.4%이다.

〈표 I-1-9〉 4차(2007)년도 가구조사 성공률

(단위: 명, %)

조사대상	유효표본 수(명) (학생조사 성공표본 수)	조사성공 수(명)	조사 성공률(%) (학생-가구 매칭율)
기존패널 가구	1,928(1,696)	1,460	75.7(86.1)
신규패널 가구	1,580(1,500)	1,251	79.2(83.4)

주: 4차년도 가구조사는 기준(2004)년도 중3코호트 기존패널과 2007년 신규패널의 가구(보호자)에 대하여 수행됨.

3) 교사, 학교 조사

4차(2007)년도 학교행정가 및 담임 조사 성공률은 다음과 같다. 기존패널 중3 코호트의 학교 조사는 503건(67.2%)을 조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담임 조사는 948건을 조사하는데 성공하였고, 신규패널의 학교 조사는 55건(79.7%)을 조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담임 조사는 221건을 조사하는데 성공하였다.

〈표 I-1-10〉 4차(2007)년도 담임, 학교 조사 성공률

(단위: 명, %)

조사대상		조사대상 수(명)	조사성공 수(명)	조사 성공률(%)
기존패널	학교	748	503	67.2
	담임	- ¹⁾	948	-
신규패널	학교	69	55	79.7
	담임	- ¹⁾	221	-

주: 1) 기존패널과 신규패널 모두 담임 조사의 정확한 조사대상 수를 알 수 없음

5. 5차(2008)년도 조사 결과

5차년도의 유효표본 수는 조사불능자(군대, 유학, 가출, 해외연수, 원양어선, 보호소, 이민, 사망 등) 1,468명을 제외한 6,032명였으며, 유효표본 중 4,813명을 조사하는데 성공하여 패널의 조사성공률은 79.8%였다. 중3 코호트에서는 유효표본 3,186명 중 2,685명을 조사하는데 성공하여 패널의 조사성공률은 84.3%였다. 고3 코호트에서는 유효표본 2,846명 중 2,128명을 조사하는데 성공하여 패널의 조사성공률은 74.8%였다.

〈표 I-1-11〉 5차(2008)년도 조사 성공률

(단위: 명, %)

조사대상	유효표본 수(명)	조사성공 표본 수(명)	조사 성공률(%)
중3 코호트	3,186	2,685	84.3
고3 코호트	2,846	2,128	74.8
계	6,032 ¹⁾	4,813	79.8

주: 1) 조사불능자 1,468명 제외 - 군대 885명, 탈락자, 유학자·가출·연수 등 583명

2) 해외 단기 연수나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학한 학생에 비해 1학년이 유급되어 온 학생 10명은 제외한 수임.

제4절 유의사항

1. 가중치¹⁾ 적용

본 보고서의 통계 수치(빈도, 평균 등)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본 보고서에 적용된 가중치는 모집단 특성(성별, 지역, 학교 유형 등)이 반영되도록 조정된 값이며, 모집단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중치를 표본 수 기준으로 재조정된 값이다.

모집단 수 기준으로 작성된 가중치를 적용한 통계수치와 표본 수 기준으로 작성된 가중치를 적용한 통계수치는 빈도에서는 차이(모집단 수와 표본 수의 차이)가 있으나, 비율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2. 무응답 처리

본 자료의 무응답 유형으로는 ‘잘 모름’, ‘응답거부’, ‘해당없음’이 있으며, 응답자가 질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응답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질문에 해당이 없다고 판단 할 경우 무응답 유형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잘 모름’, ‘응답거부’, ‘해당없음’을 결측치로 처리하고, 통계수치(비율, 빈도, 평균)를 산출하였다.

3. 조사대상 구분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을 크게 3가지(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는 4가지(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가중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부 제2장 표본설계 및 가중치』 부분 참고. 제2장에 설명된 가중치는 모집단 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가중치에 대한 설명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표본 수를 기준으로 재조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은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으로 구분하였다. 2년제 대학생에는 2~3년제 대학생이 해당되며, 4년제 대학생에는 4~6년제 대학생과 외국소재대학 재학생, 외국소재대학의 국내분교 재학생이 해당된다.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취업자로 구분하였고, 그 외를 미취업자로 구분하였다. 취업자에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되며, 미취업자에는 취업준비자 등 경제활동인구 뿐만 아니라, 재수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해당된다.

제2장

표본설계 및 가중치

제1절 표본설계

1. 기존 패널 표본설계

1)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

KEEP의 모집단은 2004년 현재 중학교,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KEEP의 조사모집단은 『2003년 교육통계연보』의 (전수)조사대상 중학교 2,903개 학교 중 제주도 42개, 도서벽지 166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446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2,249개 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748개 학교 중 제주도 12개, 도서벽지 31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74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631개 학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1,297개 학교 중 제주도 17개, 도서벽지 38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75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1,167개 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중 보통과가 있는 200개 학교 중 도서벽지 24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48개 학교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128개 학교를 합한 1,295개 학교이다. 2003학년도에 2학년인 학생은 2004학년도에 3학년이 되며, 학생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31명 이상의 2학년이 있는 학교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표 I-2-1〉, 〈표 I-2-2〉 참조)

<표 I-2-1> 조사 모집단의 결정과정

(단위: 개, 명)

구 분	총 학교수	제주도	도사벽지	학생 수		조사 모집단
				0명	1~30명	
중학교	2,903 ¹⁾	42	166	44	402	2,249
전문계 고등학교	748 ²⁾	12	31	16	58	631
일반계 고등학교	1,497	17	62	47	76	1,295
일반계	(1,297)	(17)	(38)	(39)	(36)	(1,167)
전문계 보통과	(200) ³⁾	(0)	(24)	(8)	(40)	(128)
전체	5,148	71	259	107	536	4,175

주: 1) 분교 53개 학교 포함.

2)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계열 변경한 14개 학교 중 2개 학교 포함.

3) 종합고등학교 199개 및 계열을 변경한 11개 종합고등학교 중 보통과가 있는 학교 포함.

<표 I-2-2> 지역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단위: 개, 명)

구 분	학교 수					학생 수				
	중학교	전문계	일반계			중학교	전문계 ¹⁾	일반계		
			계	일반고	전문계 보통과			계	일반고	전문계 보통과
서울	357	78	204	204	0	120,826	25,456	94,686	94,686	0
부산	159	46	82	82	0	47,991	16,731	29,755	29,755	0
대구	107	21	56	56	0	36,474	8,699	24,416	24,416	0
인천	87	28	49	49	0	35,793	10,133	21,709	21,709	0
광주	69	13	45	45	0	20,506	5,056	13,601	13,601	0
대전	73	13	39	38	1	20,227	4,527	14,601	14,386	215
울산	42	11	25	25	0	16,452	3,828	10,287	10,287	0
경기	392	110	229	182	47	132,889	28,181	80,688	75,351	5,337
강원	83	34	63	44	19	16,537	5,386	11,380	8,554	2,826
충북	91	30	43	43	0	18,409	7,056	11,638	11,638	0
충남	155	36	70	69	1	22,791	7,120	16,279	16,175	104
전북	123	52	83	59	24	23,446	7,587	16,096	13,545	2,551
전남	156	51	78	73	5	21,583	8,337	14,660	14,350	310
경북	169	59	112	102	10	30,529	8,458	22,958	21,632	1,326
경남	186	49	117	96	21	39,964	8,645	28,677	26,710	1,967
전체	2,249	631	1,295	1,167	128	604,417	155,200	411,431	396,795	14,636

주: 1) 전문계 보통과 학생 수 제외.

2) 표본추출방법

KEEP의 표본추출은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stratification)하고(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로 층화),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전문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학교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을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등 15개 지역(단, 제주도는 제외)으로 층화하고, 전국 학생 수 대비 층화된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추출할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표 I-2-3〉, 〈표 I-2-4〉 참조)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을 공업고, 상업고, 기타고(가사고, 농업고, 수산고, 실업고, 종합고, 해양고는 전국 학생 수 대비 비중이 낮아 기타고로 통합)로 층화하고, 전국의 학생 수 대비 층화된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학교유형별로 추출할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표 I-2-5〉 참조)

〈표 I-2-3〉 지역별 표본학교 수(중학교)

(단위: 개, 명, %)

지역	지역별 조사구		지역별 학생 수 비율(%)	지역별 할당 표본학교 수(개)
	학교 수(개)	학생 수(명)		
서울	357	120,826	19.99	20
부산	159	47,991	7.94	8
대구	107	36,474	6.03	6
인천	87	35,793	5.92	6
광주	69	20,506	3.39	3
대전	73	20,227	3.35	3
울산	42	16,452	2.72	3
경기	392	132,889	21.99	22
강원	83	16,537	2.74	3
충북	91	18,409	3.05	3
충남	155	22,791	3.77	4
전북	123	23,446	3.88	4
전남	156	21,583	3.57	3
경북	169	30,529	5.05	5
경남	186	39,964	6.61	7
전체	2,249	604,417	100	100

〈표 I-2-4〉 지역별 표본학교 수(일반계 고등학교)

(단위: 개, 명, %)

지역	지역별 조사구		지역별 학생 수 비율(%)	지역별 할당 표본학교 수(개)
	학교 수(개)	학생 수(명)		
서울	204	94,686	23.01	23
부산	82	29,755	7.23	7
대구	56	24,416	5.93	6
인천	49	21,709	5.28	5
광주	45	13,601	3.31	3
대전	39	14,601	3.55	3
울산	25	10,287	2.50	2
경기	229	80,688	19.61	20
강원	63	11,380	2.77	3
충북	43	11,638	2.83	3
충남	70	16,279	3.96	4
전북	83	16,096	3.91	4
전남	78	14,660	3.56	4
경북	112	22,958	5.58	6
경남	117	28,677	6.97	7
전체	1,295	411,431	100	100

〈표 I-2-5〉 학교유형별 표본학교 수(전문계 고등학교)

(단위: 개, 명, %)

학교유형	학교유형별 조사구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율(%)	학교유형별 할당 표본학교 수(개)
	학교 수(개)	학생 수(명)		
공업고	202	63,059	40.63	41
상업고	194	59,279	38.20	38
기타고	235	32,862	21.17	21
전체	631	155,200	100	100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출된 각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 4개의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각 학급당 학생 수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학급 수가 4개 이하인 경우는 모든 학급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출된 학급의 학생 수가 x 명인 경우 5명을 추출하기 위해 표본간격(sampling interval ; $y=x/5$)을 설정하고, $[1, y]$ 구간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첫 번호(z)를 선정하고, (z) , $(z+y)$, $(z+2y)$, $(z+3y)$, $(z+4y)$ 번호의 학생을 추출하였다. 즉, 추출된 학급에서 계통추출법으로 5명의 학생을 추출하여, 각 학교당 총 20명의 학생을 추출하였다.

1. 신규 패널 표본설계

1) 신규표본 설계의 목적 및 신규 표본 수

KEEP의 기존표본은 중학교 3학년 2,000명,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2,000명,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2,000명으로 구성되었다.(<표 I-2-6> 참조)

<표 I-2-6> KEEP 기존표본 설계

학교 유형		기존 표본 수
중학교 3학년		2,000
고등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2,000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2,000
계		6,000

(단위: 명)

1차년도 중학교 3학년 집단의 표본 수(2,000명)는 고등학교 3학년 집단의 표본 수(4,000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며, 중학교 3학년 학생은 2차년도 이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문계 진학자 비율이 30% 정도로 전문계 학교 진학자의 향후 진로를 전문계 학교 특성(공업계, 상업계, 기타 등)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수가 부족하여진다. 이와 같은 표본의 특성 변화(일반계고 진학, 전문계고 진학 등)와 표본 탈락 등을 감안하여 중학교 3학년 집단에 대한 추가 표본이 필요하였다. 또한 특목고(과고와 외고)의 영향력이 큰 데 비해 특목고 졸업자에 진

로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목고에 대한 표집이 필요하였다.

표본의 특성 변화(일반계고 진학, 전문계고 진학 등)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자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학교 유형에 따른 표본 수를 결정하였다.(<표 I-2-7> 참조)

<표 I-2-7> 4차년도 신규표본 설계

(단위: 명)

학교 유형		추가 표본 수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1,000 ¹⁾
특수목적고	외국어 고등학교 3학년	300 ²⁾
고등학교 3학년	과학 고등학교 3학년	300 ²⁾
계		1,600

주: 1) 50개교 * 20명 = 1,000명

2) 10개교 * 30명 = 300명

2)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신규 표본)

KEEP 신규 조사의 모집단은 2006년 전문계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2007년에 조사하였다. 2006년 기준 2학년 학생을 표집대상으로 한 것은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재학생의 약 60%가 2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조기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2학년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즉, 신규표집은 2006년 2학년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조사는 2007년 3학년(또는 조기 졸업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KEEP의 신규 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2006년 교육통계연보』의 (전수)조사대상 전문계고등학교 723개 학교 중 제주도 12개, 특수지역 32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78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601개 학교, 외국어고등학교 29개 학교 중 제주도 1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4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24개 학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19개 학교 중 제주도 1개, 특수지역 1개, 2학년이 30명 이하인 1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의 16개 학교이다.

즉, KEEP 신규 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전국의 시·읍·면지역에 위치한 2006학년도에 31명 이상의 2학년이 있는 641개의 전문계 및 외국어·과학고등학교이다.(<표 I-2-8> 참조)

〈표 I-2-8〉 조사 모집단의 결정과정(신규 표본)

(단위: 개)

구분	총 학교 수	제주도	특수지역	학생 수		조사 모집단
				0명	1~30명	
전문계고등학교	723	12	32	17	61	601
외국어고등학교	29	1	0	4	0	24
과학고등학교	19	1	1	1	0	16
계	771	14	33	22	61	641

주: 전문계고의 학생 수는 보통과 학생 수를 제외시키고 계산한 것임

(예: 종합고에서 보통과를 제외한 실업계반 학생의 수가 30명이하면 그 학교는 제외시킴)

3) 표본추출 방법

학교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유형을 공업고, 상업고, 기타고(가사고, 농업고, 수산고, 실업고, 종합고, 해양고는 전국 학생 수 대비 비중이 낮아 기타고로 통합)로 층화하고, 전국의 학생 수 대비 층화된 학교유형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학교유형별로 추출 할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표 I-2-9〉 참조)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설립 유형별로 2개(공립, 사립)으로 층화하고, 전국 학생 수 대비 층화된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추출 할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표 I-2-10〉 참조)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16개의 학교 중 10개의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표 I-2-9〉 학교유형별 표본학교 수(전문계 고등학교)

(단위: 개, 명, %)

학교유형	학교 유형별 조사구		학교 유형별 학생 수 비율(%)	학교 유형별 할당 표본학교 수(개)
	학교 수(개)	학생 수(명)		
공업고등학교	206	61,855	43.0	21
상업고등학교	188	54,002	37.5	19
기타고등학교	207	28,150	19.5	10
계	601	143,962	100	50

〈표 I-2-10〉 학교설립 유형별 표본학교 수(외국어 고등학교)

(단위: 개, 명, %)

학교설립 유형	학교설립 유형별 조사구		학교설립 유형별 학생 수 비율(%)	학교설립 유형별 할당 표본학교 수(개)
	학교 수(개)	학생 수(명)		
공립	7	1,272	18.37	2
사립	17	5,652	81.63	8
계	24	6,924	100	10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출된 각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 4~5개(전문고 4, 특목고 5)의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각 학급당 학생 수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학급 수가 4~5개(전문고 4, 특목고 5) 이하인 경우는 모든 학급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출된 학급의 학생 수가 x 명인 경우 5~6명(전문고 5, 특목고 6)을 추출하기 위해 표본간격(sampling interval ; $y=x/5$ 또는 $y=x/6$)을 설정하고, $[1, y]$ 구간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첫 번호(z)를 선정하고, (z), ($z+y$), ($z+2y$), ($z+3y$), ($z+4y$), ($z+4y$)번호의 학생을 추출하였다. 즉, 추출된 학급에서 계통추출법으로 5~6명(전문고 5, 특목고 6)의 학생을 추출하여, 각 학교당 총 20~30명(전문고 20, 특목고 30)의 학생을 추출하였다.

제2절 가중치

1. 가중치 개요

종단연구(longitudinal survey)에서는 횡단면가중치(cross-sectional weights) 뿐만 아니라 종단면가중치(longitudinal weights)가 필요하다. 1차년도의 가중치는 횡단면조사의 일반적인 가중치 부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는 횡단면가중치

이외에 종단면가중치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중치는 불균등 추출확률 보정, 무응답 보정, 사후층화 보정의 3단계를 거쳐 계산된다.

1) 1단계: 불균등 추출확률(unequal selection probability) 보정

추출확률은 표본추출 과정에서 계산되며,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추출확률의 역수로 구한다.

2) 2단계: 무응답(non-response) 보정

무응답으로 인하여 조사목표 표본 수와 실제 조사성공 표본 수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무응답 보정을 한다. 응답률은 조사목표 표본 수에 대한 실제 조사성공 표본 수의 비율로 계산되며,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로 구한다.

3) 3단계: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

추출확률과 응답률을 고려한 가중치의 총합이 실제 모집단 수와 같도록 보정한다. 사후층화 보정값은 가중치의 총합에 대한 실제 모집단 수의 비율로 구한다.

2. 1차(2004)년도 가중치

1) 추출확률: 불균등 추출확률(unequal selection probability) 보정

학생의 추출확률은 학교의 추출확률,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들의 곱으로 계산되며,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학생의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추출확률은 지역별(15개 시, 도) 전체 학교 수와 표본 학교 수에 따라 다르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추출확률은 학교유형별(공업고, 상업고, 기타고) 전체 학교 수와 표본 학교 수에 따라 다르다.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 추출확률

$$\text{지역별 학교 추출확률} = \frac{\text{지역별 표본 학교 수}}{\text{지역별 전체 학교 수}}$$

▶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추출확률

$$\text{학교유형별 학교 추출확률} = \frac{\text{학교유형별 표본 학교 수}}{\text{학교유형별 전체 학교 수}}$$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은 각 학교의 전체 학급 수와 표본 학급 수에 따라 학교별로 다르다.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text{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 \frac{\text{추출된 학교의 표본 학급 수}}{\text{추출된 학교의 전체 학급 수}}$$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은 각 학급의 전체 학생 수와 표본 학생 수에 따라 학급별로 다르다.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

$$\text{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 = \frac{\text{추출된 학급의 표본 학생 수}}{\text{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 수}}$$

학생의 최종적인 추출확률은 학교의 추출확률,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된다. 학생의 최종적인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추출확률

학생의 추출확률 =

$$\text{지역(학교 유형)별 학교 추출확률} \times \text{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 \times \text{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학생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BY_w1)

$$\text{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 (} BY_w1 \text{)} = \frac{1}{\text{학생의 추출확률}}$$

2) 응답률: 무응답(non-response) 보정

1차년도 조사에서는 표본 학생 6,000명 모두 응답하였다. 모든 학생의 응답률은 1이므로, 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BY_w2)

$$\text{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 (} BY_w2 \text{)} = 1$$

3) 가중치 총합: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

학생의 가중치 총합은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와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계산되며,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학생의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200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의 비율로 계산된다. 학생의 가중치 총합 및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가중치 총합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지역(학교유형)별} \cdot \text{성별}} BY_w1 \times BY_w2 \\ &= \sum_{\text{지역(학교유형)별} \cdot \text{성별}} \text{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 \times 1 \end{aligned}$$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BY_w3)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BY_w3 \text{)} = \frac{\text{지역(학교유형)별 전체 학생 수}}{\text{지역(학교유형)별 가중치 총합}}$$

4) 1차년도 가중치

학생의 최종적인 가중치(BY_weight)는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BY_w1), 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BY_w2),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BY_w3)의 곱으로 계산된다. 학생의 가중치(BY_weight)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가중치(BY_weight)

$$\begin{aligned} \text{학생의 가중치 (} BY_weight \text{)} &= BY_w1 \times BY_w2 \times BY_w3 \\ &= \text{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 \times 1 \times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end{aligned}$$

3. 2차(2005)년도 가중치

1) 응답률: 무응답(non-response) 보정

응답률은 지역, 성별,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2004년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지역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4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유형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률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응답률

$$\text{응답률} = \frac{(\text{기준별}) \text{ 2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text{기준별}) \text{ 2차년도 유효 표본 수}}$$

▶ 무응답 보정 가중치($F1_w1$)

$$\begin{aligned} \text{무응답 보정 가중치}(F1_w1) &= \frac{1}{\text{응답률}} \\ &= \frac{(\text{기준별}) \text{ 2차년도 유효 표본 수}}{(\text{기준별}) \text{ 2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 \end{aligned}$$

2) 가중치 총합: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

가중치 총합은 1차년도 가중치와 2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계산되며, 사후층화 가중치는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가중치 총합과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가중치 총합(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2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BY_weight \times F1_w1 \\ &= \sum_{\text{2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2\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가중치 총합(대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1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BY_weight \times F1_w1 \\ &= \sum_{\text{1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2\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가중치 총합(취업자, 미취업자 등 비진학자)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1차년도 학교지역별}} BY_weight \times F1_w1 \\ &= \sum_{\text{1차년도 학교지역별}}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2\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2$)(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F1_w2 \text{)} = \frac{\text{(2차년도 학교지역*성별) 전체 학생 수}}{\text{(2차년도 학교지역*성별) 가중치 총합}}$$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2$)(대학생)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F1_w2 \text{)} = \frac{\text{(1차년도 학교지역*성별) 전체 학생 수}}{\text{(1차년도 학교지역*성별) 가중치 총합}}$$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2$)(비진학자)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F1_w2 \text{)} = \frac{\text{(1차년도 학교지역별) 전체 학생 수}}{\text{(1차년도 학교지역별) 가중치 총합}}$$

3) 2차년도 가중치

2차년도의 최종적인 가중치($F1_weight$)는 1차년도 가중치(BY_weight), 2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F1_w1$), 2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2$)의 곱으로 계산된다. 2차년도 가중치($F1_weight$)는 다음과 같다.

▶ 2차년도 가중치($F1_weight$)

$$\text{2차년도 가중치 (} F1_weight \text{)} = BY_weight \times F1_w1 \times F1_w2$$

$$= \text{1차년도 가중치} \times \text{2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times \text{2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4. 3차(2006)년도 가중치

1) 응답률: 무응답(non-response) 보정

응답률은 지역, 성별,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2004년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

도 학교지역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4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유형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률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응답률

$$\text{응답률} = \frac{(\text{기준별}) \text{ 3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text{기준별}) \text{ 3차년도 유효 표본 수}}$$

▶ 무응답 보정 가중치($F2_w1$)

$$\begin{aligned} \text{무응답 보정 가중치}(F2_w1) &= \frac{1}{\text{응답률}} \\ &= \frac{(\text{기준별}) \text{ 3차년도 유효 표본 수}}{(\text{기준별}) \text{ 3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 \end{aligned}$$

2) 가중치 총합: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

가중치 총합은 1차년도 가중치와 3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계산되며, 사후층화 가중치는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가중치 총합과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가중치 총합(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3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BY_weight \times F2_w1 \\ &= \sum_{\text{3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text{1차년도 가중치} \times \text{3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2_w2$) (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2_w2) = \frac{(\text{3차년도 학교지역} * \text{성별}) \text{ 전체 학생 수}}{(\text{3차년도 학교지역} * \text{성별}) \text{ 가중치 총합}}$$

3) 3차년도 가중치

3차년도의 최종적인 가중치($F2_weight$)는 1차년도 가중치(BY_weight), 3차년도 무

응답 보정 가중치($F2_w1$), 3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2_w2$)의 곱으로 계산된다. 3차년도 가중치($F2_weight$)는 다음과 같다.

▶ 3차년도 가중치($F2_weight$)(일반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

$$3차년도 가중치(F2_weight) = BY_weight \times F2_w1 \times F2_w2$$

$$= 1차년도 가중치 \times 3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times 3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3차년도 가중치($F2_weight$)(대학생, 비진학자)

$$3차년도 가중치(F2_weight) = BY_weight \times F2_w1$$

$$= 1차년도 가중치 \times 3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5. 4차(2007)년도 가중치

1) 기존 패널

① 응답률: 무응답(non-response) 보정(기존패널)

응답률은 지역, 성별,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2004년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지역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4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유형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률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응답률

$$\text{응답률} = \frac{4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4차년도 유효 표본 수}$$

▶ 무응답 보정 가중치($F3_w2_1$)

$$\begin{aligned} \text{무응답 보정 가중치}(F3_w2_1) &= \frac{1}{\text{응답률}} \\ &= \frac{4차년도 유효 표본 수}{4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 \end{aligned}$$

② 가중치 총합: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기준패널)

가중치 총합은 1차년도 가중치와 4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계산되며, 사후층화 가중치는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가중치 총합과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가중치 총합(일반계고등학생, 전문계고등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4\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BY_weight \times F3_w2_1 \\ &= \sum_{4\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4\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_1$)(일반계고등학생, 전문계고등학생)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F3_w3_1 \text{)} = \frac{\text{지역별*성별 전체 학생 수}}{\text{지역별*성별 가중치 총합}}$$

③ 4차년도 가중치(기준패널)

4차년도의 최종적인 가중치($F3_weight$)는 1차년도 가중치(BY_weight), 4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F3_w2_1$), 4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_1$)의 곱으로 계산된다. 4차년도 가중치($F3_weight_1$)는 다음과 같다.

▶ 4차년도 기준패널 가중치($F3_weight_1$)(일반계고등학생, 전문계고등학생)

$$\begin{aligned} 4\text{차년도 가중치 (} F3_weight_1 \text{)} &= BY_weight \times F3_w2_1 \times F3_w3_1 \\ &=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4\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times 4\text{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4차년도 기준패널 가중치($F3_weight$)(대학생, 비진학자)

$$\begin{aligned} 4\text{차년도 가중치 (} F3_weight \text{)} &= BY_weight \times F3_w2_1 \\ &=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4\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2) 신규 패널

① 추출확률: 불균등 추출확률(unequal selection probability) 보정(신규패널)

학생의 추출확률은 학교의 추출확률,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들의 곱으로 계산되며,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학생의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전문계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의 학교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전문계고등학교의 학교 추출확률

$$\text{학교유형별 학교 추출확률} = \frac{\text{학교유형별 표본 학교 수}}{\text{학교유형별 전체 학교 수}}$$

▶ 외국어고등학교의 학교 추출확률

$$\text{학교설립 유형별 학교 추출확률} = \frac{\text{학교설립 유형별 표본 학교 수}}{\text{학교설립 유형별 전체 학교 수}}$$

▶ 과학고등학교의 학교 추출확률

$$\text{학교 추출확률} = \frac{\text{표본 학교 수}}{\text{전체 학교 수}}$$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은 각 학교의 전체 학급 수와 표본 학급 수에 따라 학교별로 다르다.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text{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 \frac{\text{추출된 학교의 표본 학급 수}}{\text{추출된 학교의 전체 학급 수}}$$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은 각 학급의 전체 학생 수와 표본 학생 수에 따라 학급별로 다르다.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

$$\text{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 = \frac{\text{추출된 학급의 표본 학생 수}}{\text{추출된 학급의 전체 학생 수}}$$

학생의 최종적인 추출확률은 학교의 추출확률, 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된다. 학생의 최종적인 추출확률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추출확률

$$\text{학생의 추출확률} = \text{학교 추출확률} \times \text{추출된 학교에서의 학급 추출확률} \\ \times \text{추출된 학급에서의 학생 추출확률}$$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학생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F3_w1_2$)

$$\text{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 (} F3_w1_2 \text{)} = \frac{1}{\text{학생의 추출확률}}$$

② 응답률: 무응답(non-response) 보정(신규패널)

4차년도 조사에서는 표본 학생 1,500명 모두 응답하였다. 모든 학생의 응답률은 1이므로, 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F3_w2_2$)

$$\text{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 (} F3_w2_2 \text{)} = 1$$

③ 가중치 총합: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신규패널)

학생의 가중치 총합은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와 무응답 보정 가중치로 계산되며,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학생의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2007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의 비율로 계산된다. 학생의 가중치 총합 및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가중치 총합(전문계고등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학교유형} \cdot \text{성별}} F3_w1_2 \times F3_w2_2 \\ &= \sum_{\text{학교유형} \cdot \text{성별}} \text{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 \times 1 \end{aligned}$$

▶ 학생의 가중치 총합(외국어고등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설립유형} \cdot \text{성별}} F3_w1_2 \times F3_w2_2 \\ &= \sum_{\text{설립유형} \cdot \text{성별}} \text{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 \times 1 \end{aligned}$$

▶ 학생의 가중치 총합(과학고등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진학유형} \cdot \text{성별}} F3_w1_2 \times F3_w2_2 \\ &= \sum_{\text{진학유형} \cdot \text{성별}} \text{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 \times 1 \end{aligned}$$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_2)(전문계고등학생)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F3_w3_2)} = \frac{\text{학교유형별 전체 학생 수}}{\text{학교유형별 가중치총합}}$$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_2)(외국어고등학생)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F3_w3_2)} = \frac{\text{설립유형별 전체 학생 수}}{\text{설립유형별 가중치총합}}$$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_2)(과학고등학생)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F3_w3_2)} = \frac{\text{진학유형별 전체 학생 수}}{\text{진학유형별 가중치총합}}$$

④ 4차년도 가중치(신규패널)

학생의 최종적인 가중치($F3_weight_2$)는 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F3_w1_2$), 학생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F3_w2_2$),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_2$)의 곱으로 계산된다. 학생의 가중치($F3_weight_2$)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가중치($F3_weight_2$)

$$\begin{aligned} \text{학생의 가중치}(F3_weight_2) &= F3_w1_2 \times F3_w2_2 \times F3_w3_2 \\ &= \text{학생의 추출확률 보정 가중치} \times 1 \times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end{aligned}$$

3) 전체(기존+신규) 패널

① 가중치 총합: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기존+신규패널)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 (일반계고등학생)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 = \frac{\text{학교지역별 전체 학생 수}}{\text{학교지역별 가중치총합}}$$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 (전문계고등학생)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 = \frac{\text{학교유형별 전체 학생 수}}{\text{학교유형별 가중치총합}}$$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 (외국어고등학생)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 = \frac{\text{설립유형별 전체 학생 수}}{\text{설립유형별 가중치총합}}$$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 (과학고등학생)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 = \frac{\text{진학유형별 전체 학생 수}}{\text{진학유형별 가중치총합}}$$

② 4차년도 가중치(기존+신규패널)

학생의 최종적인 가중치($F3_weight$)는 기존패널의 가중치($F3_weight_1$) 및 신규패널의 가중치($F3_weight_2$)와 전체패널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의 곱으로 계산된다. 학생의 가중치($F3_weight$)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가중치($F3_weight$)(기존패널)

$$\text{학생의 가중치}(F3_weight) = F3_weight_1 \times F3_w3$$

= 기존패널의 4차년도 가중치 × 전체패널의 4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학생의 가중치($F3_weight$)(신규패널)

$$\text{학생의 가중치}(F3_weight) = F3_weight_2 \times F3_w3$$

= 신규패널의 4차년도 가중치 × 전체패널의 4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6. 5차(2008)년도 가중치

1) 기존 패널

① 응답률: 무응답(non-response) 보정(기존패널)

응답률은 지역, 성별,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2004년 중학교 3학년 코호트와 2004년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 지역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4년 전문계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1차년도 학교유형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률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응답률

$$\text{응답률} = \frac{\text{5차년도 조사성공표본 수}}{\text{5차년도 유효 표본 수}}$$

▶ 무응답 보정 가중치($F4_w2_1$)

$$\begin{aligned} \text{무응답 보정 가중치}(F4_w2_1) &= \frac{1}{\text{응답률}} \\ &= \frac{\text{5차년도 유효 표본 수}}{\text{5차년도 조사성공표본 수}} \end{aligned}$$

② 가중치 총합: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기준패널)

가중치 총합은 1차년도 가중치와 5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의 곱으로 계산되며, 사후층화 가중치는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가중치 총합과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가중치 총합(중학교 3학년 코호트: 대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4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cdot \text{대학진학자}} BY_weight \times F4_w2_1 \\ &= \sum_{\text{4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cdot \text{대학진학자}}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5\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가중치 총합(중학교 3학년 코호트: 취업자, 미취업자 등 비진학자)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text{4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비진학자}} BY_weight \times F4_w2_1 \\ &= \sum_{\text{4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비학진학자}} 1\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5\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3_1$)(중학교 3학년 코호트: 대학생)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3_1) = \frac{\text{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text{ 전체 학생 수}}{\text{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text{ 가중치 총합}}$$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3_1$)(중학교 3학년 코호트: 비진학자)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3_1) = \frac{\text{학교지역별} \text{ 전체 학생 수}}{\text{학교지역별} \text{ 가중치 총합}}$$

③ 5차년도 가중치(기준패널)

5차년도 기준패널의 가중치($F4_weight_1$)는 1차년도 가중치(BY_weight), 5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F4_w2_1$), 4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4_w3_1$)의 곱으로 계산된다. 5차년도 기준패널의 가중치($F4_weight_1$)는 다음과 같다.

▶ 5차년도 기존패널 가중치($F4_weight_1$)(중학교 3학년 코호트)

$$\begin{aligned} 5차년도 가중치(F4_weight_1) &= BY_weight \times F4_w2_1 \times F4_w3_1 \\ &= 1차년도 가중치 \times 5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times 5차년도 사후층화보정 가중치 \end{aligned}$$

▶ 5차년도 기존패널 가중치($F4_weight_1$)(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begin{aligned} 5차년도 가중치(F4_weight_1) &= BY_weight \times F4_w2_1 \\ &= 1차년도 가중치 \times 5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2) 신규 패널

① 응답률: 무응답(non-response) 보정(신규패널)

응답률은 성별, 학교유형, 진학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응답률의 역수로 계산된다. 2007년 전문계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4차년도 학교유형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고, 2007년 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4차년도 학교설립유형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7년 과학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4차년도 진학유형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률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응답률

$$\text{응답률} = \frac{5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5차년도 유효 표본 수}$$

▶ 무응답 보정 가중치($F4_w2_2$)

$$\begin{aligned} \text{무응답 보정 가중치}(F4_w2_2) &= \frac{1}{\text{응답률}} \\ &= \frac{5차년도 유효 표본 수}{5차년도 조사성공 표본 수} \end{aligned}$$

② 가중치 총합: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신규패널)

가중치 총합은 4차년도 신규패널 가중치와 5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의 곱으로 계산되며, 사후층화 가중치는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가중치 총합과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가중치 총합(2007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대학생)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4\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cdot \text{대학진학자}} F3_weight_2 \times F4_w2_2 \\ &= \sum_{4\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성별} \cdot \text{대학진학자}} 4\text{차년도 신규패널 가중치} \times \\ &\quad 5\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가중치 총합(2007년 고등학교 코호트: 취업자, 미취업자 등 비진학자)

$$\begin{aligned} \text{가중치 총합} &= \sum_{4\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비진학자}} F3_weight_2 \times F4_w2_2 \\ &= \sum_{4\text{차년도 학교지역별} \cdot \text{비진학자}} 4\text{차년도 신규패널 가중치} \times \\ &\quad 5\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3_2$)(2007년 고등학교 코호트: 대학생)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3_2) = \frac{\text{지역별} \cdot \text{성별} \text{ 전체 학생 수}}{\text{지역별} \cdot \text{성별} \text{ 가중치 총합}}$$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3_2$)(2007년 고등학교 코호트: 비진학자)

$$\text{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1_w3_2) = \frac{\text{지역별 전체 학생 수}}{\text{지역별 가중치 총합}}$$

③ 5차년도 가중치(신규패널)

5차년도 신규패널의 가중치($F4_weight_2$)는 4차년도 가중치($F3_weight$), 5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F4_w2_2$), 4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4_w3_2$)의 곱으로 계산된다. 5차년도 신규패널의 가중치($F4_weight_2$)는 다음과 같다.

▶ 5차년도 신규패널 가중치($F4_weight_2$)(2007년 전문계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begin{aligned} 5\text{차년도 가중치}(F4_weight_2) &= F3_weight_2 \times F4_w2_2 \times F4_w3_2 \\ &= 4\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5\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times 5\text{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end{aligned}$$

▶ 5차년도 신규패널 가중치($F4_weight_2$)(2007년 외국어·과학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begin{aligned} 5\text{차년도 가중치}(F4_weight_2) &= F3_weight_2 \times F4_w2_2 \\ &= 4\text{차년도 가중치} \times 5\text{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end{aligned}$$

3) 전체(기존+신규) 패널

① 가중치 총합: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보정(기존+신규패널)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는 가중치 총합에 대한 전체 학생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4_w3$)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4_w3$)(중3 코호트: 대학생)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F4_w3) = \frac{\text{학교지역별*성별 전체 학생 수}}{\text{학교지역별*성별 가중치 총합}}$$

▶ 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3_w3$)(중3 코호트: 비진학자)

$$\text{학생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F4_w3) = \frac{\text{학교지역별 전체 학생 수}}{\text{학교지역별 가중치 총합}}$$

② 5차년도 가중치(기존+신규패널)

5차년도 전체패널의 가중치($F4_weight$)는 기존패널의 가중치($F4_weight_1$) 및 신규패널의 가중치($F4_weight_2$)와 전체패널의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F4_w3$)의 곱으로 계산된다. 5차년도 전체패널의 가중치($F4_weight$)는 다음과 같다.

▶ 5차년도 전체패널의 가중치($F4_weight$)(기존패널)

$$\text{5차년도 전체패널의 가중치 } (F4_weight) = F4_weight_1 \times F4_w3$$

= 기존패널의 5차년도 가중치 × 전체패널의 5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 5차년도 전체패널의 가중치($F4_weight$)(신규패널)

$$\text{5차년도 전체패널의 가중치 } (F4_weight) = F4_weight_2 \times F4_w3$$

= 신규패널의 5차년도 가중치 × 전체패널의 5차년도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제 2 부

패널 조사 결과

제1장 (대학)학교 생활

제2장 진학계획 및 진로계획

제3장 직업경험과 직업생활

제4장 교육훈련

제5장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

제1장

(대학)학교 생활

제1절 소속 대학

한국교육고용패널 5차(2008)년도 응답자 가운데 대학 재학 중인 패널(학생)에 있어서 성별로 고3 코호트 2년제 대학생에서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자이후 계속 학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학생의 경우 대부분 이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코호트 별로는 중3 코호트가 고3 코호트 보다 재학생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고3 코호트 2년제 대학생이 졸업한 영향이다.

2년제 대학 남학생의 경우 공학계열이 52.4%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도 15.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년제 대학 여학생의 경우 사회계열이 30.1%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 22.4%, 의약계열이 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남학생의 경우에도 공학계열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28.5%)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4년제 대학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계열(29.5%), 자연계열과 인문계열(17.3%), 예체능계열(13.5%)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1-1〉 학교 계열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중3 코호트	인문계열	0.6	5.4	3.0	9.4	16.8	12.7
	사회계열	16.3	31.4	23.9	27.9	29.7	28.7
	교육계열	0.2	7.7	4.0	3.9	9.2	6.3
	공학계열	50.7	6.2	28.4	36.7	9.8	24.6
	자연계열	7.9	5.9	6.9	9.8	18.4	13.7
	의약계열	8.2	20.3	14.3	2.2	4.7	3.3
	예체능계열	16.0	23.0	19.6	10.1	11.5	10.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02	406	808	781	639	1,420
고3 코호트	인문계열	2.5	2.9	2.6	7.6	17.8	13.3
	사회계열	14.3	23.3	16.7	29.4	29.4	29.4
	교육계열	0.0	8.6	2.2	4.3	8.8	6.8
	공학계열	55.4	7.8	43.0	37.5	8.9	21.6
	자연계열	6.4	8.5	7.0	9.8	16.3	13.4
	의약계열	8.7	30.0	14.3	3.0	3.4	3.2
	예체능계열	12.6	18.9	14.3	8.4	15.4	12.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26	80	306	538	671	1,209
전체	인문계열	1.3	5.0	2.9	8.7	17.3	13.0
	사회계열	15.6	30.1	21.9	28.5	29.5	29.0
	교육계열	0.2	7.9	3.5	4.0	9.0	6.5
	공학계열	52.4	6.5	32.4	37.0	9.3	23.2
	자연계열	7.4	6.3	6.9	9.8	17.3	13.5
	의약계열	8.4	21.9	14.3	2.5	4.0	3.3
	예체능계열	14.8	22.4	18.1	9.4	13.5	11.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9	486	1,114	1,319	1,310	2,628

96% 이상에 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간대학에 재학 중으로 나타났는데,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원격(방송) 대학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우 미미하였다.

〈표 II-1-2〉 주야간여부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주간	95.5	96.5	96.0	97.6	97.2	97.4
야간	4.4	3.2	3.9	2.4	2.0	2.2
원격(방송)	0.1	0.2	0.1	0.0	0.8	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30	486	1,116	1,321	1,319	2,640

학교소재지별 분포를 보면, 2년제 대학생의 경우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비율이 33.0%로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소재 대학이 11.2%로서 2위, 부산이 7.6% 3위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16.3%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3.2%로 2위, 경기도가 11.6%로 3위로 2년제 대학과는 학교소재지별 분포에서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표 II-1-3〉 재학 중 학교소재지

(단위: %)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서울	9.2	13.9	11.2	11.3	21.3	16.3
부산	5.5	10.3	7.6	16.1	10.3	13.2
대구	9.0	5.6	7.5	3.6	3.5	3.5
인천	4.5	5.6	5.0	2.3	2.9	2.6
광주	2.3	1.0	1.7	4.4	4.2	4.3
대전	2.7	4.8	3.6	6.4	6.0	6.2
울산	2.2	1.9	2.0	0.3	1.1	0.7
경기	33.9	31.8	33.0	10.1	13.1	11.6
강원	2.6	3.7	3.1	5.4	3.5	4.4
충북	4.4	4.6	4.5	7.4	5.3	6.4
충남	5.4	2.9	4.3	10.4	9.5	10.0
전북	3.6	2.8	3.2	4.9	5.2	5.1
전남	5.0	2.3	3.8	2.2	3.1	2.7
경북	5.1	5.1	5.1	10.2	5.7	8.0
경남	4.6	3.3	4.0	4.4	5.0	4.7
제주	0.0	0.5	0.2	0.0	0.2	0.1
외국	0.0	0.0	0.0	0.3	0.1	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30	486	1,116	1,322	1,319	2,641

제2절 대학 만족도

재학 중인 대학의 시설이나 자원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2년제 대학생보다 4년제 대학생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만족비율을 계산해 보면 2년제 대학의 경우 강의/실습시설, 도서관/강의실에 대한 만족도가 50%를 상회하였으며, 책과 자료, 컴퓨터 사용환경 등은 50%에 못 미쳤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책과 자료에 대한 만족도가 60%를 상회하여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 사용환경 역시 60%에 근접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강의/실습시설, 도서관/강의실에 대한 만족도는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표 II-1-4〉 시설 자원 만족도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강의/실습시설	전혀 그렇지 않다	2.8	1.6	2.3	1.9	1.0	1.4
	그렇지 않다	11.2	11.2	11.2	12.2	16.7	14.5
	보통이다	36.1	34.8	35.5	32.2	31.4	31.8
	그렇다	44.2	48.9	46.3	47.3	44.8	46.0
	매우 그렇다	5.7	3.4	4.7	6.4	6.1	6.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30	486	1,116	1,318	1,317	2,634
도서관/강의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1.2	1.3	1.1	2.2	1.6
	그렇지 않다	9.9	15.0	12.1	11.4	15.0	13.2
	보통이다	36.5	32.9	34.9	28.6	31.9	30.2
	그렇다	44.4	43.3	43.9	47.6	41.2	44.4
	매우 그렇다	7.6	7.7	7.7	11.3	9.7	1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30	486	1,116	1,318	1,318	2,635

(표 계속)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책과 자료	전혀 그렇지 않다	2.8	1.2	2.1	0.2	1.4	0.8
	그렇지 않다	9.5	13.2	11.1	6.8	7.7	7.3
	보통이다	39.8	37.8	38.9	30.4	28.6	29.5
	그렇다	40.2	40.6	40.4	47.4	49.1	48.3
	매우 그렇다	7.7	7.2	7.5	15.2	13.2	14.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9	486	1,115	1,316	1,316	2,632
컴퓨터 사용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2.3	3.1	2.7	1.1	2.1	1.6
	그렇지 않다	13.4	18.0	15.4	11.1	9.1	10.1
	보통이다	34.8	31.6	33.4	30.3	29.2	29.7
	그렇다	40.3	41.1	40.6	42.5	48.0	45.2
	매우 그렇다	9.2	6.2	7.9	15.1	11.6	1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9	486	1,115	1,318	1,318	2,635

지도교수와의 지난 1년간 평균 면담횟수는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공히 1.4회로 동일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평균 면담횟수가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모두에서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1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가 2회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대학교수의 학생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표 II-1-5〉 지도교수 면담횟수

(단위: 회)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평균 면담횟수	1.1	1.7	1.4	1.2	1.5	1.4
응답자 수(명)	626	484	1,110	1,319	1,316	2,635

제3절 전공 및 공부

2년제 대학생의 경우 77.8%가 학과(전공제) 단위로 입학한 반면, 4년제 대학생의 경우 그 비율은 46.7%로서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학부제로 입학한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별로 입학한 경우는 8.0%에 그쳤다.

〈표 II-1-6〉 입학 모집단위

(단위: %)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계열제	12.5	13.9	13.1	8.2	7.9	8.0
학부제	8.9	9.5	9.1	47.0	43.5	45.2
학과(전공제)	78.7	76.6	77.8	44.8	48.6	4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8	482	1,110	1,318	1,317	2,636

2008년 조사시점에 학과가 확정된 학생비율은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에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 학과가 확정된 학생비율이 85.7%에 달한 반면, 4년제 대학생에서는 59.9%에 그쳤다. 학과가 확정된 학생 중 현재 학과가 본인이 원하던 학과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공히 90%에 근접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확정된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로 측정된 결과 2년제 대학생은 63.2%, 4년제 대학생은 66.8%로서 4년제 대학생의 만족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이 원하던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조차 확정된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과 결정전에 충분한 진로지도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1-7〉 학과 확정 및 원하던 학과 여부, 만족도

(단위: %)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학과 확정 여부	예	86.0	85.3	85.7	55.7	64.3	59.9
	아니오	14.0	14.7	14.3	44.3	35.7	4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3.8	112.7	246.5	727.1	676.6	1403.7
원하던 학과인지 여부	예	87.5	90.1	88.6	90.0	86.6	88.2
	아니오	12.5	9.9	11.4	10.0	13.4	1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5	96	211	405	435	840
확정 학과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1.8	0.0	1.0	0.9	1.3	1.1
	그렇지 않다	5.2	2.3	3.8	4.8	9.2	7.1
	보통이다	35.6	27.4	31.9	26.9	23.5	25.1
	그렇다	52.8	64.6	58.1	55.9	55.5	55.7
	매우 그렇다	4.6	5.8	5.1	11.6	10.5	1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5	96	211	405	435	840

교직과정 이수자의 비율은 2년제 대학의 경우 26.8%, 4년제 대학의 경우 18.2%로 나타나 2년제 대학 재학생의 교직과정 이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성별로는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모두에서 남학생의 교직과정 이수자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1-8〉 교직과정 이수 여부

(단위: %)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예	26.9	26.7	26.8	18.5	17.9	18.2
아니오	73.1	73.3	73.2	81.5	82.1	8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30	485	1,115	1,320	1,319	2,639

2년제 대학생의 경우 복수전공 이수자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4년제 대학생의 경우 10%에는 못 미치나 2년제 대학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4년제 대학 여학생의 복수전공 이수 비율이 11.8%로 매우 높았으며, 그 사유는 절반정도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로 나타났다. 2년제 대학의 경우 남학생에서는 복수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가장 높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공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가 30%대로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II-1-9〉 복수전공 이수 여부와 이유

(단위: %)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예	1.6	1.6	1.6	3.2	11.8	7.5
아니오	98.4	98.4	98.4	96.8	88.2	92.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30	486	1,116	1,322	1,319	2,641
전공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9.8	31.9	19.3	19.4	10.7	12.5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5.9	19.3	34.5	42.7	48.2	47.0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	0.0	1.1	13.0	1.7	4.1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0.0	0.0	0.0	0.0	7.0	5.5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25.1	18.4	22.2	18.1	17.5	17.6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	17.3	30.4	22.9	3.8	3.6	3.7
기타	0.0	0.0	0.0	3.0	11.4	9.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	8	18	42	155	197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모두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이외에 별도로 전공공부를 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의 비율이 낮았는데, 2년제 대학 남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7.1%에 불과했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그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하여 대학생들의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하였다. 전공공부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비율은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모두에서 여학생이 월등하게 높은 특징을 보였다. 2년제 대학 여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28.3%에 달하였으며 4년제 대학 여학생도 17.9%를 보였는데, 이것은 남학생의 5% 내외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전공 사교육 시간은 대체로 일주일 평균 10시간 내외이었으며 사교육 비용은 월평균 20만원 대로서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한편, 혼자 전공공부하는 시간은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지만 주당 1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II-1-10〉 전공공부 여부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수업 외 전공공부	예	7.1	8.4	7.7	10.1	17.0	13.6
	아니오	92.9	91.6	92.3	89.9	83.0	86.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30	486	1,116	1,321	1,319	2,640
전공공부 사교육 경험	예	4.4	28.3	15.8	5.9	17.9	13.4
	아니오	95.6	71.7	84.2	94.1	82.1	86.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5	41	86	133	224	358
전공공부 사교육 시간	평균(시간)	8.1	9.8	9.6	9.3	11.5	11.1
	응답자 수(명)	2	12	14	8	39	47
전공공부 사교육 비용	평균(만원)	23.5	23.9	23.9	27.3	24.6	25.0
	응답자 수(명)	2	12	14	8	39	47
혼자 전공 공부하는 시간	평균(시간)	6.6	5.6	6.1	10.8	8.9	9.6
	응답자 수(명)	45	41	85	134	223	357

수업태도를 보면, 출석과 과제수행이 70%를 상회하는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강의집중은 6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반면, 복습은 20%대, 예습은 10%대 등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 학생들이 강의내용을 체화하여 실제 학습효과를 거두는 데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성별로 보면 출석, 복습, 예습, 과제, 강의집중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수업태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1〉 수업태도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출석	전혀 그렇지 않다	1.9	0.3	1.2	1.0	0.3	0.7
	그렇지 않다	6.7	5.8	6.3	3.9	3.3	3.6
	보통이다	22.7	15.9	19.7	15.6	9.4	12.5
	그렇다	35.4	35.6	35.5	41.6	42.0	41.8
	매우 그렇다	33.3	42.4	37.3	37.9	45.0	4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9	486	1,115	1,313	1,318	2,631
복습	전혀 그렇지 않다	4.6	2.0	3.5	3.2	2.1	2.6
	그렇지 않다	25.1	25.3	25.2	25.9	23.7	24.8
	보통이다	49.3	49.0	49.2	44.3	46.8	45.6
	그렇다	19.6	18.4	19.0	23.8	24.7	24.3
	매우 그렇다	1.4	5.3	3.1	2.8	2.7	2.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7	486	1,113	1,313	1,319	2,631
예습	전혀 그렇지 않다	7.2	5.2	6.4	6.5	4.6	5.6
	그렇지 않다	29.6	36.1	32.4	36.3	39.6	38.0
	보통이다	47.2	44.4	45.9	42.0	37.5	39.7
	그렇다	14.9	10.6	13.0	13.6	16.1	14.8
	매우 그렇다	1.1	3.8	2.3	1.7	2.2	1.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7	486	1,113	1,313	1,319	2,631
과제	전혀 그렇지 않다	2.7	0.5	1.8	0.7	0.5	0.6
	그렇지 않다	5.0	3.4	4.3	7.2	1.6	4.3
	보통이다	29.8	20.0	25.5	20.2	14.9	17.5
	그렇다	42.2	46.6	44.1	47.8	53.6	50.7
	매우 그렇다	20.3	29.5	24.3	24.2	29.5	2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7	486	1,113	1,313	1,319	2,631
강의집중	전혀 그렇지 않다	2.0	0.3	1.3	1.6	0.5	1.0
	그렇지 않다	6.5	7.2	6.8	8.1	3.0	5.5
	보통이다	38.7	32.6	36.1	31.3	29.9	30.6
	그렇다	42.2	45.8	43.8	47.3	52.8	50.1
	매우 그렇다	10.5	14.1	12.1	11.7	13.8	12.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7	486	1,113	1,313	1,319	2,631

제4절 성적

학교성적을 보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평균 78점 내외로 나타난다.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학생비중은 2년제 대학 여학생이 22.5%, 2년제 대학 남학생이 13.8%, 4년제 대학 여학생이 20.5%, 4년제 대학 남학생이 8.2%로 여학생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70점 미만으로 성적이 저조한 학생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II-1-12〉 2008년 1학기 평점급간화

(단위: %)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50점미만	5.8	0.8	3.1	4.0	1.6	2.7
50-70미만	21.3	20.2	20.7	33.0	16.7	24.0
70-90미만	59.1	56.6	57.7	54.7	61.2	58.3
90이상	13.8	22.5	18.5	8.2	20.5	1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01	359	660	863	1,069	1,932
평균(점)	76.3	80.9	78.8	73.7	80.4	77.4

제5절 등록 및 휴학

2008년 1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을 보면 2년제 대학 남학생이 가장 높아 27.4%에 달하며, 4년제 대학 남학생 25.4%, 4년제 대학 여학생 11.1%, 2년제 대학 여학생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의 경우 대체로 부모/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고, 스스로 조달하는 액수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용자나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는 금액도 부모/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확인된다.

〈표 II-1-13〉 등록여부 및 등록금

(단위: %)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2008 1학기 등록 여부	예	72.6	95.3	82.5	74.6	88.9	81.8
	아니오	27.4	4.7	17.5	25.4	11.1	18.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9	485	1,114	1,322	1,319	2,640
등록금 (만원)	부모/가족	266.4	273.6	270.0	281.6	274.9	278.0
	스스로	15.4	17.3	16.4	14.1	8.4	11.0
	용자	43.2	52.5	47.9	42.7	31.0	36.4
	장학금	13.1	18.5	15.8	31.8	35.6	33.8
	기타	1.8	2.2	2.0	4.1	6.3	5.3
	응답자 수(명)	440	446	886	972	1,144	2,116

2007년이나 2008년에 휴학했던 비율을 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휴학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2년제 대학 남학생의 경우 40.8%에 달했으며, 4년제 대학 남학생 34.2%, 4년제 대학 여학생 18.2%, 2년제 대학 여학생 9.0% 등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가 휴학사유의 88.1%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2년제 대학 여학생의 경우 ‘편입학 및 재수준비’가 휴학사유의 32.4%로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인 이유(등록금 마련 등)’가 23.3%로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년제 대학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학연수 및 해외여행’이 2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자격증 및 고시준비’가 21.6%, ‘경제적인 이유(등록금 마련 등)’가 11.7%이었다.

〈표 II-1-14〉 휴학여부 및 이유

(단위: %)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07/08년도 휴학 여부	예	40.8	9.0	26.9	34.2	18.2	26.2
	아니오	59.2	91.0	73.1	65.8	81.8	7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27	486	1,113	1,319	1,317	2,636
휴학이유	어학연수 및 해외여행	0.7	5.4	1.3	1.8	25.6	10.1
	편입학 및 재수 준비	0.0	32.4	4.8	2.3	8.0	4.3
	자격증 및 고시 준비	1.2	3.6	1.5	1.2	21.6	8.3
	대학원 및 유학 준비	0.0	0.0	0.0	0.0	1.4	0.5
	경제적인 이유(등록금 마련 등)	3.3	23.3	6.3	1.3	11.7	4.9
	취업 및 취업 준비	1.0	8.0	2.1	0.5	10.0	3.8
	군입대	88.1	0.0	75.2	88.1	0.0	57.6
	건강상의 이유	0.3	1.6	0.5	0.2	1.8	0.7
	심리적·정신적 재충전	0.9	4.3	1.4	0.8	11.6	4.5
	학습부진	1.1	4.6	1.6	0.0	2.0	0.7
	결혼(임신·출산·육아)	0.0	3.9	0.6	0.0	0.0	0.0
	기타	3.4	12.9	4.8	3.7	6.2	4.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55	44	298	451	240	691

제6절 교내 아르바이트

2년제 대학생 및 4년제 대학생 모두에서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비율은 각각 3.3%, 5.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2배를 상회하였다. 경험횟수는 대부분이 1회에 그쳤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였으며, 2년제 대학 남학생의 경우 2회 응답비율이 36.1%로 높게 나타났다. 교내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1회나 2회 정도 참여하였으며, 3회 이상의 경우 2년제 대학 여학생, 4년제 대학 남학생에서 20% 내외에 달하였다.

〈표 II-1-15〉 교내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 및 횟수

(단위: %)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경험 여부	예	2.7	4.1	3.3	3.3	7.4	5.4
	아니오	97.3	95.9	96.7	96.7	92.6	94.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30	486	1,116	1,322	1,319	2,641
경험 횟수	1회	56.3	79.8	68.7	77.9	74.8	75.7
	2회	36.1	0.0	17.0	3.9	18.6	14.0
	3회이상	7.6	20.2	14.2	18.2	6.6	1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7	19	36	43	94	138

교내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 1개월 이상 참여자의 비율은 60%를 상회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이상 지속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응답이 90%이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생들이 교내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형태는 대부분 연간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6〉 교내 아르바이트 1개월 이상 지속 여부 및 횟수

(단위: %)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1개월 이상 지속 여부	예	59.9	66.0	63.2	61.4	72.0	68.8
	아니오	40.1	34.0	36.8	38.6	28.0	3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7	20	37	43	98	141
1개월 이상 지속 횟수	1회	100.0	97.6	98.6	90.2	92.0	91.5
	2회	0.0	2.4	1.4	0.1	4.8	3.5
	3회이상	0.0	0.0	0.0	9.8	3.2	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	13	23	26	71	97

주된 교내아르바이트는 근로장학생으로의 일이었으며 지속기간의 경우 2년제 대학 여학생(7.0개월)을 제외하고는 5개월 내외에 그쳤다. 월평균 소득은 적게는 23만원, 많게는 36만원 정도였다. 평균 근무일수는 주당 4~5일, 근무시간은 주당 14~33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0~70% 수준으로 교내아르바이트 업무를 통하여 학생들이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업무역량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7〉 가장 최근 아르바이트에서 한 일(전체)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한 일	근로장학생(학과, 행정실, 도서관 등)	34.3	70.5	54.7	49.7	78.8	70.9
	교내 프로젝트 연구 참여(자료정리 등)	9.8	0.0	4.3	4.4	12.1	10.0
	조교(TA, RA 등)	6.0	5.3	5.6	1.6	4.9	4.0
	기타	49.9	24.2	35.4	44.3	4.2	1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	13	23	26	71	97
능력개발 도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5.6	10.4	8.3	1.8	2.0	1.9
	그렇지 않다	6.9	13.5	10.7	34.0	15.6	20.7
	보통이다	59.2	27.0	41.0	23.7	40.2	35.7
	그렇다	15.7	49.1	34.5	39.4	32.5	34.4
	매우 그렇다	12.6	0.0	5.5	1.0	9.6	7.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	13	23	26	71	97
지속 기간	평균(개월)	4.6	7.0	5.9	5.2	5.1	5.1
	응답자 수(명)	7	8	15	15	52	67
월평균 소득	평균(만원)	23.5	27.4	25.6	36.1	32.6	33.6
	응답자 수(명)	10	11	21	26	66	92
주당 근무일수	평균(일)	4.9	4.3	4.6	4.5	4.1	4.2
	응답자 수(명)	10	13	23	26	71	96
주당 총 근무시간	평균(시간)	32.8	18.4	24.7	14.0	17.4	16.5
	응답자 수(명)	10	13	23	26	71	96

제2장

진학계획 및 진로계획

제1절 미래 직업

본 절에서는 미래 직업 결정 여부, 미래 직업 분류,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파악 정도 등 미래 직업 관련 문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중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53.0%, 4년제 대학생의 43.6%, 취업자의 27.9%, 미취업자의 39.4%가 ‘미래 직업을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고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46.1%, 4년제 대학생의 48.6%, 취업자의 38.9%, 미취업자의 41.1%가 ‘미래 직업을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중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이 4년제 대학생보다 미래직업을 결정한 비율이 9.4%p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고3 코호트에서는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보다 미래직업을 결정한 비율이 2.5%p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이 취업자나 미취업자보다는 미래직업을 결정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취업자의 미래직업 결정이 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II-2-1〉 미래직업 결정 여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예	53.0	43.6	27.9	39.4
	아니오	47.0	56.4	72.1	60.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809	1428	154	292
고3 코호트	예	46.1	48.6	38.9	41.1
	아니오	53.9	51.4	61.1	58.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07	1212	448	158

미래 직업을 결정한 응답자의 미래 희망 직업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에서는 ‘보건·의료 관련직’(21.3%)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13.4%),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11.6%) 등을 희망하였다. 4년제 대학생에서는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직’(21.1%)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14.1%),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3.7%) 등을 희망하였다.

한편 취업자에서는 ‘보건·의료 관련직’(24.5%)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리직’(14.7%),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10.5%) 등을 희망하였다. 미취업자에서는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17.6%)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 관련직’(13.5%),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직’(10.7%) 등을 희망하였다.

〈표 II-2-2〉 미래 직업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관리직	4.7	4.9	14.7	9.1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1.4	13.7	8.3	7.9
금융·보험 관련직	0.6	4.3	0.8	5.3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직	6.7	21.1	7.8	10.7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4.1	5.7	2.1	7.7
보건·의료 관련직	21.3	7.3	24.5	13.5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8	6.1	4.0	1.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3.4	14.1	9.6	17.6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3	0.3	0.7	0.2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0.9	1.5	0.4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0	0.2	0.3	0.0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1.6	5.0	10.5	9.3
음식 서비스 관련직	3.3	1.2	0.5	3.3
건설 관련직	1.6	3.7	0.4	2.1
기계 관련직	3.7	2.1	1.7	3.2
재료 관련직	1.7	0.6	0.1	0.4
화학 관련직	0.2	0.9	0.0	0.7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0	0.0	0.0	0.0
전기·전자 관련직	1.7	1.4	2.2	0.1
정보통신 관련직	2.8	1.9	1.7	1.8
식품가공 관련직	1.5	0.1	3.5	0.6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0.2	0.8	0.0	0.0
농림어업 관련직	0.1	0.2	0.4	0.0
군인	1.6	1.1	2.3	3.6
주부	0.0	0.0	0.0	0.0
미분류	1.7	2.3	2.5	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569	1,210	217	180

미래 희망 직업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정보 파악 정도를 살펴보면, 중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68.2%, 4년제 대학생의 54.9%, 취업자의 59.0%, 미취업자의

47.6%가 ‘잘 안다’ 또는 ‘매우 잘 안다’라고 응답하였고, 고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57.9%, 4년제 대학생의 63.6%, 취업자의 81.3%, 미취업자의 63.8%가 ‘잘 안다’ 또는 ‘매우 잘 안다’라고 응답하였다. 중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고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3 코호트의 취업자(81.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래 희망 직업의 전망 및 보수에 대한 정보 파악 정도를 살펴보면, 중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62.8%, 4년제 대학생의 46.4%, 취업자의 57.8%, 미취업자의 39.4%가 ‘잘 안다’ 또는 ‘매우 잘 안다’라고 응답하였고, 고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51.9%, 4년제 대학생의 58.4%, 취업자의 79.5%, 미취업자의 50.1%가 ‘잘 안다’ 또는 ‘매우 잘 안다’라고 응답하였다. 직업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정보 파악 정도와 마찬가지로 고3 코호트의 취업자(79.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2-3〉 미래 직업에 대한 정보 파악 정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전혀 모른다	0.2	0.2	0.0	2.4
		잘 모른다	2.6	3.7	0.7	4.6
		약간 안다	29.0	41.3	40.3	45.5
		잘 안다	51.0	44.0	38.6	40.8
		매우 잘 안다	17.2	10.9	20.4	6.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29	623	43	115
	전망 및 보수	전혀 모른다	0.0	0.2	0.0	3.9
		잘 모른다	7.0	8.8	5.2	17.0
		약간 안다	30.1	44.7	36.9	39.8
		잘 안다	49.9	36.4	42.0	34.7
		매우 잘 안다	12.9	10.0	15.8	4.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29	623	43	115

(표 계속)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고3 코호트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전혀 모른다	0.0	0.6	0.0	0.0
		잘 모른다	5.9	1.7	2.1	1.1
		약간 안다	36.3	34.0	16.7	35.0
		잘 안다	44.3	46.1	50.8	48.8
		매우 잘 안다	13.6	17.5	30.5	1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42	589	173	65
	전망 및 보수	전혀 모른다	0.0	0.4	0.0	4.4
		잘 모른다	7.6	3.4	4.9	3.0
		약간 안다	40.5	37.7	15.5	42.6
		잘 안다	38.3	46.5	54.1	40.3
		매우 잘 안다	13.6	11.9	25.4	9.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42	589	173	65

미래 직업과 현재 일 및 전공과의 일치도를 살펴보면, 중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86.4%, 4년제 대학생의 86.0%, 취업자의 45.4%, 미취업자의 64.2%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고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79.3%, 4년제 대학생의 78.2%, 취업자의 75.2%, 미취업자의 56.5%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중3 코호트에서는 취업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3 코호트에서는 미취업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2-4〉 미래직업과 현재 일 및 전공과의 일치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전혀 그렇지 않다	3.1	2.5	17.6	9.2
	그렇지 않다	6.3	5.3	25.9	12.8
	보통이다	4.2	6.2	11.0	13.8
	그렇다	32.8	32.0	22.6	42.1
	매우 그렇다	53.6	54.0	22.8	2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29	623	43	112
고3 코호트	전혀 그렇지 않다	6.5	6.0	6.4	13.2
	그렇지 않다	10.3	7.3	11.2	22.1
	보통이다	3.9	8.5	7.2	8.1
	그렇다	31.6	30.7	33.3	35.0
	매우 그렇다	47.7	47.5	41.9	21.5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42	589	174	64

미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중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47.0%, 4년제 대학생의 55.1%, 미취업자의 54.3%가 ‘학력(교육) 향상’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취업자의 41.7%가 ‘능력 개발’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에 고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44.7%, 미취업자의 44.0%가 ‘학력(교육) 향상’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4년제 대학생의 47.7%, 취업자의 41.7%가 ‘능력 개발’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학력(교육)향상’, ‘능력 개발’ 다음으로는 ‘정보 수집, 분석’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Ⅱ-2-5〉 미래직업을 가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학력(교육) 향상	47.0	55.1	35.7	54.3
	능력 개발	33.2	36.4	41.7	37.1
	인맥 형성	6.8	1.7	7.7	0.7
	정보 수집, 분석	7.6	3.1	4.2	6.1
	비용 마련	2.3	0.9	8.9	0.4
	기타	3.0	2.8	1.9	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13	483	33	86
고3 코호트	학력(교육) 향상	44.7	41.3	14.2	44.0
	능력 개발	40.7	47.7	70.0	39.5
	인맥 형성	4.4	2.4	2.4	2.0
	정보 수집, 분석	6.5	5.4	5.3	8.2
	비용 마련	2.8	1.1	4.8	4.2
	기타	1.0	2.3	3.3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2	514	134	52

미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계획에 대한 실천 여부를 질문한 결과, 중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85.9%, 4년제 대학생의 86.3%, 취업자의 79.8%, 미취업자의 90.4%가 실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고3 코호트에서는 2년제 대학생의 86.8%, 4년제 대학생의 92.1%, 취업자의 91.8%, 미취업자의 88.9%가 실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2-6〉 미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계획 실천 여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예	85.9	86.3	79.8	90.4
	아니오	14.1	13.7	20.2	9.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13	483	33	86
고3 코호트	예	86.8	92.1	91.8	88.9
	아니오	13.2	7.9	8.2	1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2	514	134	52

제2절 진학 계획

본 절에서는 대학 입시 계획 여부 및 준비 내용,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 및 공부 시간, 희망 대학 유형 및 전공 등 대학 진학 계획 관련 문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09학년도 대학 진학 계획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7.1%, 4년제 대학생의 1.9%, 취업자의 12.0%, 미취업자의 59.5%가 대학에 다시 진학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4년제 대학생의 대학 진학 계획 비율은 2년제 대학생의 대학 진학 계획 보다 2배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업자의 대학 재진학 계획 비율(59.5%)은 대학생과 취업자(7~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표 II-2-7〉 2009학년도 대학 입시 계획 여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예	7.1	14.7	12.0	59.5
아니오	92.9	85.3	88.0	4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35	315	361	368

2009학년도에 대학 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는 패널의 대학 입시 준비 내용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37.3%, 4년제 대학생의 47.1%, 취업자의 43.0%, 미취업자의 77.3%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다.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 보다 학원을 다니는 비율이 10%p정도 더 높으며, 미취업자가 취업자 보다 학원을 다니는 비율이 34%p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2년제 대학생의 5.3%, 4년제 대학생의 11.9%, 취업자의 19.0%, 미취업자의 6.8%가 ‘개인 및 그룹과외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인 및 그룹과외를 받고 있는 경우는 취업자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EBS 수능특강을 시청하는 비율은 2년제 대학생이 5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년제 대학생 49.0%, 취업자 33.1%, 미취업자 16.9%의 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과외를 받고 있는 비율은 취업자가 4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생 28.1%, 미취업자 18.6%, 4년제 대학생 14.5%의 순이다.

〈표 II-2-8〉 대학 입시 준비 내용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학원을 다니고 있다	예	37.3	47.1	43.0	77.3
	아니오	62.7	52.9	57.0	22.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	29	16	202
개인 및 그룹과외를 받고 있다	예	5.3	11.9	19.0	6.8
	아니오	94.7	88.1	81.0	93.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	29	16	202
EBS 수능특강을 시청하고 있다	예	57.4	49.0	33.1	16.9
	아니오	42.6	51.0	66.9	83.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	29	16	202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과외를 받고 있다	예	28.1	14.5	45.4	18.6
	아니오	71.9	85.5	54.6	8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	29	16	202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2년제 및 4년제 대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13.4만원, 23.6만원으로 4년제 대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용은 2년제 대학생 보다 10만원정도 더 많으며, 이는 2년제 대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1.8배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취업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2만원이고, 미취업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6.8만원으로 취업자의 월평균 사교육비 보다 약 3.7배정도 더 많이 나타났다.

각 그룹별 사교육비 분포를 비교해 보면, 2년제 대학생에서는 ‘20만원이상~30만원미만’이 46.8%로 가장 많으며, 4년제 대학생과 취업자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0원’인 경우가 각각 22.4%, 64.7%로 가장 많으며, 미취업자에서는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이 51.6%로 가장 많았다.

<표 II-2-9>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0원	36.3	22.4	64.7	11.4
0원초과 ~ 5만원미만	0.0	9.6	0.0	4.7
5만원이상 ~ 10만원미만	0.0	11.0	2.5	1.1
10만원이상 ~ 20만원미만	7.7	13.5	12.5	7.0
20만원이상 ~ 30만원미만	46.8	1.7	1.9	3.6
30만원이상 ~ 40만원미만	7.0	10.1	5.6	5.0
4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2.2	10.4	3.0	4.2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0.0	18.5	3.4	51.6
100만원이상	0.0	2.8	6.5	1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7	46	43	217
평균(만원)	13.4	23.6	15.2	56.8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학원, 과외 교습 시간 및 EBS 수능특강 시청시간을 보면, 2년제 대학생이 평일 1.1시간, 휴일 0.9시간, 4년제 대학생이 평일 2.5시간, 휴일 1.7시간, 취업자가 평일 1.3시간, 휴일 1.0시간, 미취업자가 평일 6.6시간, 휴일 4.3시간 동안 학원, 과외 교습 및 EBS 수능특강을 시청하고 있다. 또한 혼자서 공부하는 하루 평균 시간을 살

해보면, 2년제 대학생이 평일 4.7시간, 휴일 5.0시간, 4년제 대학생이 평일 5.5시간, 휴일 5.6시간, 취업자가 평일 1.8시간, 휴일 2.0시간, 미취업자가 평일 5.3시간, 휴일 6.5시간을 혼자서 공부하고 있다.

대학 입시를 위해 일주일 동안 2년제 대학생이 40.8시간, 4년제 대학생이 54.6시간, 취업자가 21.5시간, 미취업자가 81.1시간을 공부하고 있다. 미취업자가 하루 평균 11.6시간으로 가장 많으며, 취업자는 하루 평균 3.1시간으로 가장 낮다. 또한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 보다 하루 평균 2시간정도 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0〉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공부시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학원 및 과외, EBS수능특강 시청시간 (평일)	0시간	24.5	37.5	63.0	10.1
	0시간초과 ~ 1시간미만	0.0	0.0	0.0	0.0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41.2	16.4	11.1	5.0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32.5	7.3	6.2	6.7
	3시간이상 ~ 5시간미만	1.9	10.4	8.1	16.6
	5시간이상 ~ 7시간미만	0.0	17.8	3.8	12.3
	7시간이상 ~ 10시간미만	0.0	8.0	6.6	22.5
	10시간이상	0.0	2.7	1.3	2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7	46	43	218
	평균(시간)	1.1	2.5	1.3	6.6
학원 및 과외, EBS수능특강 시청시간 (휴일)	0시간	66.6	56.4	73.3	25.2
	0시간초과 ~ 1시간미만	0.0	0.0	0.0	0.0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2.2	0.0	1.1	3.5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6.9	18.1	8.9	7.3
	3시간이상 ~ 5시간미만	24.3	12.5	8.5	26.8
	5시간이상 ~ 7시간미만	0.0	8.9	3.8	19.6
	7시간이상 ~ 10시간미만	0.0	2.3	4.5	6.0
	10시간이상	0.0	1.7	0.0	11.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7	46	43	218
	평균(시간)	0.9	1.7	1.0	4.3

(표 계속)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 (평일)	0시간	18.7	7.7	43.8	6.5
	0시간초과 ~ 1시간미만	0.0	0.0	0.0	0.0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4.3	6.8	25.1	6.0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24.1	9.3	5.3	8.7
	3시간이상 ~ 5시간미만	11.4	11.7	10.8	16.3
	5시간이상 ~ 7시간미만	1.9	23.0	8.7	38.1
	7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6.5	24.8	1.3	13.9
	10시간이상	23.1	16.6	5.0	1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7	46	43	219
평균(시간)	4.7	5.5	1.8	5.3	
혼자 공부하는 시간 (휴일)	0시간	23.0	18.2	52.8	4.9
	0시간초과 ~ 1시간미만	0.0	0.0	0.0	0.0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2.2	4.7	8.4	3.0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10.3	0.0	12.6	7.9
	3시간이상 ~ 5시간미만	0.0	15.8	4.5	16.6
	5시간이상 ~ 7시간미만	27.5	25.7	12.7	25.0
	7시간이상 ~ 10시간미만	16.5	15.8	3.2	19.7
	10시간이상	20.6	19.8	5.8	22.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7	46	43	219
평균(시간)	5.0	5.6	2.0	6.5	

희망 대학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생과 미취업자는 ‘주간 4~6년제 대학’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반면, 취업자는 ‘주간 2~3년제 대학’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특히 4년제 대학생과 미취업자의 경우 ‘주간 4~6년제 대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88~90%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생과 미취업자에서는 야간 대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0~2%정도로 매우 낮으나, 2년제 대학생과 취업자에서는 야간 대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8~14%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희망 대학을 결정한 비율은 4년제 대학생이 5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업자

(57.5%), 미취업자(49.0%), 2년제 대학생(43.8%) 순이다. 4년제 대학생과 취업자는 58% 정도인 반면에, 2년제 대학생과 미취업자는 절반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표 II-2-11〉 희망 대학 유형 및 결정 여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희망 대학 유형	주간 4-6년제	51.1	88.1	26.7	90.1
	주간 2-3년제	40.9	10.5	52.1	7.7
	야간 4-6년제	0.0	0.0	4.9	1.5
	야간 2-3년제	8.1	0.0	9.0	0.8
	원격(방송)	0.0	1.4	7.4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6	46	43	218
희망 대학 결정	예	43.8	58.5	57.5	49.0
	아니오	56.2	41.5	42.5	51.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7	46	43	219

희망 전공을 결정한 비율은 4년제 대학생이 81.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미취업자 73.5%, 취업자 67.8%, 2년제 대학생 66.6%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 보다 희망 전공을 결정한 비율이 14.7%p 높으며, 미취업자가 취업자 보다 희망 전공을 결정한 비율이 5.7%p 높았다.

희망 전공 계열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은 ‘예체능계열’(47.4%)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24.7%)을 희망하였다. 4년제 대학생은 ‘자연계열’(23.0%)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계열’(19.2%)을 희망하였다. 취업자는 ‘공학계열’(26.7%)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26.1%)을 희망하였다. 미취업자는 ‘사회계열’(35.0%)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20.5%)을 희망하였다.

〈표 II-2-11〉 희망 전공 결정 여부 및 희망 전공 계열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희망 전공 결정	예	66.6	81.3	67.8	73.5
	아니오	33.4	18.7	32.2	26.5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7	46	43	219
희망 전공 계열	인문계열	6.7	19.2	0.1	6.3
	사회계열	24.7	10.6	26.1	35.0
	교육계열	0.0	16.6	10.3	7.5
	공학계열	15.4	13.6	26.7	20.5
	자연계열	5.7	23.0	7.6	7.7
	의약계열	0.0	4.1	11.8	4.1
	예체능계열	47.4	12.9	17.3	18.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	38	29	157

대학생의 편입이나 전과 계획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18.8%, 4년제 대학생의 16.1%가 편입이나 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입할 전공과 현재 전공의 일치 여부에 대해 2년제 대학생의 65.9%, 4년제 대학생의 49.7%가 현재 전공과 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2년제 대학생의 전공 일치도가 4년제 대학생 보다 약 16%p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편입을 하려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2년제 대학생에서는 ‘취업 전망’(37.6%)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력 상승(대학원 진학)’(33.3%), ‘적성 고려’(10.4%), ‘대학 평판’(10.0%) 순으로 많았다. 4년제 대학생에서는 ‘대학 평판’(39.6%)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취업 전망’(25.8%), ‘적성 고려’(15.1%), ‘학력 상승(대학원 진학)’(9.6%) 순으로 많았다.

〈표 II-2-12〉 편입(전과) 계획 및 전공일치도와 편입 이유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편입(전과) 계획	같은 대학에서 다른 학과로 전과할 것이다	2.0	4.1
	졸업 이전에 다른 학교로 편입할 것이다	8.6	10.3
	졸업 후에 학사 편입할 것이다	8.3	1.7
	전과나 편입 계획이 없다	81.2	83.9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3	2638
편입 전공과 현재 전공 일치 여부	예	65.9	49.7
	아니오	34.1	50.3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188	315
편입하려는 주된 이유	취업 전망	37.6	25.8
	대학 평판	10.0	39.6
	학력 상승(대학원 진학)	33.3	9.6
	등록금 부담	0.0	2.7
	적성 고려	10.4	15.1
	주변의 권유	4.1	0.6
	기타	4.6	6.7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188	315

대학원 진학 의사에 대해, 2년제 대학생의 5.4%, 4년제 대학생의 25.1%, 취업자의 3.9%, 미취업자의 1.8%가 대학원을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년제 대학생이 25.1%로 상대적으로 높고, 2년제 대학생과 취업자, 미취업자는 2~5%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 유형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77.0%, 4년제 대학생의 69.9%, 취업자의 73.6%, 미취업자의 100.0%가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3〉 대학원 진학 의사 및 유형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대학원 진학 의사	예	5.4	25.1	3.9	1.8
	아니오	94.6	74.9	96.1	98.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880	2320	227	61
대학원 유형	일반대학원	77.0	69.9	73.6	100.0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16.0	7.5	0.0	0.0
	특수대학원(교육, 행정 등)	5.0	11.9	26.4	0.0
	원격(사이버)대학원	0.0	0.0	0.0	0.0
	대학원 유학	2.0	10.7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6	581	9	1

대학원 진학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에서는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23.2%), ‘학력 상승을 위해’(14.7%), ‘관심분야를 공부하기 위해’(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에서는 ‘관심분야를 공부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29.4%), ‘학력 상승을 위해’(18.7%),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에서는 ‘관심분야를 공부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벌 상승을 위해’(22.1%), ‘승진에 도움이 되므로’(20.7%), ‘학력 상승을 위해’(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에서는 ‘관심분야를 공부하기 위해’가 가장 많았다.

대학원 진학 준비와 관련하여 하고 있는 것을 질문한 결과, 2년제 대학생의 45.8%, 4년제 대학생의 47.5%, 미취업자의 100.0%가 ‘하는 것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취업자의 53.8%는 ‘혼자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2-15〉 대학원 진학 이유 및 진학 준비 내용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대학원 진학 이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23.2	11.4	0.0	0.0
	승진에 도움이 되므로	5.8	2.4	20.7	0.0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40.9	29.4	0.0	0.0
	학벌 상승을 위해	0.7	5.6	22.1	0.0
	학력 상승을 위해	14.7	18.7	15.4	0.0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13.3	30.9	41.8	100.0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0.0	0.3	0.0	0.0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0.0	0.2	0.0	0.0
	특별한 이유 없음	1.4	0.4	0.0	0.0
	기타	0.0	0.6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7	582	9	1	
대학원 진학 준비 내용	대학원 정보 수집	20.1	21.7	23.1	0.0
	학원 수강	3.2	2.9	0.0	0.0
	스터디그룹	0.8	5.0	0.0	0.0
	혼자 공부	30.1	22.9	53.8	0.0
	하는 것 없음	45.8	47.5	23.1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7	582	9	1

해외 유학 계획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12.2%, 4년제 대학생의 23.7%, 취업자의 6.6%, 미취업자의 17.4%가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 보다 1.9배정도 높게 나타나며, 미취업자가 취업자 보다 2.6배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해외 유학 시기를 질문한 결과, 2년제 대학생의 87.8%, 4년제 대학생의 76.6%, 취업자의 75.9%, 미취업자의 77.0%가 2010년 이후에 유학을 갈 계획이며, 4년제 대학생의 3.9%, 미취업자의 4.4%가 2008년 안에 해외 유학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II-2-16〉 해외 유학 계획 여부 및 시기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해외 유학 계획 여부	예	12.2	23.7	6.6	17.4
	아니오	87.8	76.3	93.4	8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3	2638	603	451
해외 유학 계획 시기	2008년 안에	0.9	3.9	0.0	4.4
	2009년	11.4	19.5	24.1	18.6
	2010년 이후	87.8	76.6	75.9	77.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5	626	40	78

해외 유학을 가고자 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에서는 ‘일본’(27.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북미주(미국, 캐나다)’(25.4%)가 많았다. 4년제 대학생에서는 ‘북미주(미국, 캐나다)’(40.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럽’(21.4%)이 많았다. 한편 취업자에서는 ‘호주, 뉴질랜드’(3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북미주(미국, 캐나다)’(29.9%)가 많았다. 미취업자에서는 ‘북미주(미국, 캐나다)’(53.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럽’(16.4%)가 많았다.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위 수준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29.7%), 4년제 대학생(39.7%), 취업자(46.0%), 미취업자(32.8%) 모두 ‘4년제 과정’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생(25.2%), 취업자(20.8%), 미취업자(22.3%)에서는 ‘2년제 과정’이 많았고, 4년제 대학생에서는 ‘대학원 석사’(17.6%)가 많았다.

〈표 II-2-17〉 해외 유학 지역 및 학위 수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해외 유학 계획 지역	북미주(미국, 캐나다)	25.4	40.1	29.9	53.9
	유럽	17.8	21.4	20.1	16.4
	일본	27.1	11.0	11.5	14.9
	중국	4.1	3.5	0.3	1.2
	동남아	4.5	1.6	0.0	1.5
	호주, 뉴질랜드	18.8	18.2	32.2	9.8
	기타	2.3	4.2	6.0	2.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4	618	40	76
학위 수준	2년제 과정	25.2	13.0	20.8	22.3
	4년제 과정	29.7	39.7	46.0	32.8
	대학원 석사	8.3	17.6	6.6	12.7
	대학원 박사	0.9	10.5	0.2	14.5
	박사 후 과정	0.0	0.7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3	615	38	75

제3절 졸업 후 진로계획

본 절에서는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취업 계획, 희망 직장 선택 기준, 취업 시 중요한 요소 등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관련 문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2년제 대학생의 89.2%, 4년제 대학생의 74.2%가 ‘취업’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생에서는 ‘편입’(7.0%)이 많았고, 4년제 대학생에서는 ‘대학원 진학’(11.0%)이 많았다. 2년제 대학생이 4년제 대학생 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15%p 더 높게 나타나고, 2년제 대학생에서는 ‘편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4년제 대학생에서는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2-18〉 대학졸업 후 진로계획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취업	89.2	74.2
창업	0.0	0.7
가업계승	0.4	0.3
편입	7.0	0.0
대학원 진학	1.0	11.0
외국 유학	2.0	2.7
가사	0.0	0.0
군입대	0.0	5.5
기타	0.5	5.7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77	328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취업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2년제 대학생에서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5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디든 상관없다’(23.5%), ‘공무원(경찰, 직업군인 포함)’(7.0%), ‘법인단체(사단, 재단법인)’(5.9%) 순으로 많았다. 4년제 대학생에서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37.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경찰, 직업군인 포함)’(20.9%), ‘어디든 상관없다’(20.5%),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11.1%) 순으로 많았다. 대학생 모두에서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어디든 상관없다’란 응답도 2~3번째로 많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2-19〉 취업 계획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58.8	37.6
공무원(경찰, 직업군인 포함)	7.0	20.9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	3.9	11.1
외국기업	1.0	0.3
법인단체(사단, 재단법인)	5.9	8.9
해외취업	0.0	0.7
어디든 상관없다	23.5	20.5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68	243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2년제 대학생의 54.1%, 4년제 대학생의 56.4%가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의 취업 직장 결정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직장을 선택한 주된 이유에 대해 2년제 대학생에서는 ‘장래성’이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안정성’(21.6%)이 많았다. 4년제 대학생에서도 ‘장래성’이 3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안정성’(23.0%)이 많았다. 취업 직장 결정 비율과 마찬가지로 직장 선택의 주된 이유도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이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표 II-2-20〉 취업 희망 직장 결정 여부 및 선택한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취업 직장 선택	예	54.1	56.4
	아니오	45.9	43.6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52	193
그 직장 선택 이유	인지도	2.5	8.5
	이미지	6.9	1.1
	장래성	42.7	35.5
	급여 수준	1.9	4.3
	안정성	21.6	23.0
	근무환경(근로시간, 복지후생)	11.1	11.6
	기타	13.2	16.0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28	109

직장에 취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첫 번째 이유로 대학생의 42%정도가 ‘전공과 자격증’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생에서는 ‘자기소개(면접)’(18.4%)가 많았고, 4년제 대학생에서는 ‘경험(실무 및 동아리, 해외연수 등)’(17.1%)이 많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2년제 대학생에서는 ‘학업 성적’(46.4%)이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생에서는 ‘전공과 자격증’(24.7%)이 가장 많았다.

〈표 II-2-21〉 취업시 가장 중요한 요소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1순위	학업성적	12.7	13.5
	전공과 자격증	41.9	41.8
	경험(실무 및 동아리, 해외연수 등)	13.3	17.1
	외국어	3.0	5.2
	인맥	3.8	8.0
	출신대학	0.0	1.6
	자기소개(면접)	18.4	2.4
	신체조건 및 외모	4.6	0.4
	입사시험	2.2	9.9
	기타	0.0	0.0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27	109
2순위	학업성적	46.4	19.4
	전공과 자격증	23.8	24.7
	경험(실무 및 동아리, 해외연수 등)	12.5	13.2
	외국어	1.6	9.0
	인맥	4.2	2.4
	출신대학	1.3	2.4
	자기소개(면접)	5.5	7.6
	신체조건 및 외모	1.7	9.0
	입사시험	3.0	8.0
	기타	0.0	4.3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27	109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2년제 대학생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43.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아실현을 위하여’(31.0%)가 많았다. 한편 4년제 대학생에서는 ‘자아실현을 위하여’(42.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41.4%)가 많았다. ‘자아실현을 위하여’란 응답은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대학생 보다 12%p정도 더 높은 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와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하기 위하여’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2년제 대학생이 4년제 대학생 보다 5%p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2-22〉 직업을 갖는 이유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43.5	41.4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8.1	3.2
자아실현을 위하여	31.0	42.8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17.5	12.6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77	328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질문한 결과,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모두 첫 번째 이유로 각각 60.4%, 70.2%로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이유로는 2년제 대학생에서는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29.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27.8%)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4년제 대학생에서는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27.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26.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2-23〉 직업 선택 중요 요소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1순위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	60.4	70.2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	14.7	8.6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	10.0	6.8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	9.5	8.4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	0.0	1.6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	3.2	1.6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	2.2	2.1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0.0	0.6
	사회적 평판이 좋은 것	0.0	0.0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76	328
2순위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	14.0	10.6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	29.9	26.3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	7.9	16.6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	27.8	27.2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	1.6	2.3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	4.6	6.6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	7.9	4.7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4.4	4.7
	사회적 평판이 좋은 것	1.9	1.1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76	326

직업 생활을 성공하기 위한 중요 요인에 대해, 2년제 대학생(43.7%), 4년제 대학생(46.0%) 모두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생에서는 ‘대인관계’(24.1%), ‘본인의 능력’(15.4%) 순으로 나타났고, 4년제 대학생에서는 ‘본인의 능력’(27.3%), ‘대인관계’(17.8%)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생활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43~46%정도가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2년제 대학생에서는 4년제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인관계’를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생에서는 2년제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4〉 직업 생활을 성공하기 위한 중요 요인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돈(자본)	8.2	3.1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	43.7	46.0
대인관계	24.1	17.8
본인의 능력	15.4	27.3
좋은 성품	2.1	2.9
운이나 요행	3.7	0.0
가정 배경 및 인맥	2.8	2.1
학벌	0.0	0.8
전체	100.0	100.0
응답자 수(명)	77	328

제3장

직업경험과 직업생활

제1절 구직활동

KEEP 5차(2008)년도 조사에서는 중3 및 고3 코호트를 포괄한 전체 패널(학생)들에게 지난 1년(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간의 구직활동(아르바이트를 제외)에 대해 공통적으로 물었다.

구직활동 관련 문항은 구직활동 경험여부와 미경험의 이유, 구직활동 기간, 구직활동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과 실패 회수, 구직 실패의 주된 이유, 다양한 취업준비 방법들의 경험과 도움정도, 취업정보를 얻는 경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Work-Net 운영) 검색 및 상담 경험과 도움 정도, 사설취업사이트의 검색과 도움 정도, 사설취업알선기관 상담 경험과 도움 정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구직활동 경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3-1>과 같다. 대학생들은 20% 가량(2년제 21.9%, 4년제 19.0%)이 구직활동을 경험하였고, 조사 당시 미취업자는 25.4%, 취업자의 경우에는 56.8%가 구직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3 코호트와 고3 코호트를 나누어 살펴보는 경우, 4년제 대학 재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연령대가 높은 고3 코호트의 구직활동 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3-1〉 구직활동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예	21.9	19.0	56.8	25.4
아니오	78.1	81.0	43.2	74.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41	605	451

구직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는 대학생의 경우는 ‘재학 중이어서’가 70% 내외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군입대 예정이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경우 ‘취업 중이어서’가 63.4%로 대다수인 가운데 ‘재학 중이어서’, ‘군 입대 예정이어서’, ‘취업확정·발령대기 중이어서’ 순으로 차지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가 52.7%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군입대 예정이어서’(6.9%)와 ‘재학 중이어서’(6.2%)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3-2〉 구직활동 미경험 이유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재학 중이어서	69.2	72.6	6.5	6.2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5.0	3.5	3.1	52.7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0.4	1.4	0.6	2.9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1.6	2.1	1.8	5.9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어서	0.0	0.1	0.2	0.7
취업 중이어서	1.6	0.9	63.4	5.2
취업이 확정되어 발령 대기 상태여서	0.0	0.0	5.1	0.0
군입대 예정이어서	5.0	2.9	6.1	6.9
결혼·육아나 가사로 인하여	0.2	0.0	0.4	1.2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0.4	0.6	0.3	2.6
취업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0.2	0.5	0.0	0.8
건강상의 이유로	0.2	0.2	0.0	1.8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2.8	3.3	2.2	5.0
기타	13.4	11.7	10.1	8.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869	2,132	261	336

구직활동 경험자들의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동안의 구직활동 평균 기간은 대학생은 11.0주와 13.2주, 취업자는 18.9주, 미취업자는 12.1주로 조사되었다. 이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대학생과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2주 이하', '3~7주', '8~12주'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8주 이상'도 13~17주, 18~22주, 23~27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경우는 12주 이하의 비중이 54% 수준으로 낮은 가운데 28주 이상이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3-3〉 지난 1년간 실제 구직활동 기간(주)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2주 이하	17.8	20.6	17.8	13.4
3주 ~ 7주	24.9	24.4	21.6	31.1
8주 ~ 12주	28.4	25.3	14.8	30.7
13주 ~ 17주	7.9	2.2	5.1	3.0
18주 ~ 22주	8.1	6.7	4.1	5.9
23주 ~ 27주	2.7	5.8	5.9	4.3
28주 이상	10.2	15.1	30.8	11.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40	495	342	113
평균(주)	11.0	13.2	18.9	12.1

구직 실패 경험은 구직활동 경험자 대비 대학생은 5%대 이하인 반면 취업자가 18.0%, 미취업자가 18.4%로 비교적 적은 수가 구직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직 실패 경험자의 구직 실패 횟수는 대학생들도 취업자, 미취업자 못지않게 많은 구직 실패 횟수를 보인 가운데 취업자는 1회, 2회, 3회 순으로 나타난 반면 미취업자는 2회가 가장 많은 가운데 3회, 1회, 5회 이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 II-3-4〉 지난 1년간 구직 실패 경험 여부와 횟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구직 실패 경험 여부	예	4.8	5.1	18.0	18.4
	아니오	95.2	94.9	82.0	81.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43	502	344	115
구직 실패 횟수	0회	0.0	0.0	0.0	0.0
	1회	26.9	11.4	30.6	13.3
	2회	14.5	43.5	25.8	47.8
	3회	29.9	29.1	21.7	22.8
	4회	6.1	10.7	3.0	4.8
	5회 이상	22.6	5.3	18.9	1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2	25	62	21
	평균(회)	2.9	2.5	2.8	2.8

구직과정 실패에 대한 이유로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경력이 부족해서’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가운데 2년제는 ‘외모 때문에’(13.1%), ‘면접을 잘 못봐서’(11.8%), ‘학력이 낮아서’(7.6%) 순으로 응답했고, 4년제는 ‘일자리와 전공이 맞지 않아서’(16.1%), ‘면접을 잘 못봐서’(11.3%), ‘인맥 및 배경이 없어서’(8.1%)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취업자의 경우는 ‘면접을 잘 못봐서’(27.1%), ‘경력이 부족해서’(26.0%), ‘일자리와 전공이 맞지 않아서’(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서’(17.2%), ‘일자리와 전공이 맞지 않아서’(9.9%), ‘면접을 잘 못봐서’(9.7%), ‘경력이 부족해서’(9.5%) 등의 이유로 조사되었다.

〈표 II-3-5〉 구직과정 실패 이유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학력이 낮아서	7.6	0.0	12.2	0.9
학력이 높아서	0.0	0.0	0.0	0.0
학교 성적이 나빠서	0.0	0.0	0.2	4.4
면접을 잘 못봐서	11.8	11.3	27.1	9.7
자격증이 없어서	0.0	0.2	3.1	17.2
일자리와 전공이 맞지 않아서	7.4	16.1	14.3	9.9
경력이 부족해서	27.1	25.1	26.0	9.5
성차별 때문에	0.0	0.0	0.0	0.0
외모 때문에	13.1	0.4	0.0	4.7
인맥 및 배경이 없어서	0.0	8.1	0.8	7.0
학벌 때문에	5.6	3.4	1.7	0.0
기타	27.4	35.5	14.6	36.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2	26	62	21

취업을 위한 준비 경험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취업자, 미취업자가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취업정보 검색’(대학생 30~37%, 취업자 65.5%, 미취업자 50.5%)이었다. 그 다음으로 2년제 대학생은 ‘일하고 싶은 곳에 방문하여 취업 부탁’(25.5%), ‘아는 사람에게 취업 부탁’(21.9%), ‘자격증 취득’(20.7%) 순이었고, 4년제 대학생은 ‘취업 부탁’(22.7%), ‘자격증 취득’(20.8%) 순이었다. 한편 취업자와 미취업자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취업정보 검색’인 가운데 ‘아는 사람에게 취업 부탁’(취업자 33.9%, 미취업자 28.4%), ‘자격증 취득’(취업자 30.0%, 미취업자 22.9%)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6〉 취업 준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직업훈련 경험	4.4	3.5	7.8	8.1
자격증 취득 경험	20.7	20.8	30.0	22.9
취업정보검색 경험	29.9	37.5	65.5	50.5
취업부탁 경험	21.9	22.7	33.9	28.4
학교지원서비스이용 경험	6.0	5.9	23.0	9.7
방문부탁 경험	25.5	15.2	22.1	23.0
면접훈련 경험	7.0	6.4	14.5	7.5
적성흥미검사 경험	15.7	20.5	19.2	13.4
취업박람회 경험	3.7	3.9	7.1	3.5
구직정보 인터넷에 올린 경험	11.8	11.0	22.6	17.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44	502	344	115

각 항목에 따른 취업 준비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취업 준비 항목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큰 특징을 살펴보면 ‘교수에게 부탁하거나 학교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에 대해서 2년제 대학생 가운데 긍정적 평가를 한 비율이 19.6%에 불과하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참여’, ‘직업적성, 흥미검사’의 긍정적 평가가 2년제 대학생은 30% 수준 이하, 미취업자는 35~42% 수준으로 크게 낮았으며 취업자들의 경우에만 50% 대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3-7〉 취업 준비 경험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수 (명)	비율(%)			수 (명)	비율(%)			수 (명)	비율(%)			수 (명)	비율(%)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1) 직업훈련(사설학원 포함) 참여	11	0.0	70.6	29.4	18	5.7	54.4	39.9	27	14.7	37.6	47.8	9	4.4	24.0	71.6
2) 자격증 취득	50	28.0	24.8	47.3	104	13.9	38.1	48.1	103	12.8	27.1	60.0	26	15.9	13.6	70.4
3) 취업 정보 검색	73	7.4	34.8	57.8	188	4.4	54.2	41.4	225	6.2	49.5	44.3	58	4.9	46.8	48.3
4) 아는 사람(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 부탁	54	7.1	31.9	61.0	114	6.5	24.1	69.4	117	6.9	43.0	50.1	33	8.0	41.3	50.7
5) 교수(교사)에게 부탁하거나 학교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	15	9.3	71.1	19.6	30	11.3	43.7	45.0	79	15.1	19.0	65.9	11	9.0	64.6	26.4
6) 일하고 싶은 곳에 방문하여 방문 취업 부탁	62	10.4	35.3	54.4	76	10.6	41.2	48.2	74	8.7	29.4	61.9	26	7.1	45.0	47.9
7) 면접훈련	17	6.4	49.2	44.4	32	6.1	39.0	54.9	50	7.1	24.8	68.1	9	0.0	27.9	72.1
8) 직업적성, 흥미검사	38	7.8	60.1	32.1	103	7.7	40.2	52.1	66	18.9	53.4	27.7	15	12.2	45.3	42.5
9) 취업박람회 참여	9	25.8	44.5	29.7	20	7.3	42.1	50.7	24	29.6	40.4	30.0	4	14.6	50.4	35.0
10)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봄	29	13.7	59.6	26.6	55	15.4	46.5	38.2	76	12.7	41.4	45.9	20	18.3	36.1	45.7

주: 부정-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긍정-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취업정보 취득 경로 1순위에서는 모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것은 대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는 ‘친구 또는 선후배’이었으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신문, TV 등 언론매체’(7.6%)에서 취업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었다. 반면 공공취업알선기관, 사설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기관, 취업 박람회 등의 응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순위에서도 1순위와 마찬가지로 항목들이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8〉 취업 정보 취득 경로 1, 2 순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취업정보 경로 1순위	학교(교수, 교사, 계시관 등)	17.0	12.2	14.9	6.8
	신문, TV 등 언론매체	1.7	7.9	2.2	7.6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54.1	49.3	54.4	65.2
	부모 또는 친척	2.0	8.6	5.8	2.9
	친구 또는 선후배	19.3	18.2	15.4	7.1
	생활정보지	3.6	1.3	4.4	0.9
	공공취업알선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	0.0	0.1	0.0	1.2
	사설취업알선기관	0.0	0.0	0.0	1.4
	학원(교사, 계시관 등)	0.1	0.6	1.0	5.7
	직업훈련기관(직업학교 등)	0.0	0.0	0.3	1.0
	취업 박람회(설명회)	0.0	0.4	0.4	0.0
	기타	2.2	1.4	1.0	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43	486	340	113
취업정보 경로 2순위	학교(교수, 교사, 계시관 등)	9.2	15.7	10.0	4.2
	신문, TV 등 언론매체	20.5	12.6	15.3	15.1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9.4	15.1	16.2	12.7
	부모 또는 친척	8.5	12.1	9.3	13.1
	친구 또는 선후배	32.2	24.5	27.5	30.6
	생활정보지	6.9	5.9	9.2	15.1
	공공취업알선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	1.3	1.5	1.4	1.1
	사설취업알선기관	0.2	1.5	1.2	1.1
	학원(교사, 계시관 등)	1.0	1.2	0.8	2.8
	직업훈련기관(직업학교 등)	0.0	0.3	0.4	1.5
	취업 박람회(설명회)	0.4	1.0	0.0	0.0
	기타	10.5	8.5	8.5	2.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37	477	328	109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동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²⁾ 취업 정보를 검색 해 본 경험과 도움 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5~8%, 취업자 및 미취업자의 13%가 검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년제 대학생과 취업자, 미취업자는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보다 높은 반면 2년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3-9〉 워크넷 취업정보 검색 여부와 도움정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워크넷 검색 경험 여부	예	5.0	8.4	12.9	13.0
	아니오	95.0	91.6	87.1	87.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43	502	344	115
워크넷 검색 도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3.0	16.5	4.3	0.0
	그렇지 않다	38.7	8.3	21.0	20.7
	보통이다	32.9	35.3	37.4	56.4
	그렇다	24.8	36.0	31.0	15.9
	매우 그렇다	0.6	3.9	6.3	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2	42	44	15

고용안정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직접 상담한 경험과 도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1~3%, 취업자의 2.0%, 미취업자의 2.9%로 상담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정보부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취업관련정보와 직업적성 흥미검사, 사이버 직업상담, 사이버 채용박람회, 집단 상담프로그램 신청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표 II-3-10>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활용과 도움정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고용안정센터 상담 경험 여부	예	1.0	2.9	2.0	2.9
	아니오	99.0	97.1	98.0	97.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43	502	344	115
고용안정센터 상담 도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0.0	0.0	0.0	8.2
	그렇지 않다	30.7	9.3	8.1	38.6
	보통이다	14.9	58.4	22.5	53.2
	그렇다	43.9	10.0	50.4	0.0
	매우 그렇다	10.5	22.3	19.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	14	7	3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 동안 사설 취업사이트에서의 취업정보 검색 경험과 도움 정도, 사설 취업알선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상담 받은 경험과 도움 정도에 대한 결과는 <표 III-3-11>, <표 III-3-12>와 같다. 먼저 사설취업사이트에서 취업정보를 검색한 경험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30~35%, 취업자의 44.9%, 미취업자의 46.9%가 검색 경험이 있으며,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비중이 부정적 평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설취업알선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으로 상담 받은 경험에 대한 결과는 공통적으로 4%대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생’을 제외하고 긍정적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3-11〉 사설 취업 사이트 및 취업정보 검색 여부와 도움정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사설취업사이트 정보 검색 경험 여부	예	35.5	29.4	44.9	46.9
	아니오	64.5	70.6	55.1	53.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44	502	344	115
사설취업사이트 정보 검색 도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0.0	1.4	0.3	0.0
	그렇지 않다	3.3	8.8	9.7	8.2
	보통이다	47.0	43.9	41.7	37.2
	그렇다	35.1	39.0	38.8	50.1
	매우 그렇다	14.6	6.8	9.5	4.5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87	148	154	54

주: 사설 취업알선기관: 헤드헌팅업체, 취업사이트, 직업소개소 등

〈표 II-3-12〉 사설 취업 사이트 및 취업알선 기관의 활용과 도움정도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사설취업알선기관 상담 경험 여부	예	2.8	3.2	3.9	4.7
	아니오	97.2	96.8	96.1	95.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44	502	344	115
사설취업알선기관 상담 도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20.4	0.0	0.0	0.0
	그렇지 않다	13.3	38.9	9.1	18.5
	보통이다	24.7	55.9	58.3	2.2
	그렇다	41.5	5.3	30.0	79.4
	매우 그렇다	0.0	0.0	2.6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7	16	13	5

구직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층들에게 있어서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년제 대학생 38.5%, 4년제 대학생 39.7%, 취업자 46.6%, 미취업자 35.9%),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도 많이 확충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3-13〉 구직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적성검사 및 상담 지원	16.9	12.0	6.6	11.1
다양하고 많은 구인 정보	23.0	19.8	28.4	22.9
자세하고 정확한 구인 정보	38.5	39.7	46.6	35.9
교육·훈련 정보와 기회 제공	7.3	12.7	11.5	18.3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	9.4	10.4	5.4	5.7
기타	4.8	5.4	1.6	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41	497	343	115

제2절 직업경험

직업경험 관련 문항은 지난 1년간의 일자리 경험 여부, 경험한 일자리의 해당 산업 및 직업 종류, 종사상 지위, 일자리 형태, 근무형태, 근로시간 형태, 소득,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난 1년('07.7월~'08.6월) 동안의 일자리 경험(현 일자리 제외) 여부를 보면 대학생들의 경우 2년제는 24.3%, 4년제는 19.2%가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들의 경우 16.8%, 미취업자의 경우 30.1%가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과 취업자의 경우에는 중3 코호트의 일자리 경험 비중이 고3 코호트보다 높

은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는 고3 코호트의 일자리 경험 비중이 중3 코호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14〉 '07.7~'08.6월 일자리 경험(현 일자리 제외) 여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예	25.5	21.4	20.6	26.2
	아니오	74.5	78.6	79.4	7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809	1428	155	292
고3 코호트	예	21.3	16.6	15.6	37.3
	아니오	78.7	83.4	84.4	62.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07	1212	450	158
전체	예	24.3	19.2	16.8	30.1
	아니오	75.7	80.8	83.2	69.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41	605	451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해당 산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한편 4년제 대학생의 경우 과외를 중심으로 한 '교육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3-15> 첫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산업: 중분류별 빈도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농업 및 임업	0.2	0.0	0.5	0.2
어업	0.3	0.0	0.0	0.0
제조업	5.8	5.3	14.7	9.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0	0.5	0.0
건설업	1.5	0.1	0.7	1.0
도매 및 소매업	25.1	19.6	23.5	19.8
숙박 및 음식점업	44.6	40.6	23.2	34.9
운수업	0.7	0.6	1.3	3.3
통신업	0.8	1.2	0.4	0.3
금융 및 보험업	0.3	1.0	0.0	0.3
부동산 및 임대업	1.4	0.3	1.8	0.0
사업서비스업	2.6	2.6	9.3	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	1.8	0.0	0.4
교육 서비스업	1.0	15.2	0.0	2.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	1.3	5.0	6.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7.7	6.2	8.0	8.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5.2	3.5	6.3	1.6
미분류	3.1	0.7	4.8	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12	361	83	116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일자리의 해당 직업을 보면 대학생, 미취업자는 ‘음식 서비스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순으로 크게 높은 반면 취업자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4년제 대학생은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2년제 대학생에 비해 매우 많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취업자와 미취업자간 산업이나 직업의 차이점은 크게 없는 한편 두 집단 모두 전문 직업 보다는 단순 업무나 판매직, 서비스업으로 일자리 경험을 쌓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코호트별 특징으로써 중3 코호트는 ‘음식 서비스 관련직’이 대학생 45~51%, 취업자 22%, 미취업자 40% 수준으로 고3 코호트가 각각 19% 내외, 16%, 20%를 보인 것과 비교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II-3-16〉 첫 번째 일자리 - 일 해당 직업: 중분류별 빈도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관리직	1.1	1.1	0.9	0.5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9	12.1	14.7	11.8
금융·보험 관련직	0.0	0.0	0.0	0.2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0	14.2	0.0	2.2
보건·의료 관련직	0.0	0.0	1.8	2.1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0	0.0	2.5	1.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0.5	0.8	1.6	3.1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7	0.1	1.9	0.9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3.0	22.3	27.6	26.3
경비 및 청소 관련직	5.2	6.5	7.3	5.3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6.7	2.4	9.1	2.8
음식 서비스 관련직	38.0	36.5	18.0	30.9
건설 관련직	1.5	0.2	0.7	1.0
기계 관련직	1.4	0.3	4.3	0.8
재료 관련직	0.2	0.4	0.0	0.3
화학 관련직	0.6	0.2	0.0	0.0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	0.0	0.7	0.0
전기·전자 관련직	2.5	0.4	7.0	5.4
정보통신 관련직	0.2	0.5	0.0	0.3
식품가공 관련직	0.7	1.2	0.6	0.0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0.9	0.7	0.2	1.0
농림어업 관련직	0.0	0.0	0.0	0.2
미분류	1.8	0.0	1.3	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12	362	85	118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취업자, 미취업자는 모두 ‘임금근로자(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함, 아르바이트 포함)’ 였으며, 대학생도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였다. 다만 4년제 대학생 중 ‘자영자(유급종업원 없이 사업을 함)’ 비중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표 II-3-17〉 첫 번째 일자리 -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임금근로자(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함, 아르바이트 포함)	98.7	95.3	100.0	100.0
자영자(유급종업원 없이 사업을 함)	0.8	3.8	0.0	0.0
고용주(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함)	0.0	0.5	0.0	0.0
무급가족종사자(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움)	0.5	0.3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14	360	88	118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형태를 보면 대학생의 경우는 73% 내외가 임시직이었으며 취업자, 미취업자도 임시직이 각각 47.6%, 58.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상용직이 대학생은 10% 수준 이하인 반면 취업자와 미취업자는 각각 44.4%, 35.5%의 비율로 높았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일용직이었던 비율도 17% 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호트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경우 고3 코호트가 중3 코호트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3-18〉 첫 번째 일자리 - 일자리 형태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상용직	6.9	7.9	35.3	22.8
	임시직	74.0	70.8	56.6	67.4
	일용직	19.1	21.3	8.1	9.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52	186	29	66
고3 코호트	상용직	15.5	14.3	48.9	51.3
	임시직	73.3	73.3	43.1	47.7
	일용직	11.2	12.4	8.0	1.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58	156	59	52
전체	상용직	9.3	10.8	44.4	35.5
	임시직	73.8	71.9	47.6	58.6
	일용직	16.9	17.2	8.0	5.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10	341	88	118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 형태가 상용직이었던 패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정규직이었던 비중이 취업자,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각각 87.0%, 82.8%로 나타난 반면 2년제 대학생은 47.9%, 4년제 대학생은 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9〉 첫 번째 일자리 - 근무 형태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정규직	59.0	22.2	85.7	75.9
	비정규직	41.0	77.8	14.3	24.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	15	10	15
고3 코호트	정규직	34.9	20.4	87.4	86.7
	비정규직	65.1	79.6	12.6	1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9	22	29	27
전체	정규직	47.9	21.2	87.0	82.8
	비정규직	52.1	78.8	13.0	17.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0	37	39	42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대학생의 경우에 전일제가 24.7%, 21.9%에 불과하고 미취업자도 전일제가 45.7%로 시간제 비중이 높은 반면 취업자는 전일제가 67.9%에 달하고 시간제는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3 코호트의 경우가 고3 코호트의 경우보다 시간제 비중이 전체적으로 크게 높음을 보인다.

〈표 II-3-20〉 첫 번째 일자리 - 근로시간 형태(시간제/전일제)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시간제	78.1	86.6	48.1	74.0
	전일제	21.9	13.4	51.9	2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53	195	29	66
고3 코호트	시간제	67.8	67.9	24.1	29.7
	전일제	32.2	32.1	75.9	7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58	162	58	52
전체	시간제	75.3	78.1	32.1	54.3
	전일제	24.7	21.9	67.9	45.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11	357	86	118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월 평균 소득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가운데 취업자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의 경우 '50만원 미만'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의 첫 번째 일자리 소득 평균은 2년제 67.8만원, 4년제 63.6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취업자 집단도 94.7만원, 미취업자 집단도 78.8만원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3 코호트의 경우만으로 보면 '50만원 미만' 비중이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II-3-21〉 첫 번째 일자리 - 월평균 소득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0 ~ 50만원미만	30.3	35.5	12.9	20.6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51.5	44.4	36.8	45.4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15.2	17.5	42.2	27.3
15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1.1	1.8	5.7	6.7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1.9	0.6	2.4	0.0
300만원이상	0.0	0.2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09	355	85	118
평균(만원)	67.8	63.6	94.7	78.8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의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의 경우, 6일이 4년제 대학생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일로 나타났다. 한편 7일이라는 응답이 2년제 대학생은 22.8% 수준, 4년제 대학생은 14.3%로 높게 나타나 청년층 근로자들이 주5일제 근무나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22〉 첫 번째 일자리 -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1일	0.6	1.6	0.5	0.0
2일	12.8	18.9	3.1	3.3
3일	3.4	8.2	1.3	5.3
4일	3.1	5.8	4.9	0.6
5일	21.7	31.1	30.4	39.4
6일	35.6	20.0	52.3	40.4
7일	22.8	14.3	7.4	11.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17	362	87	118
평균(일)	5.3	4.6	5.5	5.4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번째 일자리에서의 일주일 총 근로시간의 경우, 대학생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시간대가 골고루 응답된 반면, 취업자는 ‘60시간 이상’이 가장 높은 가운데 ‘40시간이상~50시간미만’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자의 경우 ‘40시간이상~50시간미만’, ‘30시간이상~40시간미만’, ‘60시간 이상’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시간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은 주 33~40시간 수준, 미취업자는 43시간, 취업자는 48시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23〉 첫 번째 일자리 - 일주일 총 근로시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0 ~ 10시간미만	3.3	11.1	1.2	0.9
10시간이상 ~ 20시간미만	11.1	14.4	5.0	2.0
20시간이상 ~ 30시간미만	20.7	20.2	6.7	13.0
30시간이상 ~ 40시간미만	14.7	13.3	10.1	20.7
40시간이상 ~ 50시간미만	16.7	23.0	27.4	29.3
50시간이상 ~ 60시간미만	12.8	6.6	18.6	17.0
60시간 이상	20.7	11.4	31.1	17.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17	361	87	118
평균(시간)	39.9	33.1	48.3	43.3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했던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로는 대학생의 경우는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가 과반수 가량, 미취업자는 30.1% 비율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였다. 한편 취업자와 미취업자들의 경우 ‘근무조건, 환경이 나빠서’, ‘보수가 적어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망이 없어서’ 등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적성과 근무 환경 요소가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로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I-3-24〉 첫 번째 일자리 -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전망이 없어서	0.8	2.4	10.1	4.3
적성에 맞지 않아서	6.6	4.8	13.8	6.8
보수가 적어서	17.6	9.4	15.1	10.1
근무조건·환경이 나빠서	7.8	4.7	15.4	15.9
동료 또는 상사와의 불화로	1.9	1.7	1.1	4.4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0.0	0.0	0.0	1.8
계약기간이 끝나서	5.9	8.8	4.1	6.0
해고 당해서	1.1	1.4	1.6	0.0
사업체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4.5	1.9	5.9	2.8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40.8	54.3	7.0	30.1
기타	13.1	10.6	25.9	17.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15	358	87	118

제3절 현재의 직업생활

본 절은 5차(2008)년도 조사기간 중에 대학생 및 취업 상태에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현재의 일자리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조사 내용은 일자리 개수, 일자리 유형, 입사형식, 일자리 해당 산업 및 직업, 일자리 형태, 근무형태, 비상용직 근무 이유, 근무형태, 근로시간 형태, 소득,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일자리의 전공 일치도, 업무 만족도, 근무여건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조사시점에 대학 재학 중이 아닌 가운데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은 중3 코호트에서 155명, 고3 코호트에서 450명이었다. 한편 조사시점에 대학 재학 중이면서 직업생활도 하는 패널(학생)은 30%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25〉 취업 현황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예	29.6	27.0	100.0
	아니오	70.4	73.0	0.0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809	1,428	155
고3 코호트	예	37.9	30.7	100.0
	아니오	62.1	69.3	0.0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07	1,212	450
전체	예	31.9	28.7	100.0
	아니오	68.1	71.3	0.0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41	605

현재 일자리의 개수를 보면 거의 모두가 1개인 가운데 일부 청년층들이 2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표 II-3-26〉 현재 일자리 개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전체	1개	96.8	94.2	97.6
	2개이상	3.2	5.8	2.4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56	758	605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다만 4년제 대학생의 경우 과외나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가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3-27〉 일자리 유형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한다	96.2	86.0	97.1
내 사업을 한다(개인 사업, 과외, 프리랜서,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	1.1	11.8	1.7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2.7	2.2	1.2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49	757	605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첫 번째 일자리로써 임금근로자인 경우의 입사 형식을 보면, ‘소개나 추천’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경우 ‘공개채용(취직시험)’은 26.8%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28〉 임금근로자 - 입사 형식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공개채용(취직시험)	6.6	9.6	26.8
소개나 추천	43.5	43.4	41.2
스카우트	1.3	2.5	1.9
직접 직장에 찾아가서	38.4	36.4	22.8
기타	10.2	8.0	7.2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51	587

임금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산업의 빈도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표 II-3-29〉 임금근로자 - 일 해당 산업: 중분류별 빈도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농업 및 임업	0.2	0.1	0.1
제조업	9.8	10.5	22.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4	0.2
건설업	0.9	0.9	2.0
도매 및 소매업	24.4	22.4	15.9
숙박 및 음식점업	36.6	32.0	10.7
운수업	1.1	0.7	2.1
통신업	0.3	0.8	2.2
금융 및 보험업	0.8	1.2	2.2
부동산 및 임대업	1.6	0.0	0.3
사업서비스업	5.3	4.1	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9	1.4	1.6
교육 서비스업	1.9	9.4	4.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9	2.2	16.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1.0	10.7	5.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3	3.1	4.9
미분류	1.1	0.3	1.7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1	646	577

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형태에 있어서는 2년제 대학생은 18.2%, 4년제 대학생은 19.4%가 상용직이었으며, 취업자는 76.2%가 상용직이며 임시직 21.1%, 일용직 2.7%로 나타나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중3 코호트 대학생의 경우 상용직은 10% 이하에 불과한 수준이며, 취업자의 경우에도 33% 이상이 상용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0〉 임금근로자 - 일자리 형태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상용직	9.3	10.1	66.8
	임시직	66.6	73.5	30.7
	일용직	24.2	16.3	2.5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24	321	148
고3 코호트	상용직	36.3	28.4	79.3
	임시직	50.7	57.1	18.0
	일용직	12.9	14.5	2.7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	328	440
전체	상용직	18.2	19.4	76.2
	임시직	61.3	65.2	21.1
	일용직	20.4	15.4	2.7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49	588

일자리 형태가 상용직인 패널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취업자의 경우에 정규직이 88.7%, 비정규직이 11.3%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경우에는 중3과 고3 코호트 간에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대학생의 경우에는 중3 코호트의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3-31〉 임금근로자 - 근무 형태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정규직	33.4	32.3	89.5
	비정규직	66.6	67.7	10.5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1	32	99
고3 코호트	정규직	71.7	71.0	88.5
	비정규직	28.3	29.0	11.5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0	93	349
전체	정규직	58.7	61.0	88.7
	비정규직	41.3	39.0	11.3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1	126	448

상용직이 아닌 임금 근로자들 중 비상용직 근무 이유를 보면 상당한 경우가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와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원해서’라는 응답이며, 취업자의 경우 ‘원하는 상용직을 구하지 못해서’라고 24.1% 가량이 응답하고 있어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75% 이상은 상용직만을 고려할 상황이 못 됨을 알 수 있다.

〈표 II-3-32〉 임금근로자 - 비상용직 근무 이유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상용직을 원하지만 상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3.5	3.0	24.1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원해서	37.2	44.5	23.8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서	38.5	35.1	39.0
기타	20.9	17.3	13.0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72	516	140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제가 훨씬 더 많은 반면, 취업자들의 경우 전일제가 86%에 달하고 시간제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3 코호트에 비해 중3 코호트의 경우 시간제 비중이 크게 높은 가운데 중3 코호트 대학생의 경우는 대다수가 시간제 상태임을 보이고 있다.

〈표 II-3-33〉 임금근로자 - 근로시간 형태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중3 코호트	시간제	83.6	89.9	31.9
	전일제	16.4	10.1	68.1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24	322	148
고3 코호트	시간제	37.7	56.0	7.9
	전일제	62.3	44.0	92.1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	328	440
전체	시간제	68.4	72.8	14.0
	전일제	31.6	27.2	86.0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51	588

현재 소속하고 있는 직장의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두 번째로는 취업자, 4년제 대학생에서 ‘(재단, 사단) 법인단체’가 각각 16.9%, 6.5%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생들의 경우는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도 3.5%로 다소 많이 나타났다.

〈표 II-3-34〉 임금근로자 - 직장 소속유형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78.8	81.9	72.5
공무원(경찰, 직업군인 포함)	0.8	1.4	1.5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	1.2	3.5	5.1
외국기업	3.4	1.9	1.5
법인단체(사단, 재단법인)	4.1	6.5	16.9
기타	11.6	4.7	2.4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3	647	587

현재 소속하고 있는 직장의 종업원의 규모를 보면 대학생의 경우는 '1~4명'이 30~35%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5~9명'과 '10~29명'이 그 다음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더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대규모 기업으로써 '1,000인 이상'이 2년제 대학생은 8.5%, 4년제 대학생은 12.5%로 나타났고, 취업자의 경우에는 19.6%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표 II-3-35〉 임금근로자 - 종업원 규모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1-4명	35.2	30.5	15.2
5-9명	18.5	15.4	19.6
10-29명	15.9	18.0	16.8
30-49명	6.5	5.9	5.5
50-69명	5.5	2.6	4.1
70-99명	1.6	4.4	2.5
100-299명	6.2	6.5	7.4
300-499명	1.4	2.5	3.7
500-999명	0.6	1.7	5.5
1,000명 이상	8.5	12.5	19.6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27	634	579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보면, 대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입비율이 30%대 이하로 낮고 취업자의 경우에는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이 74.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74.2%, 71.8% 가입되어 있었고,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는 69.7%가 가입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중3 코호트의 경우 가입 비율은 전반적으로 20% 미만 수준에 불과한 상태이다.

〈표 II-3-36〉 임금근로자 - 사회보험 가입여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예	23.2	26.8	69.7
	아니오	76.8	73.2	30.3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19	613	586
국민건강보험	예	29.4	32.2	74.3
	아니오	70.6	67.8	25.7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22	611	586
고용보험	예	27.4	32.3	74.2
	아니오	72.6	67.7	25.8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18	616	585
산재보험 가입 여부	예	29.4	33.0	71.8
	아니오	70.6	67.0	28.2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19	617	584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의 경우, 대학생의 경우에는 5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일이었으며, 2일을 응답한 비율도 18% 내외로 나타난 반면, 취업자의 경우는 5일과 6일이 46.5% 수준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의 경우 7일이라는 응답도 11~17% 수준으로 응답되어 주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양상을 알게 된다.

〈표 II-3-37〉 임금근로자 - 일주일 평균 근무 일 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1일	0.6	2.0	0.2
2일	18.5	17.3	1.1
3일	1.9	8.5	1.1
4일	1.1	4.4	1.2
5일	33.0	32.2	46.5
6일	27.7	23.8	46.6
7일	17.2	11.8	3.3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48	588
평균(일)	5.0	4.7	5.5

일주일 총 근무시간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취업자의 경우에는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60시간 이상’이 23.8%에 달하고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응답은 23.1%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의 경우 평균으로도 50시간으로 나타나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38〉 임금근로자 - 일주일 총 근무시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0 ~ 10시간미만	1.1	4.7	0.3
10시간이상 ~ 20시간미만	13.0	15.3	0.9
20시간이상 ~ 30시간미만	13.8	19.2	1.2
30시간이상 ~ 40시간미만	15.7	13.0	4.9
40시간이상 ~ 50시간미만	25.0	21.4	45.8
50시간이상 ~ 60시간미만	11.1	10.4	23.1
60시간 이상	20.3	16.1	23.8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4	650	587
평균(시간)	41.2	37.0	49.8

일주일 총 정규 근무시간의 경우에도 총 근무시간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취업자의 경우만 보면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19.1%, '60시간 이상'이 18.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자들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 부합하는 40시간 미만을 응답한 경우는 8.7%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으로도 47.5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3-39〉 임금근로자 - 일주일 총 정규근무시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0 ~ 10시간미만	1.6	5.6	1.1
10시간이상 ~ 20시간미만	12.7	15.7	1.1
20시간이상 ~ 30시간미만	14.4	18.0	1.2
30시간이상 ~ 40시간미만	18.3	12.8	5.3
40시간이상 ~ 50시간미만	26.4	24.1	53.8
50시간이상 ~ 60시간미만	9.9	9.8	19.1
60시간 이상	16.7	14.0	18.4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21	628	580
평균(시간)	39.1	36.2	47.5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는 상당수가 100만원 미만에 속하며, 취업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에서 49.7%로 과반수에 달하며,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9.0%로 나타났다. 한편 '5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취업자도 2.9% 정도 있었으며, 200만원 이상 받는다는 취업자는 극소수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을 평균치로 보면 대학생은 70만원 내외 수준, 취업자는 11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40〉 임금근로자 - 월평균 임금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0 ~ 50만원미만	25.4	37.5	2.9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42.5	39.5	29.0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25.2	18.0	49.7
15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4.6	3.8	14.8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2.2	0.8	2.8
300만원이상	0.2	0.5	0.8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10	620	574
평균(만원)	78.5	68.9	113.8

월평균 초과 근로수당을 보면 대학생은 95% 가량, 취업자는 85% 가량이 2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하였고, ‘2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이 각각 4% 수준, 12%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월평균 특별급여도 대다수가 2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41〉 임금근로자 -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0 ~ 20만원미만	94.0	95.3	85.3
2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4.2	4.3	12.0
50만원이상 ~ 70만원미만	0.0	0.4	1.4
7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1.2	0.0	1.1
100만원이상	0.7	0.1	0.2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06	615	558
평균(만원)	4.2	1.8	5.9

〈표 II-3-42〉 임금근로자 - 월평균 특별급여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0 ~ 20만원미만	95.3	96.8	80.4
2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3.0	2.3	11.1
50만원이상 ~ 70만원미만	0.1	0.4	4.2
7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0.6	0.0	2.2
100만원이상	1.0	0.5	2.1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08	622	548
평균(만원)	3.5	1.9	11.0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의 일·업무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먼저 ‘전공과 잘 맞는다’는 질문에 대학생들은 ‘(전혀)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으며, 취업자는 전공과 맞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는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일과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내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대답한 비중이 40~65%로 크게 높은 가운데 ‘내 수준보다 낮다’라는 응답이 보다 많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능력보다 업무에 있어서 더 높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과 교육수준’ 질문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4년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표 II-3-43〉 임금근로자 - 일이 나의 전공과 잘 맞는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일과 전공 일치도	전혀 그렇지 않다	28.7	32.2	7.9
	그렇지 않다	26.7	22.0	14.0
	보통이다	24.5	26.3	35.5
	그렇다	14.8	13.4	32.7
	매우 그렇다	5.3	6.1	9.9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3	651	588
일과 기술, 능력 수준	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	0.7	0.9	1.5
	내 수준보다 높다	8.2	6.3	14.8
	내 수준과 비슷하다	46.1	39.4	65.4
	내 수준보다 낮다	37.7	38.7	16.6
	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	7.2	14.7	1.7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1	646	588
일과 교육 수준	내 수준보다 아주 높다	0.6	0.1	1.3
	내 수준보다 높다	7.0	4.8	13.7
	내 수준과 비슷하다	48.3	39.4	65.9
	내 수준보다 낮다	29.1	40.0	17.7
	내 수준보다 아주 낮다	15.0	15.7	1.5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2	645	588

일(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를 보면 ‘보통이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공통적으로 과반수에 가깝게 나타난 가운데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38~43% 수준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 일과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3-44〉 임금근로자 - 일·업무 만족 평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전혀 그렇지 않다	3.5	4.6	1.8
그렇지 않다	9.1	10.7	11.7
보통이다	45.8	46.3	43.2
그렇다	35.9	36.2	39.1
매우 그렇다	5.7	2.1	4.2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48	588

근무환경, 근무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임금, 직장의 안정성 질문에서는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불만족 한다는 부정적인 답변보다 크게 높았던 반면,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복지후생’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이 현재의 근무여건에는 일정정도 만족도가 높은 반면 미래의 발전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높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I-3-45〉 임금근로자 - 근무여건 만족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근무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2.9	3.3	2.4
	그렇지 않다	8.8	8.6	9.9
	보통이다	35.2	36.9	32.2
	그렇다	45.9	43.3	47.5
	매우 그렇다	7.3	7.9	8.1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50	587
근무시간	전혀 그렇지 않다	2.3	3.5	2.6
	그렇지 않다	10.9	11.6	19.7
	보통이다	39.4	36.9	30.5
	그렇다	40.0	39.8	41.0
	매우 그렇다	7.4	8.2	6.2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50	587

(표 계속)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의사소통/인간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	0.9	2.3	1.3
	그렇지 않다	6.3	6.3	5.2
	보통이다	31.0	28.7	28.8
	그렇다	45.2	49.2	50.1
	매우 그렇다	16.6	13.6	14.6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50	587
임금	전혀 그렇지 않다	5.2	4.4	3.8
	그렇지 않다	17.7	20.9	21.0
	보통이다	36.2	38.5	36.0
	그렇다	36.8	31.0	35.4
	매우 그렇다	4.0	5.2	3.8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50	587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전혀 그렇지 않다	10.7	12.9	5.8
	그렇지 않다	29.3	28.6	18.3
	보통이다	34.0	32.7	37.9
	그렇다	19.9	23.3	28.9
	매우 그렇다	6.0	2.5	9.0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50	587
복지후생	전혀 그렇지 않다	10.4	9.3	5.4
	그렇지 않다	25.6	33.9	20.1
	보통이다	46.3	37.9	35.6
	그렇다	12.5	17.7	31.4
	매우 그렇다	5.2	1.2	7.5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4	646	587
안정성	전혀 그렇지 않다	7.7	8.1	3.5
	그렇지 않다	19.0	22.8	13.1
	보통이다	43.3	40.5	30.7
	그렇다	24.1	25.0	39.2
	매우 그렇다	5.9	3.6	13.4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46	587

앞에 근무만족도 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만족하고 있었듯이 다른 일자리를 찾는 유무를 묻는 질문에도 찾지 않는다는 응답이 80%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3-46〉 임금근로자 - 다른 일자리 찾는 유무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예	20.7	20.4	22.5
아니오	79.3	79.6	77.5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5	651	587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고 응답한 경우 다른 일자리를 찾는 이유를 보면 ‘직장의 발전 전망이 없어서’와 ‘보수가 적어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2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다른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은 미래 문제와 임금 및 적성 문제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Ⅱ-3-47〉 임금근로자 - 다른 일자리 찾는 이유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2년제	4년제	
직장의 발전 전망이 없어서	15.6	19.2	22.8
적성에 맞지 않아서	11.9	14.6	23.3
보수가 적어서	34.3	20.7	17.5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1.7	5.1	4.7
동료 및 상관과의 불화	5.7	1.2	1.4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6.0	2.5	1.0
고용상태가 불안해서	3.8	7.9	8.0
근무시간이 불만족스러워서	1.8	1.6	5.7
기타	19.1	27.2	15.7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9	129	132

제4절 취업의사 및 준비

본 절은 5차(2008)년도 조사기간 중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성인(대학생) 패널을 대상으로 비경제활동 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현황에서 지난 1주일간 일자리 유무를 묻은 결과, 8.7%의 경우만 일자리가 있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일자리가 없었던 경우의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 여부를 보면 청년층 미취업자들의 90% 가까이에 해당하는 다수가 지난 1주일간에 구직 활동 조차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임을 알 수 있다.

〈표 II-3-48〉 지난 1주일간 일자리 유무 * 구직활동 여부

(단위: %)

		구분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미취업자	
예	8.7					
아니오	91.3	지난 일주일간 구직활동 여부	예	17.6	9.8	16.8
			아니오	82.4	90.2	83.2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59	1,746	405
전체	100.0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층들이 구직활동을 안한 이유로 대학생들은 상당수가 ‘재학 중 이어서’로 응답한 가운데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어서’와 ‘군 입대 예정이어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미취업자는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가 61.4%로 월등한 가운데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어서’가 7.2%, ‘군 입대 예정이어서’가 3.6%로 나타났다. 한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은 전체적으로 8%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3-49〉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 안한 이유

(단위: %)

구분	대학생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재학 중이어서	63.5	61.7	1.5
진학을 준비 중이어서	5.8	4.6	61.4
공무원 시험 등 취업시험 준비 중이어서	0.4	2.2	3.0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3.6	6.5	7.2
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0.0	0.1	0.3
취업이 확정되어 발령 대기 상태여서	0.0	0.1	0.6
군입대 예정이어서	8.1	1.6	3.6
결혼·육아나 가사로 인하여	0.7	0.1	1.5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0.2	1.4	1.1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0.3	1.8	1.2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7.8	8.5	7.7
건강상의 이유로	1.3	1.2	2.8
기타	8.4	10.2	8.0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543	1576	336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들의 일할 의사 여부를 보면, 대학생들의 경우는 60% 내외가 취업의사를 갖는 반면 미취업자들의 경우에는 79.7%가 취업의사를 갖고 있고 20.3%는 진학 및 학업 전념, 군입대 예정, 보다 좋은 직장에서의 취업 준비를 이유로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0〉 일할 의사 여부

(단위: %)

구분	대학생		미취업
	2년제	4년제	
예	61.1	57.4	79.7
아니오	38.9	42.6	20.3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10	297	111

〈표 II-3-51〉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구분	대학생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서	10.8	28.9	13.6
진학 및 학업에 전념하려고	59.4	54.9	27.4
곧 군입대 예정이므로	23.3	10.7	13.0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0.0	0.0	7.0
일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0.0	0.0	0.0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4.0	2.2	0.0
가사일에 전념할 예정이므로	0.0	0.0	0.0
기타	2.6	3.3	39.0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82	127	23

취업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적어도 얼마의 월소득이면 일을 하겠는가(한계소득)를 묻은 결과 2년제 대학생과 대부분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인 미취업자는 한계소득 평균이 159만원 수준인 가운데 36.1%, 48.3%가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을 응답하였고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을 각각 25.1%, 20.3% 응답했다. 반면 4년제 대학생은 한계소득이 217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과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을 각각 23~25% 정도로 골고루 응답하였다.

〈표 II-3-52〉 한계소득(최소 희망 월소득)

(단위: %)

구분	대학생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0 ~ 50만원미만	2.2	3.5	1.2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7.5	8.5	9.4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36.1	15.5	48.3
15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25.1	23.3	20.3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20.6	23.3	16.9
300만원이상	8.5	25.9	3.8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5	205	92
평균(만원)	159.4	217.1	158.4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들에게 학원과 직업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업준비를 하는가를 물은 결과, 하루 평균시간으로 할 때 거의 대부분이 0시간이나 1시간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일에 평일보다 오히려 더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3〉 취업준비 학원, 직업훈련 하루 평균시간 (평일, 휴일)

(단위: %)

구분		대학생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학원/직업훈련 시간(평일)	0 ~ 1시간미만	82.8	75.1	73.7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2.8	4.5	3.4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3.8	7.9	2.1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1.4	1.3	6.7
	4시간이상 ~ 5시간미만	1.5	1.3	7.0
	5시간이상 ~ 6시간미만	2.6	0.9	0.7
	6시간 이상	5.0	9.0	6.4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5	206	91
	평균(시간)	0.8	1.1	1.2
학원/직업훈련 시간(휴일)	0 ~ 1시간미만	90.3	88.0	89.0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2.6	2.7	5.9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1.5	0.7	0.5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1.8	0.8	0.8
	4시간이상 ~ 5시간미만	0.4	0.9	0.5
	5시간이상 ~ 6시간미만	0.9	2.6	0.0
	6시간 이상	2.5	4.2	3.3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5	207	90
	평균(시간)	0.4	0.6	0.5

취업(창업)을 위해 학원이나 직업훈련이 아닌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물은 결과, 2년제 대학생과 미취업자는 하루 평균으로 할 때 1시간미만이 70%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는 2~3시간과 1~2시간이 대부분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4년제 대학생

의 경우 1시간 미만이 50% 수준을 하회하는 가운데 평균시간으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원·직업훈련 시간과 마찬가지로 취업(창업)을 위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휴일이 평일보다 오히려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II-3-54〉 취업(창업)준비 혼자 공부하는 하루 평균시간 (평일, 휴일)

(단위: %)

구분	대학생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혼자 공부시간 (평일)	0 ~ 1시간미만	67.2	43.9	75.7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8.2	11.4	8.0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16.1	19.6	6.8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3.0	11.7	4.0
	4시간이상 ~ 5시간미만	2.8	4.6	4.6
	5시간이상 ~ 6시간미만	2.0	4.1	0.0
	6시간 이상	0.8	4.8	1.0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6	207	90
	평균(시간)	0.8	1.6	0.7
혼자 공부시간 (휴일)	0 ~ 1시간미만	78.5	51.2	82.4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5.9	12.1	7.1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6.5	13.6	3.5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7.0	13.6	2.4
	4시간이상 ~ 5시간미만	0.6	0.5	3.1
	5시간이상 ~ 6시간미만	1.2	4.5	0.2
	6시간 이상	0.3	4.4	1.3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6	207	90
	평균(시간)	0.5	1.4	0.5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에 들이는 시간을 물은 결과,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이 과반수를 초과하거나 근접한 비율인 가운데 그 외에도 1~2시간미만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직활동 시간은 미취업자, 4년제 대학생, 2년제 대학생 순으로 더 많게 나타났으며, 휴일의 경우에도 평일과 유사한 패턴과 시간을 나타냈다.

〈표 II-3-55〉 구직활동 하루 평균 시간 (평일, 휴일)

(단위: %)

구분		대학생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구직활동시간 (평일)	0 ~ 1시간미만	65.9	50.7	42.5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21.9	29.7	37.3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5.4	11.2	11.6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5.3	7.2	5.6
	4시간이상	1.5	1.1	3.0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4	207	92
	평균(시간)	0.6	0.9	1.0
구직활동시간 (휴일)	0 ~ 1시간미만	70.1	54.3	57.3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16.1	26.3	29.2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4.3	9.4	4.2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6.2	6.8	7.2
	4시간이상	3.3	3.3	2.2
	전체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36	207	92
	평균(시간)	0.6	0.9	0.8

제4장

교육훈련

제1절 영어 교육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이 외국어, 그중에서도 특히 영어이다. 대학생과 취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분해 본 결과 2년제 대학생의 27.2%, 4년제 대학생의 48.6%가 영어공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의 15.3%, 미취업자의 42.9%가 영어공부 경험이 있어 취업준비를 위해 영어공부를 하지만 정작 취업 후에는 그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영어공부 경험비율에 비해 더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대상별로는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II-4-1〉 영어공부와 교육경험 여부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영어 공부 경험	예	27.2	48.6	15.3	42.9
	아니오	72.8	51.4	84.7	57.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41	603	451
(영어 교육) 경험 여부	예	48.6	49.8	36.3	68.2
	아니오	51.4	50.2	63.7	3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03	1,283	91	193

영어교육 기간은 12주 이하가 70%를 차지하였지만,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17주 이상이 50%를 상회하여 미취업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영어교육 일수를 보면 대체로 5일이 가장 높았는데 2년제 대학생 29.8%, 4년제 대학생 37.5%, 취업자 33.6%, 미취업자 34.2% 등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교육시간은 2시간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정도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혼자 영어공부한 시간은 1시간 정도가 가장 많았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미취업자의 43.6%가 6시간 이상으로 응답하여 취업준비로서 영어의 중요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표 II-4-2〉 영어교육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영어교육 기간	1 ~ 4주	26.8	26.7	28.5	11.2
	5 ~ 8주	26.1	25.9	30.5	13.2
	9 ~ 12주	19.9	15.2	13.2	16.4
	13 ~ 16주	10.1	10.3	9.2	6.0
	17 ~ 22주	3.6	6.7	0.4	16.9
	23주이상	13.6	15.2	18.3	36.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47	633	33	127
일주일 평균 교육일수	평균(주)	11.9	12.3	12.9	20.8
	1일	14.7	3.8	12.4	2.5
	2일	17.4	14.8	12.6	6.1
	3일	16.0	23.3	34.6	31.2
	4일	9.3	13.9	2.1	8.7
	5일	29.8	37.5	33.6	34.2
	6일	6.6	2.6	2.7	9.9
	7일	6.2	4.1	2.0	7.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47	637	33	132	
평균(일)	3.7	3.9	3.5	4.2	

(표 계속)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하루 평균 교육시간	1시간	23.9	33.7	32.9	10.6
	2시간	49.1	47.3	48.6	65.4
	3시간	16.9	10.5	9.3	11.6
	4시간	4.3	5.1	3.5	5.3
	5시간	2.6	1.0	3.1	4.9
	6시간이상	3.3	2.5	2.6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47	638	33	132
	평균(시간)	2.2	2.0	2.0	2.5
하루 평균 혼자 영어공부한 시간	1시간	38.0	25.5	36.2	16.8
	2시간	19.7	19.3	16.2	16.5
	3시간	9.7	14.4	16.2	10.4
	4시간	7.1	6.5	3.4	4.1
	5시간	5.8	9.6	10.7	8.5
	6시간이상	19.7	24.7	17.3	43.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99	1,276	92	192
	평균(시간)	3.4	4.7	3.6	7.1

영어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족, 친지가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취업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67.9%로서 가장 높았던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가족, 친지 부담이 89.6%로 크게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대학생에 비해서도 더 높은 것으로서 취업이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 친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4-3〉 영어교육훈련 비용부담 여부와 평균 본인부담액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본인	15.1	17.6	67.9	8.6
가족, 친지	71.0	75.4	36.4	89.6
회사	1.7	0.1	1.6	0.0
정부	1.3	2.2	0.0	0.0
공공재단	6.6	3.6	0.0	0.8
기타	5.6	4.4	1.6	3.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47	639	33	132
본인(가족)이 부담한 평균액(만원)	20.9	37.3	33.9	40.3

영어교육훈련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도움이 된다는 비중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73%에 달하여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생과 취업자 61.1%, 2년제 대학생 5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여 영어교육훈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표 II-4-4〉 영어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전혀 그렇지 않다	0.4	1.6	0.0	0.6
그렇지 않다	1.2	6.2	4.5	2.9
보통이다	39.7	31.1	34.5	23.5
그렇다	50.7	51.2	58.7	56.3
매우 그렇다	8.0	9.9	2.4	1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47	639	33	132

최근에 영어시험을 본 비율은 4년제 대학생이 19.5%로서 가장 높았으며 2년제 대학생, 취업자 및 미취업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시험을 본 경우 ‘TOEIC(YBM 시사)’이 대체로 가장 높았으며 4년제 대학생 16.9%, 2년제 대학생 6.1%, 미취업자 3.6%, 취업자 2.4%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4-5〉 최근에 본 영어시험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TOEIC(YBM 시사)	6.1	16.9	2.4	3.6
TOEFL(ETS/ 한미교육위원단)	0.2	1.0	0.3	1.0
TEPS(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0.2	1.3	0.0	1.0
IELTS(영국 문화원)	0.1	0.1	0.0	0.0
G-TELP(국제테스트연구원)	0.3	0.0	0.5	0.0
SEPT(YBM 시사)	0.1	0.1	0.0	0.0
ESPT(ESP평가 아카데미)	0.2	0.0	0.0	0.0
TOP(서울대학교 TOP 관리위원회)	0.0	0.0	0.0	0.0
영어 시험 본 적 없음	92.7	80.5	96.7	9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98	2,625	600	449

최근에 본 영어시험의 성적평균은 2년제 대학생이 가장 낮고 4년제 대학생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TOEIC(YBM 시사)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4년제 대학생이 552.7점으로 가장 높고, 미취업자 523.9점, 취업자 474.1점, 2년제 대학생 363.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6〉 최근에 본 영어시험의 성적평균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TOEIC(YBM 시사)	응답자 수(명)	52	339	13	12
	평균(점)	363.5	552.7	474.1	523.9
TOEFL(ETS/ 한미교육위원회)	응답자 수(명)	3	21	2	3
	평균(점)	400.0	296.1	317.0	80.5
TEPS(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응답자 수(명)	0	29	0	4
	평균(점)	.	659.8	.	667.5
IELTS(영국 문화원)	응답자 수(명)	0	1	0	0
	평균(점)	.	6.5	.	.
G-TELP(국제테스트연구원)	응답자 수(명)	3	0	3	0
	평균(점)	113.2	.	32.0	.
SEPT(YBM 시사)	응답자 수(명)	0	2	0	0
	평균(점)	.	553.1	.	.
ESPT(ESP평가 아카데미)	응답자 수(명)	2	0	0	0
	평균(점)	272.3	.	.	.

제2절 제2외국어 교육

제2외국어 공부경험을 조사한 결과 10% 내외 정도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영어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제2외국어 교육 경험은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로 교육에 의해 제2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 제2외국어 공부와 교육경험 여부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제2외국어 공부 경험	예	9.6	12.9	7.9	11.7
	아니오	90.4	87.1	92.1	88.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5	2,640	601	451
(제2외국어 교육) 경험 여부	예	36.0	35.4	39.1	36.6
	아니오	64.0	64.6	60.9	63.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7	342	47	53

제2외국어 교육 기간은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취업자 모두 1~4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기간의 특성을 보였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13~16주가 가장 높아 3~4개월 정도 중기간의 교육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영어교육 일수를 보면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은 5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취업자와 미취업자는 3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하루 평균 교육시간은 2시간이하가 대략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혼자 제2외국어 공부한 시간은 1시간 정도가 가장 많았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2년제 대학생의 25.1%가 6시간 이상으로 응답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2외국어 학습에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4-8〉 제2외국어 교육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기간	1 ~ 4주	35.3	24.7	44.8	18.7
	5 ~ 8주	17.8	16.5	19.9	10.0
	9 ~ 12주	22.3	20.3	22.9	22.6
	13 ~ 16주	14.5	9.1	0.0	27.6
	17 ~ 22주	5.4	6.1	1.2	10.2
	23주이상	4.8	23.3	11.2	1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8	119	19	18
	평균(주)	9.6	15.4	9.1	14.0
일주일 평균 교육일수	1일	7.7	21.0	19.7	17.9
	2일	28.2	12.0	16.6	22.8
	3일	30.5	19.0	45.5	28.4
	4일	0.5	10.8	0.0	6.9
	5일	33.1	28.5	12.5	24.0
	6일	0.0	0.0	0.0	0.0
	7일	0.0	8.6	5.6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8	118	19	19
평균(일)	3.2	3.5	2.9	3.0	

(표 계속)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하루 평균 교육시간	1시간	40.7	32.6	51.6	42.1
	2시간	45.1	42.8	28.1	50.3
	3시간	12.9	17.9	20.4	0.8
	4시간	0.0	3.0	0.0	0.4
	5시간	0.0	0.1	0.0	6.5
	6시간이상	1.3	3.6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8	120	19	19
	평균(시간)	1.8	2.1	1.7	1.7
하루 평균 혼자 제2외국어 공부한 시간	1시간	29.6	31.1	41.6	42.1
	2시간	28.4	21.1	9.2	19.6
	3시간	9.8	12.2	32.8	4.9
	4시간	4.3	8.3	7.9	8.7
	5시간	2.8	10.1	2.1	7.0
	6시간이상	25.1	17.2	6.4	17.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7	338	47	51
	평균(시간)	4.0	3.7	2.5	4.7

제2외국어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족, 친지가 6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취업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51.7%로서 가장 높았던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가족, 친지 부담이 73.4%로 크게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대학생에 비해서도 더 높은 것으로서 취업이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 친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4-9〉 제2외국어 교육훈련 비용부담 여부와 평균 본인부담액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본인	13.3	25.3	51.7	14.5
가족, 친지	64.0	66.9	38.8	73.4
회사	0.0	0.0	11.9	0.0
정부	4.8	0.1	0.0	0.0
공공재단	6.2	7.5	0.0	8.7
기타	12.7	4.0	6.0	9.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8	120	19	19
본인(가족)이 부담한 평균액(만원)	10.7	25.8	19.6	21.7

제2외국어 교육훈련의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도움이 된다는 비중이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는 비중이 40.2%에 그쳐 다른 집단에 비해 무려 20%p 이상 낮은 특징을 보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여 제2외국어 교육훈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은 10% 미만에 그쳤으며 이는 취업자에서도 동일하였다.

〈표 II-4-10〉 제2외국어 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전혀 그렇지 않다	1.6	0.0	0.0	0.0
그렇지 않다	4.3	3.1	3.9	0.0
보통이다	22.7	25.9	55.9	21.9
그렇다	52.3	51.8	35.5	58.9
매우 그렇다	19.1	19.2	4.7	19.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9	120	19	19

공부한 제2외국어 종류를 조사한 결과 일본어가 가장 높았으며, 중국어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제2외국어로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비율은 취업자가 72.9%로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2년제 대학생이 70.2%, 4년제 대학생 57.0%, 미취업자 4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11〉 공부한 제2외국어 종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일본어	70.2	57.0	72.9	41.6
중국어	27.7	24.5	20.8	26.2
독일어	1.5	5.4	0.0	5.9
프랑스어	0.0	4.6	0.2	8.9
스페인어	0.0	1.2	0.0	4.0
러시아어	0.0	0.5	0.0	0.0
아랍어	0.0	0.0	0.0	6.0
기타	0.6	6.8	6.1	7.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7	341	47	53

제3절 공무원시험 준비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을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는 학생비율은 극히 미미하였지만, 공무원시험 교육경험에 대해서는 27~59%까지로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 재학생의 경우 공무원시험 교육경험이 59.5%로서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자 39.8%, 취업자 36.6%, 2년제 대학생 27.6% 등의 순이었다.

〈표 II-4-12〉 공무원시험 준비와 교육경험 여부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예	1.3	2.9	1.5	3.1
	아니오	98.7	97.1	98.5	9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5	2,641	599	451
(공무원시험 교육) 경험 여부	예	27.6	59.5	36.6	39.8
	아니오	72.4	40.5	63.4	60.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5	77	9	14

공무원시험 교육받은 기간은 2년제 대학생의 경우 8주이하가 100%였지만, 취업자는 23주 이상이 92.9%에 달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3주 이상으로 장기간 교육을 받는 비율을 보면 미취업자 51.1%, 4년제 대학생 31.0%로서 시험준비의 강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일주일 평균 공무원시험 교육 일수 역시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2년제 대학생은 3일로 응답한 비중이 68.3%로서 가장 높았지만 4년제 대학생과 미취업자는 5일이 각각 26.1%, 45.4%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는 4일이라는 응답이 92.9%에 달하였다.

하루 평균 교육시간 역시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2년제 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은 2시간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56.7%, 24.3%로 가장 높았고, 취업자와 미취업자는 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92.9%, 91.4% 등으로 가장 높았다. 하루 평균 혼자 공무원시험 공부한 시간은 모든 응답집단에서 6시간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그 시험공부 강도가 매우 높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4-13〉 공무원시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교육 기간	1 ~ 4주	56.7	15.2	7.1	0.0
	5 ~ 8주	43.3	9.7	0.0	1.5
	9 ~ 12주	0.0	13.0	0.0	18.5
	13 ~ 16주	0.0	20.9	0.0	29.0
	17 ~ 22주	0.0	10.3	0.0	0.0
	23주이상	0.0	31.0	92.9	5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	46	3	6
	평균(주)	5.3	19.2	22.4	22.4
일주일 평균 교육일수	1일	0.0	0.4	0.0	0.0
	2일	0.0	11.0	7.1	0.0
	3일	68.3	14.8	0.0	0.0
	4일	0.0	8.6	92.9	36.1
	5일	31.7	26.1	0.0	45.4
	6일	0.0	22.7	0.0	18.5
	7일	0.0	16.4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	46	3	6
평균(일)	3.6	4.8	3.9	4.8	
하루 평균 교육시간	1시간	0.0	4.5	7.1	0.0
	2시간	56.7	24.3	0.0	0.0
	3시간	0.0	22.6	0.0	0.0
	4시간	18.9	11.0	0.0	8.6
	5시간	0.0	23.8	0.0	0.0
	6시간이상	24.4	13.8	92.9	9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	46	3	6
	평균(시간)	3.4	3.9	7.5	7.2
하루 평균 혼자 공무원시험 공부한 시간	1시간	10.8	15.7	32.1	5.3
	2시간	8.7	8.5	0.0	0.6
	3시간	27.8	16.7	0.0	0.0
	4시간	0.0	6.1	4.2	0.0
	5시간	8.6	6.0	6.6	0.0
	6시간이상	44.1	47.0	57.1	94.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4	77	9	14
	평균(시간)	5.9	16.2	8.4	12.6

공무원시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가족, 친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2년제 대학생의 경우만 ‘기타’로 응답한 비율이 43.9%에 달하였다. ‘가족, 친지’로 응답한 비율을 보면 2년제 대학생 37.2%, 4년제 대학생 77.7%, 취업자 92.9%, 미취업자 100%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4-14〉 공무원시험 교육훈련 비용부담 여부와 평균 본인부담액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본인	0.0	13.8	7.1	0.0
가족, 친지	37.2	77.7	92.9	100.0
회사	0.0	0.5	0.0	0.0
정부	0.0	0.0	0.0	0.0
공공재단	18.9	5.4	0.0	0.0
기타	43.9	5.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	46	3	6
본인(가족)이 부담한 평균액(만원)	7.0	34.4	48.6	45.1

공무원시험 교육훈련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도움이 된다는 비중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중은 미취업자 52.6%, 2년제 대학생 56.7%, 4년제 대학생 66.8%, 취업자 92.9% 등으로 취업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무원시험 교육훈련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4-15> 공무원시험 교육훈련의 도움 정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전혀 그렇지 않다	0.0	0.0	7.1	0.0
그렇지 않다	0.0	3.5	0.0	0.0
보통이다	43.3	29.7	0.0	47.4
그렇다	56.7	48.8	92.9	51.1
매우 그렇다	0.0	18.0	0.0	1.5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	46	3	6

공부한 시험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경향이 나타났다. 2년제 대학생들은 경찰시험 준비에 4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방 27.8%인 반면, 4년제 대학생은 다양한 시험에 준비하는 특성을 보였다. 즉,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교원 임용시험으로 23.6%, 그 다음으로 지방직 9급 16.1%, 경찰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국가직 9급이 34.0%로 가장 높은 가운데 뜻밖에도 군인이 23.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지방직 9급 21.6%, 기타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는 지방직 9급 51.1%, 경찰 24.8%, 국가직 9급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16> 준비한 공무원시험 종류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교원임용시험	0.0	23.6	4.1	0.0
경찰	44.5	13.5	0.0	24.8
소방	27.8	5.5	0.0	0.0
사법시험	0.0	0.0	0.0	0.0
군인	8.6	6.0	23.3	4.5
국가직 5급(행정고시, 외무고시 포함)	0.0	2.4	0.0	0.0
지방직 5급	0.0	0.0	0.0	0.0
국가직 7급	0.0	7.2	0.0	0.0
지방직 7급	0.0	2.1	0.0	0.0
국가직 9급	0.0	12.5	34.0	14.4
지방직 9급	12.7	16.1	21.6	51.1
기타	6.5	11.1	17.0	5.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4	77	9	14

제4절 취업/창업/직무능력개발

취업, 창업, 직무능력개발 교육훈련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 미만에 그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평균 교육훈련 경험 개수는 1개 정도에 그쳐 평생능력개발이 부진한 특징을 보였다.

〈표 II-4-17〉 취업, 창업, 직무능력개발 교육훈련 경험여부와 개수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예	2.5	1.9	3.9	4.0
아니오	97.5	98.1	96.1	9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5	2,641	599	451
평균(개수)	1.1	1.4	1.1	1.1

교육훈련 분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컴퓨터’, ‘교육, 법률, 사회복지’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컴퓨터’가 26.8%로 가장 높았고, ‘교육, 법률, 사회복지’가 12.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반대로 ‘교육, 법률, 사회복지’가 17.2%로 가장 높은 반면 ‘컴퓨터’는 13.8%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식품’이 16.2%로 가장 높았고 컴퓨터 14.5%, ‘인쇄, 출판, 디자인’ 13.5% 등의 순으로, 미취업자는 ‘컴퓨터’ 28.2%로 가장 높았고, ‘보건, 의료’ 17.5%, ‘기계’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4-18〉 교육훈련 분야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농·림·어업, 광업	5.8	0.0	0.0	0.0
식품	9.9	7.2	16.2	5.1
섬유 및 의복	0.0	0.0	0.0	0.0
화학	0.0	7.2	0.0	0.0
금속 및 비금속	0.0	0.0	0.0	0.0
기계	5.5	0.0	0.0	16.5
건설	9.8	3.9	0.0	6.5
전기·전자	5.3	2.2	0.0	0.9
컴퓨터	26.8	13.8	14.5	28.2
인쇄, 출판 및 디자인	0.0	2.0	13.5	6.6
목재, 펄프, 가구 및 공예	0.0	0.0	0.0	2.4
서비스	4.9	2.3	13.0	9.2
경영 및 사무	0.0	8.6	3.7	0.0
금융·보험	0.0	5.0	5.6	0.0
보건·의료	3.7	1.3	2.0	17.5
환경, 비파괴, 안전	0.0	2.4	0.0	0.0
교육, 법률, 사회복지	12.1	17.2	12.2	0.0
판매 및 영업	3.2	0.0	0.0	0.8
운전	2.9	1.3	0.0	6.5
계층별교육	6.7	0.0	3.4	0.0
문화예술	2.4	3.3	7.2	0.0
기타	1.1	22.1	8.5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8	49	23	18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공공재단이, 취업자는 회사가, 그리고 미취업자는 ‘가족, 친지’가 주로 부담하였다. 2년제 대학생은 공공재단으로 응답한 비율이 57.5%, 4년제 대학생은 49.7%였지만 졸업생에서는 극히 미미하였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응답비율이 44.9%에 달하였고 미취업자는 ‘가족, 친지’가 부담하는 비율이 46.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인(가족)이 부담한 평균 액수는 취업자가 219.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자 108.1만원, 2년제 대학생 27.9만원, 4년제 대학생 17.6만원 등이었다.

〈표 II-4-19〉 평균금액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본인	12.6	14.1	19.8	8.3
가족, 친지	23.6	30.1	16.8	46.1
회사	7.6	3.1	44.9	0.0
정부	1.3	3.8	14.4	38.4
공공재단	57.5	49.7	0.0	6.4
기타	15.3	3.4	4.1	0.8
전체	26	48	24	18
응답자 수(명)	16	47	18	15
본인(가족)이 부담한 액수 평균(만원)	27.9	17.6	219.4	108.1

이용한 교육훈련 기관으로는 대학생들이 주로 대학 내 부설기관(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을 응답한 반면 취업자는 사설학원을, 미취업자는 직업훈련법인(민간직업전문학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내에서 용이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내시설을 주로 응답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II-4-20〉 교육훈련 기관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공공훈련기관(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기능대학 등)	11.8	5.3	5.3	26.0
직업훈련법인(민간직업전문학교 등)	15.7	0.0	7.2	43.3
대학 내 부설기관(평생교육원, 어학원 등)	41.9	45.9	3.9	0.0
사설학원	22.1	24.7	38.3	23.4
통신교육기관(방통대 제외,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TV 등)	0.0	0.0	3.0	0.0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훈련기관	1.5	4.0	21.3	7.2
협회나 단체, 연구소(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2.9	3.2	0.0	0.0
복지관, 구청	0.0	9.5	3.4	0.0
여성인력개발센터	0.0	0.0	10.7	0.0
기타	4.0	7.5	6.8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8	48	22	18

교육훈련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로 교육훈련이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10% 미만이었으며 특히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부정적 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1〉 교육훈련 도움 정도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전혀 그렇지 않다	2.4	0.0	0.0	0.0
그렇지 않다	4.6	3.3	0.0	0.0
보통이다	21.7	19.1	31.8	20.7
그렇다	51.6	50.4	54.8	42.3
매우 그렇다	19.8	27.1	13.4	37.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28	48	22	18

제5절 교양/취미 교육

교양·취미 교육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중은 극히 저조하였다. 2년제 대학생의 3.0%, 4년제 대학생의 5.4%, 취업자의 2.0%, 미취업자의 3.0%만이 교양·취미 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2〉 교양·취미 교육경험 여부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예	3.0	5.4	2.0	3.0
아니오	97.0	94.6	98.0	97.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5	2,640	599	451

교양·취미 교육경험 1순위 분야는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취업자에서는 스포츠로 나타났지만, 미취업자에서는 음악이 크게 높았다. 2년제 대학생은 스포츠에 이어 음악(28.9%), 영화, 연극(10.4%)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4년제 대학생은 스포츠에 이어 음악(20.8%), 미술(회화, 서예, 수공예 등)(6.3%)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스포츠로 응답한 비율이 70.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미취업자는 음악(32.3%), 미술(회화, 서예, 수공예 등)(17.0%), 스포츠(15.1%) 등의 순이었다.

〈표 II-4-23〉 교양·취미 교육경험 1순위 분야

(단위: %)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음악	28.9	20.8	1.1	32.3
미술(회화, 서예, 수공예 등)	6.4	6.3	6.0	17.0
사진	2.9	0.0	0.0	12.6
영화, 연극	10.4	3.2	7.4	0.0
문학	0.8	3.8	0.0	0.0
스포츠(운동, 바둑, 댄스 등)	38.1	40.5	70.5	15.1
컴퓨터	2.1	9.3	0.9	12.3
재테크	0.0	0.0	0.0	0.0
요리	3.9	7.0	0.0	0.0
건강, 보건(수지침, 건강상식 등)	0.0	0.0	1.0	10.7
미용(차밍, 뷰티 등)	1.4	2.8	4.4	0.0
기타	5.2	6.2	8.7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3	137	12	13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

제1절 가구형태와 구성원

본 절에서는 2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등 총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가구의 형태와 가정생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부모(보호자) 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년제 대학생은 81.7%, 4년제 대학생은 72.5%, 취업자 70.4%, 미취업자 88.3%였다. 집단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자취 8.4%, 기숙사 6.8%였고, 4년제 대학생은 기숙사 13.3%, 자취 10.7%였다. 취업자의 경우 기숙사와 자취가 각각 12.9%, 11.8%로 거의 1/4를 차지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집에서 거주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자취가 4.6%, 결혼해서 내 가정을 이룬 경우는 1.2%였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수 평균은 전체적으로 3.8명 또는 3.9명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5-1〉 가구 형태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부모(보호자 집)	81.7	72.5	70.4	88.3
하숙	0.5	1.4	0.1	0.2
자취	8.4	10.7	11.8	4.6
기숙사	6.8	13.3	12.9	3.0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의 집	2.0	1.3	3.1	1.5
결혼해서 내 가정을 이룸(분가)	0.0	0.0	0.7	1.2
기타	0.5	0.7	1.0	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36	604	451

다음은 자취, 하숙,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패널들에 대해 생활비, 생활비용 마련 방법,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생활비 지원정도, 주택마련 금액의 지원정도를 질문한 결과이다. 먼저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5.7%가 자취·하숙·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평균 생활비용은 33만 1천원이었고, 생활비 지원정도 평균이 75.7%로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을 아직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자취·하숙·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25.4%였고, 평균 생활비는 37만 3천원으로 2년제 대학생보다 다소 높았다. 생활비 지원정도는 86.5%, 주택마련금액 지원정도는 91.4%로 부모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업자의 경우는 그 양상이 매우 달랐는데, 평균 생활비 24만 2천원으로 생활비 지원정도는 4.7%, 주택마련비용의 지원정도도 22.5%로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 독립정도가 매우 높았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평균 자취·하숙·기숙사 생활 비용이 39만 6천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는데, 이 중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생활비 지원정도는 47.1%, 주택마련비용의 지원 정도는 55.5%로 취업자들보다는 낮았으나, 대학생보다는 자립정도가 높았다.

〈표 II-5-2〉 자취, 하숙, 기숙사 생활비용 및 자립정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하숙, 자취, 기숙사 생활비용 마련처	부모(보호자)	77.7	89.5	4.4	41.4
	형제자매	2.1	0.9	1.8	0.0
	친척	0.0	0.1	0.0	0.0
	스스로 벌어서	17.7	7.9	90.7	32.5
	기타	2.5	1.7	3.1	2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75	671	150	35
하숙, 자취, 기숙사 생활비용(만원)		33.1	37.3	24.2	39.6
생활비 지원 정도(%)		75.7	86.5	4.7	47.1
주택마련금액의 지원 정도(%)		80.0	91.4	22.5	55.5

제2절 가구 소득 및 지출(경제적 자본)

다음은 각 패널 집단별로 조사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각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2년제 대학생은 384만원, 4년제 대학생은 397만원, 취업자 410만원, 미취업자 가구의 경우 3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의 경우도 집단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2년제 대학생 67만 5천원, 4년제 대학생 89만 8천원, 취업자 집단 117만 6천원, 미취업자는 75만 9천원이었다.

〈표 II-5-3〉 가구소득과 저축액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4.7	3.0	4.3	5.2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18.6	8.7	13.1	13.4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29.1	24.2	18.5	21.8
	3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39.2	43.7	42.3	32.1
	500만원이상	8.4	20.4	21.7	27.5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539	1,474	335	225
	평균(만원)	383.9	397.3	410.1	390.9
월평균 저축액	20만원미만	27.0	17.1	10.5	32.5
	2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20.7	14.0	14.5	17.2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22.5	25.4	23.2	19.0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20.0	32.5	28.5	19.6
	200만원이상	9.7	11.0	23.4	1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17	1,063	283	153
	평균(만원)	67.5	89.8	117.6	75.9

다음은 월평균 생활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각 집단별로 월평균 생활비 평균을 비교하면, 2년제 대학생은 167만원, 4년제 대학생 189만원, 취업자는 148만원, 미취업자 157만원으로 4년제 대학생의 가구의 생활비가 가장 높았다.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는 2년제 대학생 18만 3천원, 4년제 대학생 35만 9천원, 취업자는 16만 2천원으로 가장 적었고, 미취업자 집단은 46만 9천원으로 미취업자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다.

〈표 II-5-4〉 월평균 생활비와 사교육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월평균 생활비	100만원미만	24.3	18.5	23.0	26.8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45.0	36.7	47.2	37.7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22.3	28.1	21.2	21.2
	3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6.1	13.8	7.1	14.3
	500만원이상	2.4	2.9	1.5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44	1,116	287	165
	평균(만원)	166.5	189.4	148.3	157.4
월평균 사교육비	10만원미만	66.7	50.5	71.4	43.8
	10만원이상 ~ 20만원미만	5.3	5.7	5.0	4.9
	20만원이상 ~ 30만원미만	5.5	9.5	6.3	5.6
	3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8.8	12.4	7.3	6.4
	50만원이상 ~ 100만원미만	9.0	12.8	5.6	21.6
	100만원이상	4.7	9.1	4.4	17.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724	1,885	476	323
평균(만원)	18.3	35.9	16.2	46.9	

다음은 가구의 총 자산 및 채무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먼저 2년제 대학생 가구의 자산 평균은 1억 9천 8백만원, 4년제 대학생 가구는 2억 3천 6백만원, 취업자 가구는 1억 3천만원, 미취업자 가구의 경우는 2억 1천 4백만원으로 집단별 차이가 다소 있었다. 채무액과 관련해서는 2년제 대학생 7천 1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생 5천 5백만원, 취업자 가구의 경우 3천 6백만원으로 응답하였고, 미취업자 가구의 경우 3천만원으로 집단 중에는 채무가 가장 적었다.

〈표 II-5-5〉 자산액수와 채무유무 및 액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자산액수	1천만원미만	9.4	3.7	9.7	7.9
	1천만원 ~ 2천5백만원미만	6.2	3.6	13.2	6.2
	2천5백만원 ~ 5천만원미만	7.1	8.8	12.2	18.4
	5천만원 ~ 7천5백만원미만	16.8	10.5	14.3	12.1
	7천5백만원 ~ 1억원미만	8.6	10.5	10.1	7.2
	1억원 ~ 2억원미만	25.9	27.0	16.9	9.2
	2억원 ~ 3억원미만	10.0	16.2	8.8	11.3
	3억원 ~ 4억원미만	4.9	6.4	6.6	7.8
	4억원 ~ 5억원미만	1.6	3.0	1.5	5.0
	5억원 ~ 10억원미만	6.3	6.2	5.8	10.8
	10억원이상	3.3	4.1	0.8	4.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303	774	181	112
평균(만원)	19881.2	23640.9	13081.4	21458.4	
채무 유무	예	22.7	21.7	23.3	22.4
	아니오	77.3	78.3	76.7	77.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903	2,196	498	363
	평균(만원)	7105.2	5551.0	3664.2	3044.5

각 가구별 주택 점유형태와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주택점유 형태는 자가 69.7%, 전세 20.0%였고, 4년제 대학생은 79.8%가 자가, 13.3%가 전세라고 응답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68.1%가 자가, 22.1%는 전세, 8.4%는 월세라고 응답하였고, 미취업자의 가구는 68.3%는 자가, 21.8%는 전세라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2년제 대학생 가구는 시 지역이 40.4%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시지역 40.0%, 광역시 지역 32.6%였다. 취업자 가구의 경우도 시지역 39.6%, 광역시 지역 27.5%였고, 미취업자의 경우는 특별시 지역이 34.7%로 가장 많았고, 시 지역 34%, 광역시 지역은 22.6%로 응답하였다.

〈표 II-5-6〉 주거 환경 (점유형태, 거주지역)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주택점유형태	자가	69.7	79.8	68.1	68.3
	전세	20.0	13.3	22.1	21.8
	월세(사글세, 보증부 월세 포함)	9.0	4.6	8.4	7.9
	무상 및 기타	1.3	2.3	1.5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81	2,608	593	443
거주지역	특별시 지역	18.2	16.7	17.7	34.7
	광역시 지역	26.5	32.6	27.5	22.6
	시 지역	40.4	40.0	39.6	34.0
	읍, 면 지역	15.0	10.7	15.2	8.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37	603	450

제3절 여가생활(및 문화생활)

본 절에서는 대학생과 취업자, 미취업자들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일 여가시간 평균을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은 5.2시간, 4년제 대학생 5시간으로 차이가 없었고, 취업자의 경우는 3.9시간, 미취업자의 경우는 5.1시간으로 대학생 집단과 비슷하였다.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대해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TV 시청과 컴퓨터 응답이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년제 대학생은 운동이 5.3% 다소 높았고, 4년제 대학생은 운동과 독서가 각각 5.3%, 5.1%로 많았다. 취업자 역시 4년제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운동 3.5%, 독서 2.9%, 영화·연극·미술·스포츠 관람 활동이 2.2% 수준이었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휴식이라는 응답이 5%였고, 운동 3.9%, 독서 3.6%, 영화·연극·미술·스포츠 관람 2.5% 순이었다.

〈표 II-5-7〉 여가시간과 활동 - 평일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여가활동 시간	1시간미만	0.1	0.0	0.1	0.2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3.0	2.3	4.8	13.2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12.7	12.4	19.5	16.2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14.3	19.0	22.5	14.0
	4시간이상 ~ 5시간미만	15.4	15.9	25.0	9.9
	5시간이상	54.4	50.4	28.2	46.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01	2,628	601	436
평균(시간)	5.2	5.0	3.9	5.1	
여가시간 하는 일	TV 시청	46.6	44.9	58.7	53.7
	컴퓨터	34.8	37.2	24.5	27.4
	독서	2.4	5.1	2.9	3.6
	운동	5.3	5.3	3.5	3.9
	영화, 연극, 미술, 스포츠 관람	2.4	2.3	2.2	2.5
	종교 활동	0.0	0.4	0.0	0.0
	동아리(동호회) 활동	0.2	0.9	0.3	0.6
	음주가무	2.3	1.1	1.7	0.2
	쇼핑	0.9	0.4	1.1	0.3
	아르바이트	2.2	0.3	0.8	0.2
	가사 일 돕기	0.6	0.2	0.8	0.2
	낮잠	1.2	0.7	1.9	1.5
	휴식	1.0	0.9	1.1	5.0
	기타	0.1	0.3	0.6	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39	604	450

다음은 휴일 여가시간과 그 활동이다. 휴일은 평일보다 집단 간에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다. 2년제 대학생 8.4시간, 4년제 대학생 8.3시간, 취업자 8.6시간, 미취업자 6.8시간으로 평일보다 여가 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에 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TV 시청이나 컴퓨터 활동이 가장 많았으나, 집단별로 영화·연극·미술·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활동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종교활동도 평일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 집단의 경우 영화·연극·미술·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활동이 16.7%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II-5-8〉 여가시간과 활동 - 휴일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여가활동 시간	1시간미만	0.2	0.1	0.1	1.7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1.6	0.8	1.4	3.6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5.2	2.7	3.4	7.7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5.0	5.3	5.6	10.8
	4시간이상 ~ 5시간미만	4.5	6.4	6.1	12.4
	5시간이상	83.4	84.7	83.4	63.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00	2,630	599	447
평균(시간)	8.4	8.3	8.6	6.8	
여가시간 하는 일	TV 시청	37.5	37.0	40.3	43.7
	컴퓨터	30.9	30.6	20.3	29.9
	독서	2.0	3.6	1.7	1.5
	운동	7.0	6.0	2.6	4.8
	영화, 연극, 미술, 스포츠 관람	5.4	8.7	16.5	7.1
	종교 활동	1.9	4.3	2.5	3.4
	동아리(동호회) 활동	0.2	0.5	0.2	0.0
	음주가무	6.3	3.6	4.7	2.9
	쇼핑	1.3	2.0	5.3	1.3
	아르바이트	2.3	1.4	1.2	0.0
	가사 일 돕기	0.7	0.4	0.7	0.5
	낮잠	2.4	1.2	2.4	1.3
	휴식	1.7	0.7	1.1	2.8
	기타	0.2	0.1	0.5	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38	604	450

컴퓨터 사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일에 컴퓨터 평균 사용 시간은 2.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습 관련 컴퓨터 사용 시간은 전체 사용시간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년제 대학생 0.7시간, 4년제 대학생 0.7시간, 취업자 0.3시간, 미취업자 0.9시간으로 다소 미미하였다.

〈표 II-5-9〉 컴퓨터 사용시간 - 평일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컴퓨터 사용시간	30분미만	3.0	1.7	8.9	6.8
	30분이상 ~ 1시간미만	1.9	3.3	5.2	5.8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25.8	29.3	38.5	26.0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30.0	33.5	21.7	23.0
	3시간이상	39.3	32.2	25.7	38.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72	2,600	542	413
	평균(시간)	2.5	2.3	2.4	2.6
학습관련 컴퓨터 사용시간	30분미만	54.2	47.7	77.8	55.8
	30분이상 ~ 1시간미만	2.6	8.4	2.7	4.8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31.5	31.3	14.3	20.2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7.1	8.2	3.4	9.5
	3시간이상	4.6	4.5	1.8	9.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41	2,556	514	406
	평균(시간)	0.7	0.7	0.3	0.9

휴일에는 평일에 비해 여가시간에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2년제 대학생 3.3시간, 4년제 대학생 3.1시간, 취업자 2.4시간, 미취업자 3.1시간으로 평일에 비해 30분 가량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관련 컴퓨터 사용시간은 평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II-5-10〉 컴퓨터 사용시간 - 휴일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컴퓨터 사용시간	30분미만	4.0	2.7	6.3	2.7
	30분이상 ~ 1시간미만	0.7	1.4	2.4	1.5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13.1	15.4	26.2	20.2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24.3	24.9	27.1	27.5
	3시간이상	57.9	55.7	38.0	48.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71	2,595	544	412
	평균(시간)	3.3	3.1	2.4	3.1
학습관련 컴퓨터 사용시간	30분미만	58.0	53.1	78.6	56.2
	30분이상 ~ 1시간미만	2.9	4.5	1.3	3.9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25.2	27.6	13.7	20.3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8.1	9.7	3.7	9.9
	3시간이상	5.7	5.1	2.8	9.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38	2,546	512	406
	평균(시간)	0.7	0.7	0.3	0.8

월 평균 독서량에 대해 질문한 결과 2년제 대학생 2.5권, 4년제 대학생 2.5권, 취업자 1.9권, 미취업자 2.2권으로 집단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5-11〉 독서량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1권미만	6.2	4.7	9.0	5.8
1권	47.8	38.8	49.7	52.8
2권	21.6	26.9	21.6	19.5
3권	10.1	13.6	9.6	10.7
4권이상	14.3	16.1	10.0	1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662	2,035	381	240
평균(권)	2.5	2.5	1.9	2.2

다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결과이다. 먼저 동아리 활동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년제 대학생의 16.4%, 4년제 대학생의 32%, 취업자 6.4%, 미취업자 4.9%가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평균 개수는 2년제 대학생 1.2개, 4년제 대학생 1.4개, 취업자 1.4개, 미취업자 1.5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아리 활동 일주일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생이 4.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자 4시간, 2년제 대학생 3.7시간, 취업자는 3.4시간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5-12〉 동아리 활동여부와 갯수 및 시간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동아리 활동 여부	예	16.4	32.0	6.4	4.9
	아니오	83.6	68.0	93.6	95.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41	604	451
활동 동아리 갯수	1개	85.7	76.0	72.4	64.5
	2개	11.7	17.9	18.3	21.4
	3개이상	2.6	6.1	9.3	14.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81	846	38	22
	평균(개)	1.2	1.4	1.4	1.5
동아리 활동시간	1시간	24.3	18.2	28.9	6.7
	2시간	24.3	19.5	22.4	20.7
	3시간	14.4	19.8	19.1	48.1
	4시간	11.5	12.3	10.2	3.1
	5시간이상	25.5	30.1	19.4	2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82	844	39	22
	주 평균(시간)	3.7	4.7	3.4	4.0

각 집단별로 구체적인 동아리 활동 종류를 살펴보면, 2년제 대학생의 경우 스포츠·레저가 2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14.1%, 봉사활동 11.6%, 컴퓨터 관련 학습활동 7.4% 순이었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는 문화·예술 활동과 스포츠·레저가 22.6%로 가장 많았고, 봉사활동 10.6%, 종교활동 8.8%, 친목도모 6.6% 순이었다. 취업자들이 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은 스포츠·레저가 30.3%로 가장 많았고, 동창회나 향우회 등의 친목도모가 23.1%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그 다음은 문화·예술 18.1%, 종교활동 7.8% 순이었다. 미취업자의 경우 스포츠·레저가 28.7%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19.4%, 게임·오락 15.6%, 종교활동 9.1% 순이었다.

〈표 II-5-13〉 동아리 종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외국어 학습	1.5	3.3	1.7	0.0
컴퓨터 관련 학습	7.4	5.6	2.4	1.8
시험 준비(공무원, 자격증 등)	2.3	1.0	0.0	1.0
문화, 예술	14.1	22.6	18.1	19.4
문학	1.4	2.4	0.0	0.0
종교	6.9	8.8	7.8	9.1
시민운동단체	1.7	0.4	0.0	0.0
봉사	11.6	10.6	2.6	3.3
게임, 오락	4.1	2.0	4.0	15.6
정치	0.0	0.3	0.0	0.0
스포츠, 레저	26.4	22.6	30.3	28.7
신문, 방송	4.8	2.1	0.0	1.0
친목도모(동창회, 향우회 등)	5.0	6.6	23.1	4.6
기타	12.8	11.8	10.0	15.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82	846	39	22

다음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응답결과이다. 먼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년제 대학생 5.0%, 4년제 대학생 6.7%, 취업자 2.7%, 미취업자는 1.0%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 달 평균 자원봉사 할애 시간으로는 4년제 대학생이 9.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자 9.3시간, 취업자 8.8시간, 2년제 대학생 8시간으로 전년도 응답값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아졌다. 자원봉사를 위해 내는 회비나 기부금의 한 달 평균액은 2년제 대학생과 취업자는 4.7만원과 4.1만원, 취업자는 5.7만원, 미취업자는 0원으로 전년도 대비 자원봉사 회비나 기부금 액수도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5-14〉 자원봉사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자원봉사 여부	예	5.0	6.7	2.7	1.0
	아니오	95.0	93.3	97.3	99.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40	604	450
자원봉사 시간	1시간미만	8.3	9.5	20.9	7.9
	1시간이상 ~ 5시간미만	23.4	26.0	61.3	7.3
	5시간이상 ~ 10시간미만	49.7	33.1	4.1	32.2
	10시간이상	18.5	31.4	13.6	5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55	173	16	5
	월평균(시간)	8.0	9.5	8.8	9.3
자원봉사 회비, 기부금 액수	1만원미만	58.3	65.7	44.7	97.0
	1만원이상 ~ 5만원미만	16.0	11.7	18.5	3.0
	5만원이상 ~ 10만원미만	4.3	8.7	1.7	0.0
	10만원이상	21.4	13.9	35.2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44	160	16	5
	월평균(만원)	4.7	4.1	5.7	0.0

다음은 한 달 평균 용돈 액수와 그 사용처이다. 먼저 2년제 대학생의 한달 평균 용돈 액수는 24만 6천원, 4년제 대학생은 27만 1천원, 취업자 32만원, 미취업자 18만원으로 미취업자의 용돈이 가장 적었다. 청년층들의 용돈 주 사용처로는 식사 및 간식비용, 의류

및 미용관련 비용, 교통비용이 주를 이루었고, 미취업자의 경우 학용품 및 도서 구입비용이 다소 높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미취업자의 구성원 중 중학교 3학년 코호트의 재학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의 응답으로는 2년제 대학생과 미취업자의 경우 음주 및 흡연 비용이 8.8%로 높았고, 취업자의 경우 통신비용이 5.5%로 다소 높았다.

〈표 II-5-15〉 용돈 액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10만원미만	10.6	4.2	2.8	24.2
10만원이상 ~ 20만원미만	20.0	15.3	10.7	32.9
20만원이상 ~ 30만원미만	29.1	30.0	23.1	17.9
30만원이상 ~ 40만원미만	24.9	33.1	33.8	15.8
40만원이상	15.4	17.4	29.6	9.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098	2,625	602	440
평균(만원)	24.6	27.1	32.0	18.0

〈표 II-5-16〉 용돈 1순위 사용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학용품 및 도서 구입비용	2.4	4.3	1.2	9.8
식사 및 간식비용	39.8	49.8	28.2	40.6
의류 및 미용 관련 비용	14.7	13.9	33.8	12.4
건강관리비용(운동 등)	0.6	0.9	1.3	0.7
통신비용	3.0	2.4	5.5	4.6
문화활동비용(영화, 연극, 공연 등)	4.6	6.1	5.2	4.6
교통비용	16.9	13.5	8.9	10.7
음주 및 흡연 비용	8.8	4.4	6.4	8.8
오락비용(노래방, PC방 등)	7.6	3.7	5.4	6.5
저축	0.3	0.5	2.6	0.3
기타	1.3	0.6	1.4	0.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5	2,635	602	447

용돈 마련의 방법으로는 대학생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받는 비율이 2년제 65.6%, 4년제 74.7%로 비슷하였고, 취업자의 경우는 94.7%가 스스로 벌어서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가 71.7%, 스스로 벌어서 충당한다는 응답은 23.4%였다.

〈표 II-5-17〉 용돈 마련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전체				
부모(보호자)	65.6	74.7	4.6	71.7
형제자매	0.9	0.1	0.1	0.5
친척	0.2	0.2	0.3	0.1
스스로 벌어서	32.4	24.3	94.7	23.4
기타	1.0	0.7	0.2	4.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6	2,639	604	451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4년제 대학생의 10.6%, 2년제 대학생 4.7%, 취업자 4.6%, 미취업자 4.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5-18〉 해외여행 경험

(단위: %)

구분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2년제	4년제		
예	4.7	10.6	4.6	4.0
아니오	95.3	89.4	95.4	96.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수(명)	1,114	2,639	603	450

■ 저자 약력

-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민주홍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류지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신동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9)
- 제5차(2008)년도 자료 분석 -

· 발행연월일	2010년 12월 30일 인쇄 2010년 12월 31일 발행
· 발행인	권대봉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인쇄처	(주)법신사 (02)720-9786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157-9 93320

